

2024 고창군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보고서

2024
- 10



재단
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GOCHA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제출문

(재)고창문화관광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2024 고창군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용역」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연구기관명 : 공공문화연구소(주)
책임연구원 : 강현정
공동연구원 : 김다희

Contents

I.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3. 연구의 추진체계	13
4. 추진일정	14

II. 고창군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1. 45인의 문화예술인 목록화	17
2. 39명의 문화예술인 이야기	20
3. 6명의 무형유산·명장·명인 이야기	158

III.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정리	213
2. 고창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예술가 의견	214
3. 수집된 자료의 활용방안	216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217

I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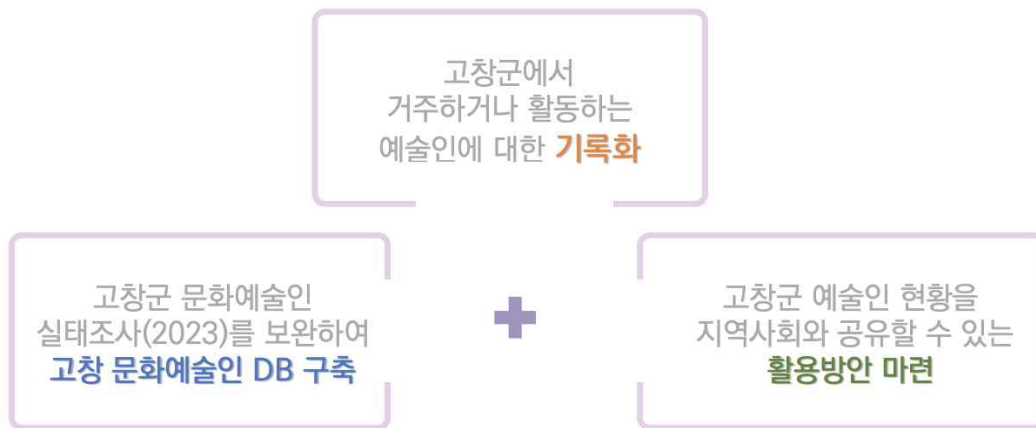
1. 양식	221
(질문지, 구술동의서, 구술활용 동의서, 체크리스트)	

01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고창군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기록화

- 본 연구는 고창군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의 삶과 예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들의 예술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이는 단순히 예술인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인들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후대에 전승될 수 있는 자료로 축적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또한, 고창군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예술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지역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고창군 예술인들의 작품과 삶이 지역 문화자원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고창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23)를 보완하여 고창 문화예술인 DB 구축

- 2023년에 진행된 고창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고창군의 전반적인 예술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이번 연구는 해당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고창군의 예술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구술 기록을 수집하고자 함.

이를 통해 단순한 통계적 자료 이상의 깊이 있는 DB를 구축하고, 향후 고창군의 문화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이 DB는 고창 예술인들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고창군민뿐만 아니라 예술계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고창군 예술인 현황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

- 고창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현황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과정임. 이번 연구는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술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연구의 필요성

○ 고창군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수집과 기록을 위한 기초연구

- 고창군의 문화예술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역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예술인 심층조사 및 구술기록의 필요성

- 2023년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예술인들의 삶과 창작 활동을 심층적으로 기록하여, 예술인들이 고창군 문화예술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남기고자 함.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개인적 이야기를 문화자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 고창군 예술인에 대한 수집자료의 활용 활성화 필요

- 이번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기록 보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이는 고창군 문화예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지역사회와 널리 공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창군의 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범위와 대상

- 대상 분야 : 고창군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 조사 내용 : 문화예술인의 생애 및 창작활동 등
- 대상 범위 : 2023년 고창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예술인
- 연구 기간 : 2024년 5월 14일 ~ 2024년 10월 31일
- 면담 대상 : 고창군 문화예술인 45명
 - * 2023년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전업예술인 68명 중 면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45명을 최종 선정함

◆ 연구의 내용

- 조사대상 예술인 기초자료 취합 및 대상선정
 - 2023년 고창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동의를 얻은 전업예술인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 해당 실태조사에 참여한 68명의 전업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 이중 면담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50명을 2차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면담조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5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함
- 이야기수집가 면담조사 진행 절차와 내용
 - 이야기수집가는 고창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거나 현재 과정 중인 고창군민 중에서 6명을 선발함
 - 이들은 6월 14일, 18일, 21일에 걸쳐 총 3회의 워크숍을 통해 현장조사에 필요한 심층인터뷰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
 - 온라인 패들렛을 통해 면담조사 현황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각종 서식

(녹취록양식, 동의서, 자료 공개 및 이용동의서, 질문지 등)을 제공함

- 면담조사 질문지와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준비를 마쳤으며, 이야기 수집가 4명과 예술가 40명을 매칭하여 면담조사를 진행하였음
- 현장에서의 면담조사는 녹취와 사진, 팸플렛, 저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 연구진 구술채록 진행 절차와 내용

- 무형유산 보유자, 명인, 명장 등 6인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취합하고, 면담조사 일정을 조정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함
- 무형유산 보유자, 명인, 명장 등의 구술자료는 면담조사 후 정리되어 사진, 팸플렛 등의 자료와 함께 취합됨.

○ 수집된 자료의 활용을 위한 재구성

- 45명의 예술인에 대한 녹취록을 정리하여 자료 목록화를 완료함
- 고창 예술인 DB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재구성함

○ 고창 예술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리

- 45명의 예술인 구술자료를 분석하여 고창 예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함
- 분석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예술인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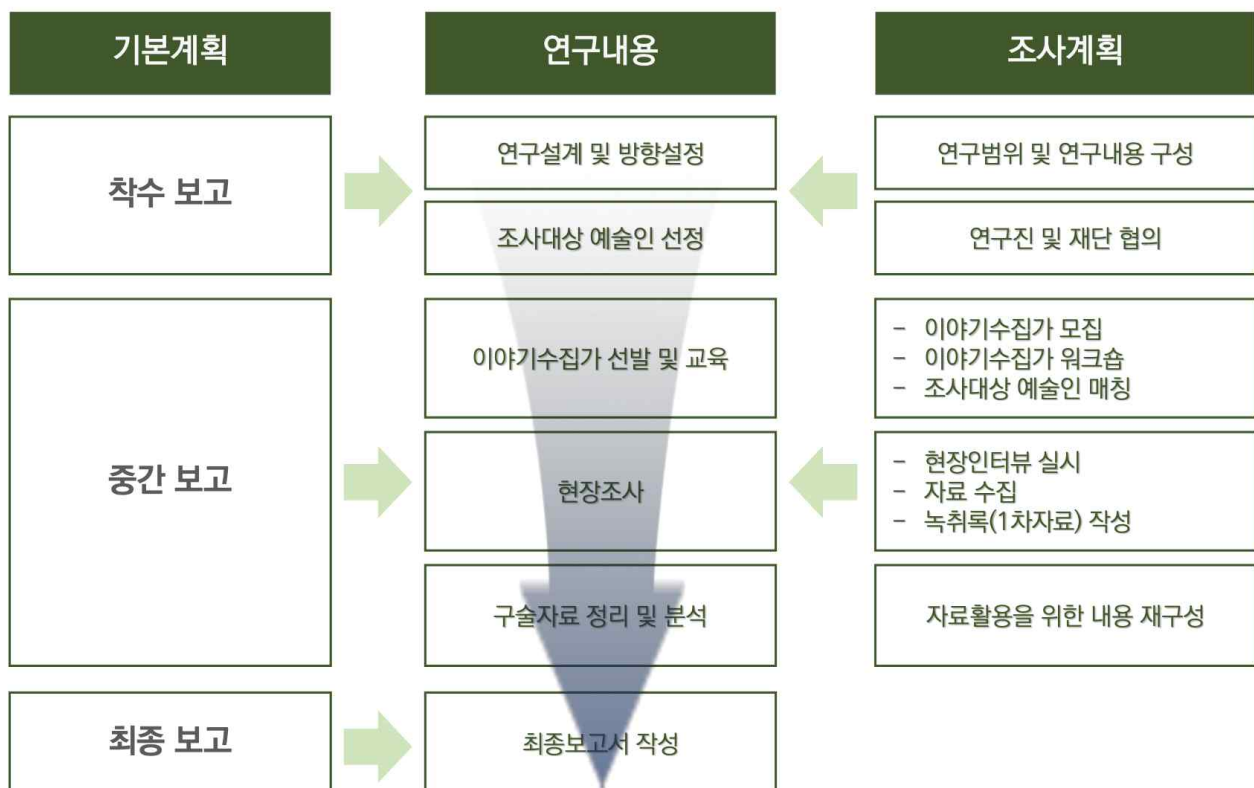
<이야기수집가 워크숍 사진>

3. 연구의 추진 체계

◆ 연구진

구분	성명	역할	기타사항
책임연구원	강현정	총괄 책임	문화인류학 박사
전임연구원	김다희	연구 및 진행	문화인류학 박사과정
이야기수집가	김이화	현장조사	문화기획자
	배길숙	현장조사	문화기획자
	임애진	현장조사	문화기획자
	황정민	현장조사	문화기획자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이준호	연구기획	문화사업팀 팀장
	봉두만	실무책임	문화사업팀 대리

◆ 연구체계도



4. 추진 일정

연구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착수보고서 작성						
이야기수집가 모집 및 선발						
이야기수집가 워크숍 실시						
조사대상 예술인 매칭						
현장인터뷰 실시						
중간 간담회						
녹취록 정리						
자료 활용을 위한 재구성						
최종 간담회						
보고서 작성						
인쇄 및 납품						

02

고창군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1. 45인의 문화예술인 목록화

■ 고창 문화예술인 39인 목록

연번	이름	연령대	예술장르
1	구재연	5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2	권민정	4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3	김경민	3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4	김광희	50대	미술(공예, 칠보)
5	김미루	3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6	김병휘	50대	미술, 문학
7	김영숙	60대	미술(수채화)
8	김옥진	6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9	김용백	60대	미술(한국화, 문인화)
10	김용태	50대	미술(조각)
11	김은선	2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12	김응경	3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13	김정하	50대	미술(서양화)
14	김혜인	2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15	마도현	3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16	문현주	4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17	박성준	3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18	박영진	60대	문학

19	송시준	3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20	송진숙	50대	미술(공예, 도자기)
21	여현수	4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22	옥세진	40대	미술
23	유선이	50대	미술(공예, 가죽, 냅킨)
24	유찬이	4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25	유혜은	4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26	이명철	80대 이상	문학
27	이명훈	5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28	이병섭	3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29	이복남	60대	공예
30	이성수	4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31	이지연	30대	미술
32	정병갑	70대	미술(서예)
33	정호영	3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34	조영하	40대	미술(공예, 도자기, 판화)
35	주영룡	40대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36	차연정	60대	미술(공예, 망건)
37	최은서	60대	음악(양악, 클래식 포함)
38	한상용	70대	미술(서예)
39	황상태	40대	미술(조각)

■ 고창 무형유산 보유자, 명인, 명장 6인 목록

연번	이름	연령대	예술장르
1	권애란	60대	공예 명인(염직문양염)
2	김영남	60대	천연염색 명장
3	김종대	80대 이상	윤도장 명예보유자
4	김희수	60대	윤도장 보유자/ 국가무형유산
5	박미애	60대	공예 자수장/ 지방무형유산
6	유춘봉	60대	도예 명장

2. 39인의 문화예술인 이야기

구재연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서울
- 출생연도 : 1971년



“고창농악을 지키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를 일구는 예술가 “

고창농악을 전수받아 설장구로 활약하며,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구재연 예술가.
고창농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악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면서도 전통의 깊이를 잃지 않으려는 열정적인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1999년부터 고창에 살기 시작했어요. 고창과의 인연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학생 신분으로 전수생처럼 고창에 와서 배웠거든요. 성송면 암사동에 계셨던 황규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마을로 여름과 겨울마다 전수를 받으러 갔죠. 그 인연으로 매년 고창에 오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당시에는 농악을 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농악을 배울 만한 전문 교육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이명훈 선생님께서 고창에서 살 것을 제안하셨고, 고민 끝에 1999년에 고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가 딱 29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연고를 모두 두고, 선생님이 계신 마을로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Q 어렸을 때부터 농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요?

어렸을 때는 농악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농악이 주로 운동권이나 시위에서 사용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풍물패에 가입하면서 농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연이 생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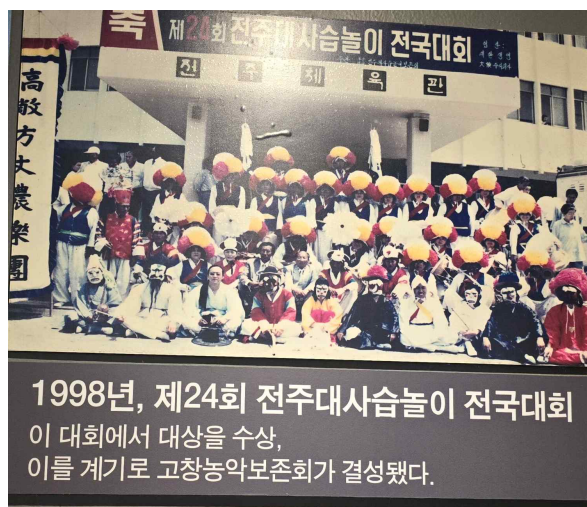
황규언 선생님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1997년에 황규언 선생님께서 전주대사습놀이 고창 방장농악단으로 출전하시면서 저에게 함께하자고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당시 대학생이었지만, 일주일 넘게 고창에 내려와 합숙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농악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죠. 그해에는 2등을 했고, 다음 해인 1998년에 1등을 하며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Q 이 시기가 처음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걸고 공연을 한 건 아니었지만, 고창농악과의 인연은 1993년에 시작되었고, 1997년에 고창 방장농악단 일원으로 전주대사습놀이에 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 고창에서의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전주대사습놀이에서 고창농악 판굿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나갔는데, 사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함께 나가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Q 설장구에 대하여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장구는 고창농악에서 장구를 연주하는 사람을 말하죠. 장구를 치며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농악에서 여러 악기가 함께하는 판굿의 마지막에 각 악기별로 따로 놀이를 합니다. 그때 장구끼리 노는 것을 설장구라고 해요. 여러 명의 장구 연주자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설장구, 혹은 수장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구 놀음을 설장구라고 합니다.

설장구는 장구끼리 함께 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달한 농악의 일종입니다. 전라도 지역이 특히 농악이 많이 발달한 곳이고, 그중에서도 고창농악은 우도농악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농악에서는 머리에 상모를 돌리지만, 고창농악은 고깔을 씹니다. 상쇠만 부포를 돌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깔을 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고깔을 쓰면 손이 자유로워져서 가락을 더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게 돼요. 상모를 돌리면 손이 제한을 받으니까 가락이 덜 발달되는 반면, 우도농악에서는 장단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도농악에서 장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설장구가 그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Q 고창농악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창농악은 특히 고깔소고춤으로 유명합니다. 고창농악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창은 농악이 매우 강한 지역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마을별로 굿을 치고, 당골이라고 불리는 전문 예인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고창과 영광 지역에 특히 많았는데, 이들이 전업으로 악기를 다루며 마을에 그 전통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도 농악을 잘하게 되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1985년에는 고창 오거리 당산제를 지내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제대로 된 농악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 이기화님이 각 마을에 기별을 보내 농악단을 만들기 위해 오디션을 열었죠. 체육관에 마을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을별로 자존심이 걸린 굿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약 40명을 선발해 고창농악단을 결성하게 된 거죠. 그때 상쇠가 황규언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때부터 오거리 당산제가 시작했어요.

고창농악은 쟁과리, 소고, 잡색 등 모든 역할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악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르쳤지만, 고창은 이미 자연스럽게 전통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특히 소고는 각 마을에서 잘하던 어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소고 선생님들이 많았고,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소고를 문화재로 지정받은 곳도 고창이었습니다.

고창에서는 소고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았고, 저희는 한 명의 선생님에게만 배우지 않고, 여러 선생님들의 장점을 모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의 소고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색깔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전국적으로도 고깔 소고춤이 유일하게 고창에 많이 남아 있고, 교과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 장구 가락도 많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창농악이 더욱 특별하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Q 최근 공연을 소개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8월 말에 ‘굿쟁이전’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고창농악의 젊은 이수자들과 전북 지역의 뛰어난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서울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개인 놀이 같은 형식으로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창에서는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고색창연’이라는 이름으로 고창에서 한번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코로나도 끝났으니, 11월에 전수관에서 같은 포맷으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Q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를 예술가로 분류해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예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문화를 일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창농악이라는 전통을 더 많은 고창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확대하고, 동시에 고창농악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창농악은 단체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 고창농악이 고창군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꽃대림 축제’라는 걸해요. ‘꽃대림’은 고창에서 전해져 내려온 말인데, 벼꽃이 필 때 풍년을 기원하며 치는 굿을 ‘꽃대림굿’이라고 불러요. 이 전통이 사라졌다가, 저희가 재현해서 축제로 만들었어요. 여름에 고창농악전수관에서 2박 3일 동안 열리는 축제인데, 캠핑도 하고, 실내외 공연도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초청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이 축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영화제도 열 계획이에요. 고창농악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의 시사회도 여기서 열리고, 포크 가수들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어요. 농악은 무형문화재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고창에 와서 농악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되길 꿈꿔요. 이 축제가 그런 매니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3회차, 4회차를 진행하면서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3.(화) 14:00

▶ 면담장소 : 고창 농악전수관



이야기수집가 : 배길숙

그림책을 읽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할매가 되는 것이 꿈인 그림책테라피스트.

'북꽃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이도, 어른도, 할매도, 할배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책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테라피스트이다.

권민정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경북(예천)
- 출생연도 : 1974년



“고창의 풍류 음악을 사랑하는 거문고 연주자”

국악의 본고장 고창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늘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권민정 예술가. 고창군의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창극단 공연에 녹여내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기획자이자 연주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민정입니다.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이주해 초·중·고를 졸업한 후, 전북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현재 거문고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창 줄풍류 보존회 대표이자 동리문화사업회 사무총장과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 국악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거문고를 전공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판소리의 고장으로, 동리 신재효 선생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동리문화사업회에서 약 8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Q. 예술적 재능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시절 교내 합창부에서 활동하며 대회에 입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테너 파트를 맡았는데,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연습 과정도 남들에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상하게 저에겐 자연스럽게 몸에 와 닿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부터 예술적 재능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Q. 거문고에 매료된 순간이 있었나요?

중학교 때, 지금의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선배들이 학교를 홍보하러 왔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국악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선배들을 보며 막연한 동경심이 생겼죠. 부모님을 설득해 그 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 초에 3학년 선배들이 악기를 시연했는데, 그때 거문고의 강하게 내려치는 소리에 딱 마음이 꽂혔어요. 합창부에서 테너로 활동했던 경험 때문인지, 그 소리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여러 국악기 중에 가야금, 대금, 피리도 있었지만, 저는 무조건 거문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거문고가 제 운명처럼 느껴졌죠.

당시에는 선배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저도 그 모습을 동경했어요. 악기의 구조나 줄 개수 같은 건 전혀 몰랐지만, 단순히 “멋있다”라는 이유로 거문고를 선택했어요.

Q. 몇 살에 데뷔하였나요?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저희 때는 데뷔라는 개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요즘은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국악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는 고등학교가 유일한 선택지였거든요. 당시 선배님들의 시연을 보고 전공을 정했어요. 그걸 데뷔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가 저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고3 때 예술제에서 오디션에 합격해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 게 제 데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서울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거문고를 연주했는데, 그때는 관현악을 꾸려서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한 학년에 거문고 전공자가 30명 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 정도만 뽑혔죠. 그 오디션에 합격한 순간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초청된 큰 행사였기 때문에 더 뜻깊었어요. 지금도 그 예술제는 이어져 오고, 외국에서도 공연을 할 정도로 발전했더라고요.

Q. 고창군에서 거주하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고창과 인연을 맺은 건 2009년에 남편을 따라 해리면에 정착하면서부터예요. 고창으로 이사했지만, 모교인 전북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외부 공연과 강의를 약 10년간 이어왔어요. 그러다 2017년에 동리문화사업회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고창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동리문화사업회는 판소리를 전통 예술로 승화시킨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국악을 대중화하고, 고창이 국악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단체는 35년의 역사를 가진, 사단법인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악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음악감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사무총장을 겸하게 되면서 고창 국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주로 어떤 작품들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동리문화사업회에서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신재효 영인본 관련 학술 세미나와, 고창 소리꾼 허금파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동리 창극 <금파>를 기획하고 제작 중이에요. 또한, 하반기에는 34회 동리대상, 37회 KBS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제8회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등 여러 국악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문고 연주자로 활동하지만, 동리문화사업회 사무총장으로서 주로 창극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년에 독립창극단이라는 사립 단체를 창단했는데, 첫 작품 <옹녀전>을 제작해 양꼬르 공연까지 마쳤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작품으로 <금파>를 준비 중인데,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최초의 여성 명창 진채선의 뒤를 이어 명창이 된 허금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창의 판소리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저희 창극단은 사조직으로 운영되는 단체라 여건이 열악하지만, 고창의 판소리 전공자들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여성 최초 명창 진채선의 고향이자 여성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창극을 통해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알리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Q. 고창문화관광재단 지원 사업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참여 소감이 궁금합니다.

2022년에 고창문화관광재단 사업에 한 차례 참여했어요. 당시 사업 공모명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고창 줄풍류 보존회가 “고창 풍류 현곡정사와 교우하다”라는 주제로 창립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 공연은 특히 중요했어요. 단절된 고창의 전통을 되살리고, 코로나 시기였던 만큼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고창 줄풍류를 알리는 것이 목표였죠. 고창문화관광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덕분에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창 줄퐁류는 호남퐁류의 중심이었던 만큼, 이 전통을 이어가고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창줄퐁류보존회를 조직했고, 재단의 지원 덕분에 이런 문화적 가치를 무대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재단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Q. 본인을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창에서 국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창이 국악의 성지라는 건 많은 이들이 알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미 그 명성은 이제 빛을 바랬을지도 모르고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하는 권민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큼니다.

Q.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우리 음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지금 고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창의 판소리와 줄퐁류 음악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창의 특징을 홍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Q.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는 더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고창 국악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리문화사업회에서 판소리 개통의 다양한 사업과 고창 줄퐁류, 고창의 퐁류 음악의 전통을 잇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문고 연주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요. 더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고창의 국악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12.(금) 11:00

▶ 면담장소 : 신재효 판소리공원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김경민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전주)
- 출생연도 : 1988년



“전통판소리 공연제작자를 꿈꾸는 피리연주자”

국악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으로 꽃핀 피리연주자 김경민 예술가.
국악 연주자를 넘어 전통판소리를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전통공연 제작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 피리를 전공했고요.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 사회적기업인 국악예술단 고창에 취합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 단체에서 공연을 제작하기도 하고 피리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Q 어린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특별히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국악을 좋아하셨는데, 아마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국악을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셔서 동생은 무용을 시키고, 전 국악기를 시켜서 피리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도 지금도 장구도 치시고 난타도 배우세요.

사실 전, 전주예고에 입학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합주도 하고 공연도 올리다보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연을 만들거나 연주하는 것에 심취하게 되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다보니 지금 이렇게 공연을 만들고 함께 연주하는 것이 즐거워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Q 합주나 공연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술활동을 하면서 매료되었던 첫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를 나갔었는데, 운이 좋게 저희 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상을 타게 된 것도 기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연주하는 실내악을 하면서 독주보다 이렇게 팀 활동하는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합주와 공연제작하는 분야에 더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처음 데뷔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2010년쯤이었을 거예요.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란 공연이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학다닐 때 만들었던 팀단원과 정기연주회처럼 공연을 했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프로그램을 함께 연주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도 그때가 첫 데뷔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엄청 떨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쉬운 곡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떨어서 곡의 시작을 맞추지 못해서 더 기억에 남아요. 저에겐 슬픈추억이죠.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즐거웠어요. 당시 대학생 시절인데, 열정이 넘쳐서 새벽까지 연습을 했어요. 팀 단원들이 모두 즐겁고 재미있게 연습했는데, 아침 6시에도 연습하고 밤늦게도 연습했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비록 1시간 정도 되는 공연이었는데 그땐 두달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요.

Q 언제부터 고창군에서 활동하게 되셨을까요?

2012년에 ‘국악예술단 고창’ 오디션을 통과하고 고창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리연주자로 취업을 했는데, 단체운영이 열악하다 보니 모든 일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기획도, 홍보도, 공연제작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디션은 학교에서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 당시 단체대표님이 학교 선배님이시기고 했고 오디션에 참여해보라는 권유로 참여했는데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있네요. 당시 오디션 경쟁률이 3:1이었어요.

Q 예술가로서 어떤 작품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2024년) 7월 15일, 다음주 월요일에 공연할 국악창작 아동뮤지컬을 준비중이에요. 제목은 ‘고인돌대장 모로’ 라는 고창의 캐릭터인 모로를 주인공으로 공연을 제작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적벽가를 각색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관람하는 아이들이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에요. 지금 홍보중인데 500명 정도 예약된 상태예요. 500명은 유치원생으로 채워질 것 같고요.



Q 활동하시는 장르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악공연 제작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창작국악곡을 주로 연주합니다. 상주하는 작곡가가 계시고 그 작곡가가 곡을 창작하면 그 곡을 연주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리를 연주하는 국악공연 제작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창군에서 공연을 만드니깐 고창에 숨겨진 이야기를 재발견하고 재미있는 극이나 음악극을 만들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팀이 고창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역에 기반한 국악공연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Q 제작했던 작품중에서 기억에 남은 기획이 있으실까요?

‘진주를 삼킨 거위’ 작품이에요. 이 극은 올해(2024년)를 제외하고 지난 6년 동안 계속 공연했어요. ‘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 사업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선정되어 6년 정도 공연을 지속할 수 있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뻐고 저희 단체의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람들에게 어떠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열심히 하는 예술가라고 기억되고 싶어요. 대중 하는 예술가가 아닌,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단순한 공연이라도 매순간 고민하고 좋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 생각하는 예술가, 그러면서 연주도, 홍보도, 제작도 하는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지금은 전통 판소리보다 대중적인 뮤지컬 창작공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왕래가 있는 소리꾼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통판소리 중심의 공연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출님과 대표님이 함께 그 방안을 찾고 있어요. 내년에는 뮤지컬보다 전통판소리로 소리다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기획중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고창은 문화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이고 즐거운 도시인데 아직까지 전통음악에 대해 접근방식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서 타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고창에 좋은 공연이 많다는 것을 지역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 면담일시 : 2024. 7. 8.(월) 11:00

▶ 면담장소 : 고창문화의전당 지하 연습실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김광희

- 분야 : 미술(공예, 칠보)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66년



“칠보와 미술 치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안을 전하고 싶은 예술가“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김광희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창에서 태어나서 고창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대학은 전북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고창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미술학원을 시작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미술학원을 운영했어요. 그 시기부터 작가 활동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Q. 어린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세월이 지나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언제부터 이런 재주가 있었을까 생각해볼게 돼요. 재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이쪽에 종사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고창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학교에 엄청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공개 수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찰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었고, 선생님께서 부모님들이 오시는 날 그걸 지적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셨죠. 그때가 어찌면 제가 처음으로 인정받았다고 느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초등학교 복도에 제 포스터나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내가 조금 다르긴 했나 싶기도 해요.

Q. 현재 하고 계신 예술 활동에 매료되었던 첫 순간이 기억나시면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와중에, 고창 미술협회에 작품을 내보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았어요. 그때는 작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작업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어떻게든 힘들게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죠. 단체전이였지만, 그게 저에게는 첫 공개적인 전시였어요. 대학 때 졸업 발표회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건 별개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내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기억이 나요.



Q. 데뷔는 언제 하셨나요? 그때의 기분이 궁금하네요.

데뷔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게 30대 중반쯤인 것 같아요. 데뷔할 때는 설렘도 있었지만,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동시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Q. 데뷔 당시와 지금 작업 방식이 많이 달라졌나요?

미술의 흐름이 시대에 따라 변하듯, 저도 작업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초기에는 사실적인 자연물을 관찰해 그리곤 했는데, 그 관찰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극대화해서 표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실적인 작품보다는 반구상적인 작품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형태의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지금은 주로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또 그것을 어떤 장르라고 칭해야하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30대 중반, 첫 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작품 스타일은 장르가 복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분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장르를 시도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화를 하다가도 입체적인 공간 구성에 관심이 있어서 입체와 평면을 콜라보하는 식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해서 그런지 입체적인 작업에도 흥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채화나 아크릴화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키는 것이 제 작업 스타일이예요. 그리고 2021년에 칠보 명인으로 인정받고 나서부터는 칠보 작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공예라고 국한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동서양의 기법들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공예라기보다는 회화의 한 부분으로 보고, 칠보라는 재료를 이용해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한국예술위원회 제 21-04-18-03호
한국예술위원회인 양승우(가명)의 한양
한국예술위원회
한국예술위원회(가명)의 한양
이보영(가명)의 한양

Q.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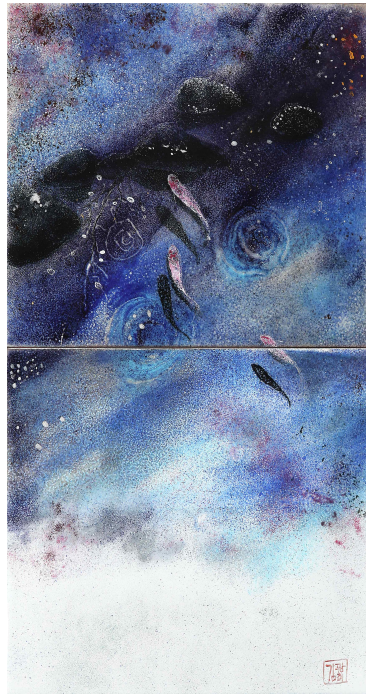
문화재단이 처음 생겼을 때, 저도 칠보 작가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작년에는 창작 지원금을 신청해서 칠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과 함께 전시까지 진행했어요. 또한, 치유 축제에 참여해 미술 치료와 칠보 프로그램도 진행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Q. 참여해보신 소감은 어떠했나요?

작년에 <다정한 사무소>라는 프로그램에 미술 치유 강사로 참여했었는데, 그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서 미술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잘 계획했다고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단편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꾸준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

Q.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또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결국 어떤 예술가든 간에 사람들이 그를 통해 힐링하고 행복을 느끼기를 바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TV에서 한 작가의 작품을 봤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작품이 내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인데, 저는 제 작품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주고 싶어요. 슬픈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슬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 동시에 제 작품이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더 성장하고, 더 멋진 작품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치유 미술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미술 작업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어요.

- ▶ 면담일시 : 2024. 7. 24.(수) 15:00
- ▶ 면담장소 : 아트곳간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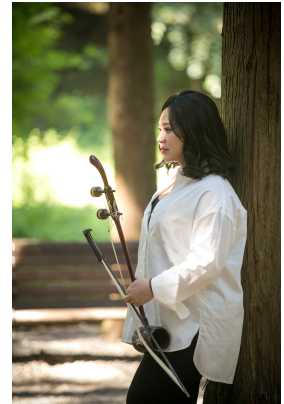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김미루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전주)
- 출생지역 : 서울
- 출생연도 : 1990년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독보적인 해금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은 김미루입니다.”

고창과 전주를 오가며 해금으로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김미루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금을 다루는 김미루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주로 이사를 왔어요. 전주 예술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서 활동하다가 약 6년 전부터 '국악예술단 고창'에서 일하며 본격적으로 고창군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악기 해금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릴 때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쳤고, 전주로 이사 온 후,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판소리도 배웠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예고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악, 그리고 해금을 배우게 됐죠.

더 자세하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이올린 레슨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유학을 가시게 됐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당시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음악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좋겠다.” 라며 예술고 진학을 권하셨어요. 해금은 어떤 악기인지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해금할게요!” 라고 말했죠. 열심히 연습해서 시험을 치르고 예고에 입학했어요. 사실 해금이 바이올린과 비슷하게 현악기고 활을 쓰는 악기라서 생각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Q.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악기를 계속 접하면서 자라셨네요.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셨나요?

서울에서 살 때 옆집에 피아노 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 가서 피아노를 막 치곤 했어요. 부모님이 제가 좀 치는 것 같으니까, “매일 배워보자!” 해서 그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쳤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 초등학교 때 방과 후 수업에 바이올린 수업이 있었는데, 그걸 2~3년 정도 하다가 괜찮아서 개인 레슨으로 바뀌서 배웠죠.

Q. 그렇다면, 해금으로 데뷔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때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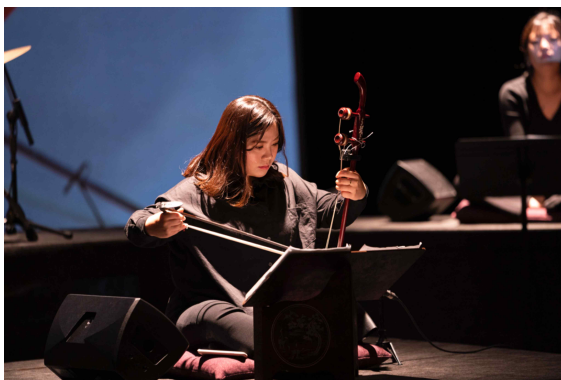
본격적인 활동은 대학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간 2012년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첫 팀 공연을 했거든요. 실내악 공연이었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관객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관객과의 인터뷰 형식으로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 독주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신진예술가 사업으로 독주회를 열었는데, 무대 영상과 함께 진행했던 공연이라 더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전라북도의 장면을 하나하나 그리는 젊은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작업이 마음에 들어서 전북의 이야기를 곡으로 써서 함께 공연을 올렸죠. 유튜브에 공연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Q. 공연에서 연주를 할 때 어떤 상태로 임하나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공연할 때 오로지 음악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면 “컵이 차갑다”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무대에 서면, 그 순간엔 딱 그 음표와 선율에만 집중해요. 그 집중력이 발휘되는 게 저도 신기해요! 무대에 서면, 그 선율이 마치 저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깊게 몰입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표정을 찡그리며 연주할 때 연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주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음악에 몰입하면 내가 없고, 오직 음악만 남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내가 이랬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연주할 때 어떤 표정이나 손짓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몰입했구나 싶죠.



<2018년 10월 28일 독주회>

Q. 해금에 매료된 특정한 순간이 있나요? 인상적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행사에 많이 참여할 때의 일화예요. 어느 날, 제가 오전에는 절에서 공연을 했고, 그날 저녁에는 수녀원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절에서의 모습과 수녀원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녀원에선 저도 모르게 더 경건해지고, 그 바이브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절에서는 “다라~다~나~“ 하던 해금 소리가, 수녀원에선 “라라~라라“ 이렇게 더 부드럽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장소나 환경에 따라 제 몰입도와 해금 소리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요. 그게 저도 신기했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제 소리도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연주를 했지?’ 싶었어요. 그런 순간이 해금에 더 매료되는 순간인 거 같아요. 음색 같은 것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원래 사람들은 어릴 적 꿈이 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현실에 맞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꿈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해외에 공연장을 차리고 계속 공연을 하고 싶다는 꿈이요. 지금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장 관장님이나 사장님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많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현실과 조금은 타협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엔 제가 하고 싶은 공연을 만들어서 더 넓은 세상에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Q. 만약 현재 해외에 공연장을 마련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싶나요?

저는 실험적인 걸 많이 좋아해요. 클래식 음악 쪽을 보면, 바이올린 같은 악기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전통 계승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독주회를 했을 때는 훨씬 자유로웠어요. 해금을 활로만 긁는 게 아니라, 뜯거나 두 줄을 같이 긁는 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었거든요. 전통적인 정악이나 산조도 물론 좋지만, 국악으로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전주에서는 아직 그런 시도가 많지 않아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죠. 저는 거문고 팩토리 같은 팀의 시도들이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거문고를 술대로만 연주하지 않고 활로 긁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다만, 제가 작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편이에요.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려면 작곡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저와 같은 감성을 가진 작곡가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Q. 고창군에서 활동을 시작한 건 언제인가요?

한 6~7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고창에서 공연은 많이 했었는데, 정식으로 직장으로 들어간 건 6년쯤 됐어요. ‘국악예술단 고창’에 들어간 게 그때쯤이에요. 그전에는 객원으로 가끔 행사 활동을 했었고요.

Q. ‘국악 예술단 고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국악 예술단 고창’은 만들 당시, 20대들이 모여서 만든 국악 단체예요. 이제는 10년 정도 됐고, 단원들 모두 이제는 30대가 되었죠. 고창군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젊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Q. 해금 연주자로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나요?

‘실내악단의 김미루’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김미루’로 기억되고 싶어요. 연주 실력으로 돋보이고, 특별한 음색을 지닌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유럽 공연 중 네덜란드에서 버스킹(2020.12.)〉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술가들이 어려움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건 제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죠. 코로나 이후에 악기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여기에 남아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에서든 멋진 공연을 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좀 더 재밌는 공연을 준비하고 싶어요.

▶ 면담자 : 김다희(공공문화연구소 연구원)

▶ 면담일시 : 2024. 7. 23.(화) 14:30

▶ 면담장소 : 전주시 소재 카페

김병휘

- 분야 : 미술, 문학
- 활동지역 : 서울 및 경기권,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63년



“자연과 일상을 시와 그림으로 담아내며, 작은 불빛처럼 따뜻한 예술로 기억되고 싶은 예술가“

그림과 시를 통해 자연과 일상을 담아내는 김병휘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첫 전시의 떨림을 기억하며,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도 활동을 이어가는 그는, 큰 별이 아닌 작은 불빛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림도 그리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집도 한 권 냈어요, 제목은 '사과 여행'입니다. 2009년에 출판했죠. 시만으로는 돈이 되지 않으니 생업으로 숲 해설가로 10년 넘게 일했어요. 경기와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지는 이제 한 7년쯤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소소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방학숙제를 할 때 도구도 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든 숙제를 해야 하니까 대충 했는데도 학교 뒤에 환경관에 종종 제 그림이 걸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죠. 그냥 대충 했는데도 걸리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 건가 싶었어요. 자신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주니까 속으로는 내가 이걸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Q. 예술 활동에 매료된 첫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처음 전시회를 열었던 때였을 거예요. 1991년, 20대 초반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제 작업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어요. 혼자 숨어서 작업을 하다가, 아는 분이 전시 참여 신청서를 가져오셔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르신의 성의 때문에 결국 냈죠. 사실 처음에는 두근거리고 걱정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상한 말을 할까 봐. 그런데 결과는 좋았어요. 제가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전시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사실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부추겨줘서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시도 하고, 시도 일기처럼 쓰고, 혼자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지내고 있어요.

Q. 데뷔 작품 중에서 하나를 꼽아 제목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그때는 처음이라 주로 정물화를 많이 그렸어요. 기억에 남는 건 코스모스를 그린 작품인데, 화병 대신 향아리에 담긴 코스모스를 그렸죠. 그 그림을 후배들이 모여서 집들이 선물로 사갔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작품을 샀다고 얘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에요. 저는 주로 꽃을 그려요. 꽃은 예쁘니까요. 길을 걷다 보면 코스모스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렸던 게 코스모스 그림이었어요. 좀 어설프지만, 예뻐으니까 낙찰이 됐나 봐요.

The 1st Solo Exhibition By
KIM, BYUNG H WEE

시와 그림으로 읽는 시와 여행

김병휘 개인전

2014. 4. 30. WED - 5. 6. TUE 토포하우스1관



향아리 100x100cm 2009



꽃밭 100x100cm 2009

강아지들

작은 동네풍을 손에 익히듯 가난하기
몸에 밴 아토피에 황이 두었다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은 울먹이는 한 남의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아빠가
불쌍이 아니라 불쌍이네요



강아지들 100x100cm 2013



비 오는 날 100x100cm 2014

Q. 서울, 경기도, 고창을 오가며 활동을 하신 건가요?

거의 서울에서 활동했어요. 여기는 부모님이 계셔서 가끔 내려왔는데,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자주 오가긴 했죠. 활동은 서울에서만 했고, 고창에 내려온 건 2016년인가 2017년쯤, 6월이나 7월쯤이었어요.

Q. 지금 주로 하시는 작품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예전만큼 많이 하진 않아요. 예전에 했던 작품들을 손보기도 하고, 요즘은 에너지가 딸리니까 작은 소품들 위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화는 꾸준히 하고 있죠. 가끔씩 시도 쓰고요. 지금 작품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Q. 시는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시를 쓰게 된 데는 사연이 많아요. 원래는 그냥 혼자 일기처럼 글을 썼어요. 일상적인 일을 쓰다 보니까 좀 단조롭고 심심해져서 제 생각을 담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 번은 그림 전시회를 했는데, 어떤 시인이 제 그림 앞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이야기로 풀어내는 걸 보고 저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명함을 주시면서 꼭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는 공부 모임에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지만, 그때는 해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일기를 한 번 보여드렸더니, 그게 시의 출발점이 됐어요. 그분이 시를 쓸 수 있게 테크닉을 알려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결국 시문학으로 정식 등단까지 하게 됐죠. 책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그분이 도와주셨고, 책 뒤에 글을 써주실 예정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참, 은인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그러면 시를 따로 배우셨나요?

네,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처음부터 막 잘하지는 않았고, 아는 분들이 저를 부추겨 준 덕에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었죠. 5년 동안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시문학으로 정식 등단을 했어요.

Q.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험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원래 산업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산업 미술은 저한테 좀 안 맞았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형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좀 벅찼죠. 그래서 서양화로 바꾸게 됐고, 순수 미술로 전향하게 됐어요.

Q. 해외에서도 전시를 많이하신 것 같아요. 전시회를 열었던 기억에 대해 들려주세요.

처음 해외 전시는 중국 산시성 미술관에서 초대전으로 열렸어요. 그때 서안에서 열흘 정도 전시하고, 여행도 좀 다녔죠. 타슈켄트 국제전이나 비엔날레에도 참석했었고, 홍콩 아트페어 같은 곳에도 그림을 보내기도 했어요. 오사카, 캐나다 등 여러 국제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불려주면 상황이 되면 참석하는 식으로 다녔죠.

Q.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특pecially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어요. 지금 내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Q.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나요?

예술가로서도 저는 언젠가 가지만, 예술은 남는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 말처럼요.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고 싶어요. 큰 별은 아니어도, 작은 반짝이는 빛처럼, 제 이름처럼 작은 불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새로운 그림을 한 번 더 발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집도 한 권 더 내야 해요. 컴퓨터가 고장 나서 자료를 다 잃었는데, 그걸 다시 찾아서 시집 한 권 더 내고 싶어요. 그걸 다 하면 좀 자유롭게 쉬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숙제를 남겨둔 기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그 마음을 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시회도 하고 시집도 내고 나서 잠시 쉬려고 해요.

Q.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공간 임차 지원도 해주시는 게 감동이죠.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합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6.(금) 09:00

▶ 면담장소 : 공방(고창군 홍덕면 수침길 40)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김영숙

- 분야 : 미술(수채화)
- 활동지역 : 전북(고창), 경기도(용인)
- 출생지역 : 강원(강릉)
- 출생연도 : 1957년



“수채화로 행복을 그리며, 슬로푸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예술가”

고창에서 자연과 예술을 아우르며 살아가는 수채화 작가 김영숙 님을 만났습니다.
슬로푸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가입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7년에 고창에 내려왔어요. 사실 고창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냥 막연히 좋을 것 같아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고구마, 땅콩, 참깨, 들깨 등 농사도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수채화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개인전도 열고 있죠. 지금은 국제 슬로푸드 고창지부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같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지향하면서 살다 보니,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지구를 아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죠.

Q.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에 재능이 있었나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림은 도시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다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시회까지 열게 됐죠. 어릴 때도 그림을 좋아했어요. 옛날에 왕자 크레파스 24색, 48색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다행히 그걸 갖고 다녔어요.

Q. 그림 중에서도 수채화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계기는 특별히 없어요. 어느 날 그림 그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심심해서 선생님님이 연필을 주시며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렸는데, 선생님이 폭풍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칭찬 덕분에 시작하게 됐죠. 그게 2013년쯤이니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Q. 처음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15년에 용인에서 처음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처음 그린 작품을 전시해도 될까 고민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고, 또 작품이 팔리기까지 하니까 ‘이걸 계속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게 나중에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꾸준히 작업했는데, 제 작품 제목은 대부분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림을 그리니까요. 그때부터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Q. 고창군에 와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한 4~5년 전쯤에는 천아트를 고창군에서 가르쳤어요. 군 수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해는 읍 수업도 했고, 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 눈도 높아졌죠. 가르치다 보면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실력이 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8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수채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배우러 오는 사람들만 가르치고 있어요.

Q. 종이에 그릴 때와 천을 그릴 때 어떤 느낌이 더 좋으세요?

종이에 그릴 때는 종이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천에 그릴 때는 천마다 특성이 다르죠. 광목도 있고, 린넨도 있고, 나일론 같은 폴리 천도 있고요. 그 특성에 맞게 그려야 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하지만 저는 수채화 작가니까 수채화 할 때가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수채화가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쉬울 것 같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천아트는 조금만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Q.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저는 수채화 작가로 불려지는 게 가장 좋아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더 큰 무대에 나가보고 싶어요. 지금 계획 중인 건 10월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가 침체 되지 않은, 꾸준한 수채화 작가로 남고 싶어요. 또 슬로푸드 고창지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슬로푸드를 실천하고 나아가 슬로우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 ▶ 면담일시 : 2024. 7. 15.(월) 18:00
- ▶ 면담장소 : 꽃노을(심원면 서전길 30,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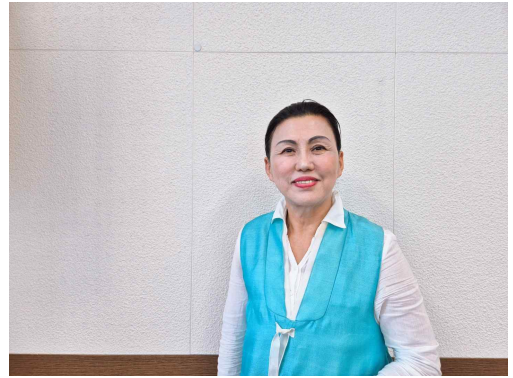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김옥진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정읍)
- 출생연도 : 1954년



“소리를 통해 우리의 한과 기쁨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소리의 매력을 알리고 싶은 예술가”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깊이 있는 소리를 내며, 판소리를 사랑하는 김옥진 예술가.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소리의 매력을 전하고자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판소리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Q.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리를 취미로 하셨어요. 물론 유명한 소리꾼은 아니셨지만,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별한 분이셨죠. 대명창까지는 아니었지만, 저희 고향 근처에서는 소리를 꽤 하셨고, 마을 행사나 상여소리, 회갑잔치 같은 자리에서 종종 소리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직업이 광대는 아니셨어요.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사셨기 때문에 기생들을 불러 함께 소리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저도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흥얼거렸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것도 아닌데, 친구분들이 “저거 봐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 따라 부르네” 하셨고, 아버지는 “시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옆에서 앵무새처럼 소리를 잘도 따라 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리와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Q.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리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엔 소리꾼들이 천민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지만, 직업으로 삼는 건 반대하셨죠. 가족들은 제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되기를 바랐고, 저도 한때는 그 기대에 맞추려 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소리에 끌렸고, 동네 잔치에서 장구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소리를 하시면 저도 따라 했었죠. 결국,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소리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소리는 잊고 살았지만, 어느 날 모양성에 올라갔을 때 심청가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소리하던 기억이 떠올랐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바로 국악당에 가서 소리 수업을 신청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소리가 너무 좋았고,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매일 새로웠죠. 운전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주차장에서 소리 연습을 하다 경비실에서 귀신 소리 난다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소리는 제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소리를 했죠.

Q.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소리 연습을 하셨네요.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은 짧아요. 사람들은 제가 소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상도 받고 활동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남들이 1년 걸릴 걸 저는 한 달 만에 해냈죠. 너무 무리해서 귀에서 소리가 나고 환청이 들릴 정도였어요. 한 번은 발표회를 3일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았는데, 남들 앞에서 소리하고 싶은 마음에 무대에 섰어요. 결국 발표회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몸 상태가 엉망이라며 놀랐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소리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버티며 남정태 선생님을 만나 소리를 계속 배울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돈 걱정 말고 배우라고 하셨고, 저는 그 보답으로 더 열심히 했죠. 결국 판소리 보존회 지부장이 되었고, 군산새만금판소리 무용전국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며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고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었죠.

고창에서 판소리 공연을 세 번 열었고, 유파전이라는 공연도 주최하며 국악계를 알리는 데 기여했어요. 지금은 고창 판소리 녹두꽃 예술단을 운영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보람도 컸습니다. 소리를 하면 아프고 힘든 것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Q. 그러면 데뷔 연도는 언제인가요? 데뷔 당시의 기억이 궁금합니다.

저는 특별히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저 소리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력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배운 지 3개월 만에 복지관 행사에서 무대에 서게 됐어요. “소리 한 번 해볼게요”라고 하니,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산저산 사철가를 했어요. 그때 복치는 분들도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대에 선다고 해서 의아해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듣고 자라서 기본은 잡혀 있었어요.

56세에 동리 국악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리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서 소리를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대에 서게 된 거죠.

Q.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영국 런던의 킥플리스 공연장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무대가 제게는 가장 큰 무대였고, 문화재 선생님들과 함께 소리할 수 있어 가슴에 남았죠. 그때 ‘동백타령’과 ‘지경다짐’을 불렀는데,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20대 딸 같은 애들하고 공연했어요. 공연 후에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늙은이가 젊은이 못지않게 잘했어”라고 칭찬해주셔서 기뻐요.

‘동백타령’은 남도 민요로, 동백꽃에 대한 노래고, ‘지경다짐’은 집을 지으면서 땅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외국인들이 이 민요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그때 받은 기립박수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공연 후에도 사람들로 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그 무대에 다시 서지 못한 건 좀 아쉽네요.

Q. 고창에서는 언제부터 활동하신 건가요?

고창에 온 지 한 4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28살에 결혼했고, 서른하나쯤에 고창에 온 거 같아요.

Q. 지금은 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시나요?

지금은 제 공부보다는 소리를 배우는 분들 위주로 연습을 지도하고 있어요. 고창 녹두꽃 예술단 식구들과 함께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춘향가’의 ‘쑥대머리’나 ‘사랑가’ 같은 눈대목을 연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아는 대목들이라서 더 집중하고 있죠. 또, 회원들이 ‘홍보가’를 완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완창하려면 2시간이 넘으니 쉽지는 않지만, 목표로 삼고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다만, 공연 일정이 많아 꾸준한 연습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네요.

Q.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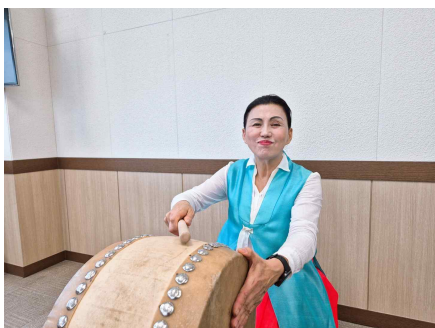
흥덕 기쁨 노인대학에서 2회 공연하고, 양코르 공연으로 한 번 더 해서 총 3회를 했어요. 그때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주셨죠.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 몇십 년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보약이 따로 있나, 웃고 즐기고 하는 게 보약이지”라면서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그래서 양코르 공연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기회가 잘 안 생기네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시 가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Q.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나요?

저는 사실 소리를 늦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선생님께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소리를 했죠. 사람들은 오래 해야만 인정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시작한 저도 나름 열심히 해왔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셋째 딸에게 기대고 있어요. 딸 셋 중 두 명은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만뒀고, 셋째만 계속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에게는 “너는 꼭 이수증 받고 전공자가 되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큰돈을 버는 것보다 소리로 이름을 알리고 성공하는 걸 더 원하거든요.

저도 완창 발표회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거나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숨 쉬는 한 계속 소리를 할 거예요.

저는 송해 선생님을 존경해요. 그분은 특별한 외모나 배경이 있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개성과 사람을 끄는 힘이 있잖아요. 저도 그분처럼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내 개성을 살리면서 살고 싶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그저 좋아서 계속 할 겁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앞으로의 목표는 완창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문제긴 하지만,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완창을 꼭 하고 싶어요. 물론 지방문화제나 중앙문화제가 되는 것도 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제가 되려면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저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 힘들어서 그 꿈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완창 발표회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소리를 가르쳐서 “이것이 우리 것이구나, 우리의 한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어요. 소리를 통해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숨 쉬는 한, 죽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소리를 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요즘도 문화원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 ▶ 면담일시 : 2024. 7. 26.(금) 09:00
- ▶ 면담장소 : 고창문화원 2층 강의실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김용백

- 분야 : 미술(한국화, 문인화)
- 활동지역 : 전북(고창), 광주, 서울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58년



“그림을 통해 자연의 정서를 작가 자신만의 내면을 통해 섬세하게 표현하는 김용백 화가“

고창에 동죽헌 화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먹그림 교육을 통해
예술을 전파하고, 자신만의 색을 담아
좋은 작품을 제작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있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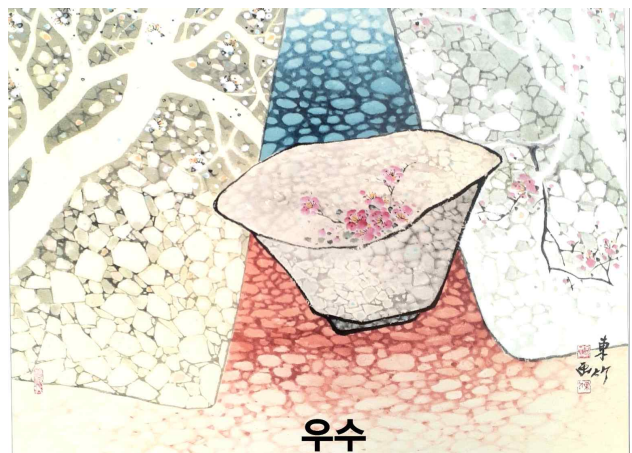
그랬던 거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화가였어요. 미술부 활동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창군에서 최고상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리고 고창군의 대표로 전주에서 열리는 전라북도 대회에도 나갔어요. 그때는 금상이나 동상이 없어서 1등상, 2등상, 최고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때 덕수궁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는 2등상을 받아서 상품을 지게로 지고 갔어요.

Q. 데뷔 당시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처음 데뷔할 때는 문인화를 출품했어요. 그때부터 데뷔가 시작됐죠.



만추 (일본)대한민국총영사관 초청 개인전 (1991.6)



우수

Q. 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나요?

네, 개인전을 많이 했고 초대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에서 열린 초대전에서는 NHK TV 방송국, 여러 신문에서 취재를 받았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Q. 지금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창문화원과 복지관에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작 위주로 작업 및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장르를 하시나요?

장르는 한국화에요.

Q. 작품마다 ‘동죽’ 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저의 호로, 따뜻한 봄철의 대나무라는 뜻이에요.



Q. 작업에 몰두하면 보통 몇 시간씩 작업하나요?

어떤 때는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아침 9시가 되고, 개인전 준비할 때는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작업하기도 해요. 그럼 손에 쥐가 나기도 하죠.



Q.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꾸준히 변함없이 그림에만 몰두하며 내 작업을 완성하고 싶어요. 모나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로, 지역사회에 많은 먹그림을 보급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선운사 초겨울



봄나들이(고창문화의전당 특별기획초대전 /2008년 작)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준비 중입니다. 나만의 개인 색깔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한 점이라도 기억에 남는 작업이 되었으면 해요.



김호미술관 개인전(1990년 작)



- ▶ 면담일시 : 2024. 7. 25.(목) 17:00
- ▶ 면담장소 : 현대아파트 상가 3층 작업실



이야기수집가 : 배길숙

그림책을 읽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할매가 되는 것이 꿈인 그림책테라피스트.

'북꽃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이도, 어른도, 할매도, 할배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책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테라피스트이다.

김용태

- 분야 : 미술(조각)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69년



“고창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예술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예술인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예술가”

고창을 사랑하며 예술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김용태 예술가.
놀이기구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예술인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열정적인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창에서 태어나 고창 서국민학교, 고창중학교, 고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창으로 내려와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곤 했나요?

네, 그렇죠. 홍익대학교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잘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Q. 데뷔는 언제 하셨나요?

1995년도 대학 졸업 때 뉴프론티어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그때 대상을 받았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첫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바로 대상을 받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첫 작품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제 첫 작품은 제 어린 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 작품도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둘 세 개가 쌓여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쪼그려 앉아 팔을 벌리고 앞을 응시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밑의 기둥은 조금 불안정해 보입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도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이죠. 마치 선장이 배를 지키는 것 같은 이미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 강렬한 이미지가 심사위원들에게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Q.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뭐 미술 작품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어렵잖아요. 현재로선 작품을 판매해서 예술가가 먹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작업하는 작품은 놀이기구화 시킨 것들이죠. 주로 축제장에서 어린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제작하고 있죠. 지금까지 세 개를 만들었고, 첫 번째는 흔들목마였습니다. 대한민국 행사장을 가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이 많은데, 새로운 놀이기구나 체험이 하나 있으면 축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이 하고 있는 장르는 어떤 장르인가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각에서도 구상, 비구상으로 나눈다면 이제 구상 파트. 구상은 이제 우리 인체나 동물이나 우리가 인간들이 알 수 있는 형태들 있잖아요. 객관적인 형태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비구상은 추상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형태들을 만드는 거죠. 형태가 없다고 보면 되죠. 정해진 형태가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이것을 다루려면 구상 파트에 해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상파트를 작업하게 되었어요.

Q. 앞으로 어떤 미술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궁금해지네요.

어린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열심히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깨닫게 되는 이야기죠.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평범하지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Q. ‘나’ 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저는 고창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처음 고창에 내려온 목적도 고창을 정신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였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Q.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길 희망하나요?

어떤 예술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예술가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 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중이 좋아해서 아주 스타 작가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공감을 못해서 완전히 작품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작가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요. 작가는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Q.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즐겁고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면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술인들이 돈을 잘 버는 문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제가 사실은 ‘예술인으로서 김용태가 작품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기를 아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작품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고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돈이 되거든요. 어쨌든... 저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유는 “예술인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제 꿈이기 때문이에요.

▶ 면담일시 : 2024. 7. 16.(화) 11:00

▶ 면담장소 : 뿌라조각공원작업실 (고창읍 죽림리 86-5)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김은선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98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고창농악의 장구쟁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고창농악에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농악을 위해 힘쓰는 예술가 김은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열정 가득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8년 5월 28일 고창군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존회에서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사무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도 ‘내가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농악을 시작했어요. 성송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전교생이 농악을 해야 했거든요.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보다 재미있게 했던 편이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선생님께 6학년 때까지 쪽 배웠는데, 그 선생님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특별히 느낀 건 없지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농악에 매료되거나 ‘이건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였나요?

저희 초등학교가 시골 학교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진 건 농악이었어요. 저희 학교가 농악을 잘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고학년 때는 전국대회 준비하면서 책임감도 많이 느꼈죠. 시골 학교라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교생이 고창 전수관에서 합숙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 농악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Q. 데뷔 당시의 기억도 들려주세요.

전공을 결정하고 학교에 갔을 때가 아마 데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이죠. 학교에서는 고창농악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악, 무용, 소리 등을 접하게 됐어요. 첫 공연은 신입생 연주회였는데, 고창농악만 하다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학교에 온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저는 고창농악 하나만 하다가 온 혼치 않은 케이스였거든요. 준비 기간은 힘들었지만, 연주회 당일에는 축하도 많이 받고, 고창에서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Q. 대학생활동도 궁금해지네요. 본인이 입학한 학교와 전공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저는 당진에 있는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입학했어요. 이 학과는 농악, 탈춤, 무용 등 전통적인 연희 예술을 전문으로 배우는 곳이에요. 저는 그중에서도 장구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장구를 칠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탈춤이나 무용, 소리 등 다양한 것을 배우다 보니, 장구를 많이 친다는 느낌은 덜했어요. 오히려 졸업하고 고창에 돌아와서 장구를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Q. 고창에서의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저는 2022년에 고창농악보존회에 처음 입사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걸로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여기에 좋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사실 쉬운 길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전수관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많은 고민 없이 '그래. 그럼 일단 해보자!' 하고 바로 고창으로 내려왔어요.

Q. 본인을 농악에서 '어떤 장르를 구사하는 사람' 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작품 활동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고창농악의 장구제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여러 가지 공연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고창농악보존회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샤이닝 고창'이라는 공연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주최하는 브랜드 상설 전통예술 공연이에요. 이 공연은 순수 고창농악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고창농악에는 다양한 굿의 형태가 있는데, 판굿, 문굿, 풍장굿 같은 것들이 있죠. 이 공연에서는 그 굿들을 짧게 다 보여주며 고창농악의 전반적인 모습을 연행하는 공연이에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샤이닝 고창' 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요. 사실 여러 공연을 해왔지만, 이 공연은 규모가 크고 고창농악보존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예요. 올해만 10회 정도 상설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힘들지만 의미 있는 공연이에요. 특히 이렇게 큰 공연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작년까지는 주로 운영기획 쪽에서 일했는데, 올해는 직접 무대에 서고 있어요.

Q.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고창 문화도시 치유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참여했었어요. 이 사업은 고창문화관광재단과 문화도시센터에서 주최한 거였는데, 제가 실무를 많이 담당했죠. 예전부터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교류가 꽤 있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치유되고 힐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오셔서 재밌게 보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Q.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예술가... 어렵네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물론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은선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은선이 열심히 하지!" 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Q. ‘장구’에 대해 좀 더 소개해주시거나 자랑해주실 수 있나요?

장구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장구를 쳐서 장구쟁이가 됐어요. 장구는 두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재미있어요. 판에서 장구 재비들이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장구는 잘 치기가 어려운 데, 잘 치면 정말 각광 받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책임감도 필요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장구를 많이 주목해 주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오는 재미도 있어서 저는 장구가 정말 좋은 악기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밖에 안 해본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예술이나 기술 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구는 놓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울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장구도 꾸준히 하겠지만, 그에 더해서 무언가를 더 배우고 접목시켜보고 싶어요.

Q. 장구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기분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공연도 재밌고 사무 업무도 재밌지만, 교육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공연은 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하니까 맞춰야 할 것들도 많고요. 반면 교육은 보통 한 명이 어떤 반이나 프로그램을 맡는 것이어서, 저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방학 때 전수관에 와서 배우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길에서 마주치면 “선생님~” 하면서 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께 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걸 알게 되면 뿌듯함을 느껴요. 공연한다고 하면 보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다음 캠프에 “왜 그 선생님은 이번에 캠프 안 하시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진짜 저를 찾아주는 기억이 남아 고맙게 생각해요.

- ▶ 면담일시 : 2024. 8. 6.(화) 15:00
- ▶ 면담장소 : 고창문화관광재단 1층 세미나실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김응경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서울시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91년



“어릴 때부터 음감이 뛰어났던, 대체불가 소리꾼”

소리의 고장 고창에서 판소리 유망주로 주목받으면서 성장한 김응경 예술가는 한국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후배양성의 꿈을 안고 있습니다. ‘허균의 미인여행’ 과 ‘조선셰프 한상궁’의 주연배우를 만났습니다.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창에서 태어났고요. 전통예술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국악에 소질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국악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가족이나 제 주변에 국악하시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어릴 때 약간 음감이 뛰어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한번 들었던 음은 테크닉까지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MBC 열쭉우리가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그대로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부모님께서 보시고 넌 이게 재미있느냐, 왜 재미있느냐라고 몇 가지 여쭙보시더니, 저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국악을 배워 볼 것인지 물어보셨고, 전 배워보고 싶다고 했죠. 이후 동리국악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국악당의 선생님들이 인간문화재이셨죠. 동리어린이소리단 초기 멤버였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이신 조소녀 명창선생님이세요.

저는 수업시간이 오후 3시면 2시 정도부터 가서 제일 앞자리에 필통 놓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서너 달 배웠을까요. 문화재 선생님들이 산공부 합숙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저도 너무나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남다른 재능이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느냐. 그렇게 시작이 됐죠. 10살 때부터요.

Q 처음 데뷔하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10살 가을쯤, 전국국악경연대회란 대회가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시작한지 5,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상을 받았죠. 그 국악제에서 불렀던 것은 심청가예요. 심청가 대목중에서 심청이가 선인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인데, 울면서 따라가는 대목이에요. 뱃사람들한테 따라가면서 아버지를 뒤로 하고 슬픔에 잠겨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계면조를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데 고창에서 개최하는 전국어린이판소리왕중왕대회가 있었어요. 그 해에 또 나갔는데 무대에서 아니리를 불렀는데 욕설이 나오는 아니리였어요. 그때 조그마한 아이가 나와서 욕설을 하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큰 목표는 저를 지도해주신 선생님께서 장학생으로 키워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난거죠. 그래서 후대 국악인들이 금전적, 인맥적, 학연적 관계, 문제없이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예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길이 막혀서 빛을 못 보고 있는 국악인을 발굴하는 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음악을 하기 잘했고, 고집하기를 잘했고, 우리가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큰 신념이라는 것을 전공자들이 느끼길 바라요.

Q 끝으로, 못 다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에겐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과 고향의 지역적, 분야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전통예술에 관심 가져주시는 심덕섭 고창군수님, 그리고 전)고창군청 행정홍보팀장 이셨고 현)성송면장님이신 고미숙 면장님과, 현)문화예술과 김연섭 팀장님께서 저의 기네스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고미숙 면장님과 김현섭 팀장님께서 저를 최연소 타이틀과 최장시간 완창발표회 등을 발굴해 주셔서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 있었어요. 전)문화유산과 과장님이셨고 현)고창군청 안전건설국 국장님이신 나철주 국장님도 아직까지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주시고 계시고, 고창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 위해서 군의회를 통과 해야 했는데, 군에서 의회에 요청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들었어요 현)군의회위원장님 이신 조민규 의장님과 박성만 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만장일치 통과! 전북문화예술부문 고창군 기네스북 등재! 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응원과 관심을 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8. 19.(월) 16:00

▶ 면담장소 : 전화인터뷰



이야기수집가 : 배길숙

그림책을 읽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할매가 되는 것이 꿈인 그림책테라피스트. '북꽃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이도, 어른도, 할매도, 할배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책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테라피스트이다.

김정하

- 분야: 미술(서양화)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72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양화가의 아름다운 동행, 김정하 예술가”

동양화에서 서양화로 전향하며 고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서양화가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동행' 시리즈를 통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내며,

미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창작 활동에 몰두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학교 4년과 졸업 후 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김정하입니다. 주로 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 창작 사업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학원을 20년 넘게 운영해왔고, 현재는 생활을 위해 벽화 작업을 하면서 초등학교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양화를 전공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양화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동양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자꾸 서양화 쪽으로 끌려서 서양화로 전향하게 됐고, 지금은 그 선택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렸을 때부터 한복이나 전통 머리 장식 같은 걸 참 좋아했어요. 판소리도 무척 좋아해서 친구들이 팝송을 들을 때, 저는 판소리를 즐겨 들었습니다. 판소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오직 미술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다른 길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Q 어렸을 때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스스로 느낀 건 아니었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정하야, 남아” 하시더니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집에서도 그림을 숙제로 내주셨어요. 그 그림을 대회에 출품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너무 어릴 때부터 인정받아서인지 자만심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해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Q 첫 번째 전시를 했을 때 기억은 어떠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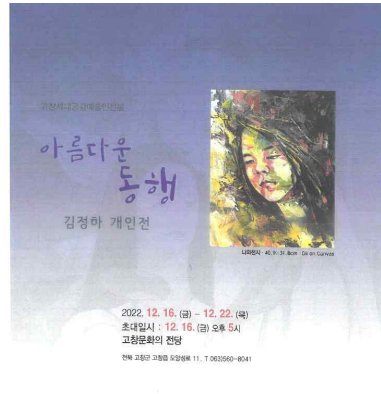
첫 개인전은 재작년에 했어요. 그 이전에는 주로 단체전이나 다른 전시 참여가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감격스럽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그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전시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몇 년 전에 전시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테마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사랑하는 딸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작품인데, 그 작품이 지금도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작품 제목도 “아름다운 동행“이고요. 이 작품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동행 1“, “동행 2“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첫 번째 작품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고창새마을문화예술인전
아름다운 동행
김정하 개인전



Q 대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대학에서 전공은 디자인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전기에 동양화과를 지원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후기에 패션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바꿨죠. 사실 그때는 패션 모델을 정말 선망하기도 했어요. 패션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미술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민중미술도 배웠는데, 제 이미지와는 잘 안 어울리지만 깃발도 그려보고, 판화도 찍어보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데모도 많았고, 그런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저도 그림을 그리고, 후배들 양성하는 일도 많이 했죠.

Q 서양화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나요?

본격적으로 서양화를 시작한 건 한 10여 년 전쯤부터였어요. 그전에는 동양화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서양화도 조금씩 병행했죠. 또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입시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동양화든 서양화든 수채화든 뭐든 다 가르쳐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양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사실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은 재료뿐인 것 같아요. 그림은 다 기본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고,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표현하느냐죠.

Q 주로 작업은 어디에서 하시고, 작업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주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해요. 작은 작품은 집에서 하기도 하고요. 작업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바로 작업하는 스타일이예요.

Q 예술 작업을 하면서 처음 매료된 순간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특정한 순간에 그림에 매료됐다고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순간이 없었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쭉 이어온 거죠. 만약 나중에 시작했다면 어떤 강렬한 순간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그림이 제 삶의 일부였어요. 그냥 제 삶의 한 부분이었고, 항상 저의 정체성이 미술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미술부라는 호칭이 늘 따라다녔으니까요.

Q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지금의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죠.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요즘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정도를 가르치는데, 저는 그 기본이 지금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학원에서 속성으로 창의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체계 없이 그저 보고 그리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저희 때도 처음엔 주제를 주고 자유롭게 그리라고 했지만, 나이가 들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다시 받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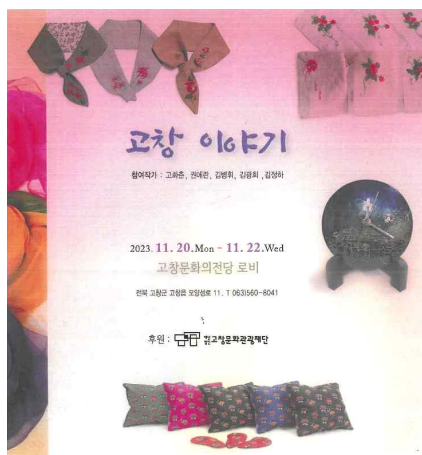
지금은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창작을 하는 단계라,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창작을 하려고 할 때 설레기도 하고, 뭔가를 떠올릴 때 가슴이 뛰어요. 빨리 작업을 하고 싶어지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그냥 입시 위주로 그리고, 창작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었으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Q 최근에는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작년부터 고창이 유네스코 7관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고창 예술인으로서 그 흐름에 동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창의 상징인 고인돌을 배경으로, 거기에 사람을 넣거나 저 자신을 넣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큰 작품 하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술 활동만으로 생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게 예술 창작의 기반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일 뿐이고, 시골 마을에서 강사를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들은 그 저 사람들을 체험하게 하고 예술에 흥미를 붙이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제 개인 창작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제 창작을 진정으로 하려면 전시회나 대회 같은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그림이 확 성장하거든요. 예술가라고 해서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고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발전하죠.

요즘은 예술인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미술품 대여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보긴 했어요.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신 여러 명이 함께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통해 대여료를 받는 방식이죠. 그 대여료가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개관전 : 아름다운 동행
민국예술 고창지부이사
한국 미술협회 고창시부 사무국장
고창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그림그리자: 사람들 대표

Q 사람들에게 어떠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미술가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예쁘고 아름다운 미술가로, 제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전해 주고 싶어요.



내 마음의 풍경 85.1x98.5cm Oil on Canvas



봄날 45.5x37.8cm Oil on Canvas



봄날 45.5x37.8cm Oil on Canvas



사랑 45.5x33.4cm Oil on Canvas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골에 만들어둔 작업실에서 작업에만 몰두하며 살고 싶어요. 그 작업실에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작업하고, 또 자고, 다시 일어나서 작업하는 그런 삶을 꿈꿔요.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내일 뭘 해야 한다는 고민 없이, 한동안은 그렇게 작업실에 묻혀서 순수하게 작업만 하며 지내고 싶어요.

▶ 면접일시 : 2024. 7. 24.(수) 22:45

▶ 면접장소 : 지음공방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김혜인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광주광역시
- 출생연도 : 1995년



“고창을 빛내고, 전통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는 열정 많은 소리꾼”

고창을 빛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 많은 소리꾼 김혜인.
동리 신재효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연 제작과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창의 문화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리꾼 김혜인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에서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입니다.

Q. 판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였어요. 친구가 먼저 판소리를 배워서 저도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동리시네마 자리에 판소리, 농악, 가야금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Q.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판소리를 계속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해지네요.

어릴 때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판소리가 좋아서 다니기 시작했죠.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잘한다, 예쁘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Q. 초등학생 시절부터 판소리를 시작하셨네요. 그 이후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중학교까지는 고창에서 다녔고,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전주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다시 고창에 와서 자리 잡았어요. 최근에는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다니며 석사를 수료한 상태입니다.

Q. 처음 공연에 참여했을 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방과 후 수업에서 판소리를 배우는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산도깨비 소금장수 같은 노래를 불렀죠. 정말 떨렸어요. 비가 와서 천막을 쳐놓고 공연했는데, 너무紧张해서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Q.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무엇인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웃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야의 종 타종행사 때였어요. 너무 추워서 손을 떨면서 공연을 했는데, 하필 손을 떨면서 발립을 했던 장면이 카메라에 크게 잡혀서 부끄럽고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Q. 이야기를 듣다보니 판소리 공연은 야외공연도 많을 것 같네요. 야외공연과 실내공연의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궁금해지네요.

야외 공연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단점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멋진 무대가 될 수 있지만, 소리를 정확히 내고 있나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실내 공연은 음향과 집중도가 좋고, 소리꾼 입장에서 집중이 잘 돼서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Q. 요즘 준비하고 있는 판소리 공연이 있나요?

네. 저희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는 동리 신재효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발전시키는 선양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공연을 준비하고, 그에 맞춰 작품도 제작합니다. 제가 무대에 설 때도 있지만, 주로 뒤에서 제작에 참여하면서 출연자들을 서포트하고 공연 홍보도 맡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를 접할 수 있도록 공연을 많이 만들어 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Q. 기획에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하고 싶은 기획이 있으신가요?

네. 하고 싶은 기획이 많아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아직은 판단이 안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공연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공연에 대해 이해하려고 서울에 가서 공연을 많이 접해보고 있어요. 서울에서 보고 왔던 공연들을 토대로 저도 나중에는 멋진 공연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Q. 고창 판소리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창 판소리의 자랑거리는 동리 신재효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판소리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신재효 선생님이 고창 출신이시니 고창이야말로 판소리의 중심이자 뛰어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고창군에서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창에는 판소리 전수관도 있고, 명창 선생님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옥 건물에 신재효 판소리 공원도 생겼고, 그곳에서 저희와 협력해 진행하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1년간 진행되는데, 40주 동안 다양한 선생님들로부터 소리를 배울 수 있어요. 고창뿐만 아니라 군산, 목포 등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고창은 수강생에게 자격 조건이 없어서 정말 좋아요. 판소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음치라도 상관없어요.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Q. 요즘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가 최초의 여류 명창을 다룬 금파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1회 신재효 문학상에서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금파를 다시 무대에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허금파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신재효 선생님과 김세중 선생님 밑에서 소리를 배우기 위해 고창에 머물렀던 인물이에요. 이 금파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Q. 본인을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소리꾼이나 국악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냐”는 질문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술인들은 평가받고 질타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열정 많은 소리꾼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Q.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잘하는 사람.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는 항상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더 배워가는 단계라서, 그때그때 목표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명창의 반열에 오르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고창에서 활동하며 고창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5.(목) 09:30

▶ 면담장소 : 신재효 판소리전수관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마도현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대전광역시, 전남(영암)
- 출생지역 : 전남(강진)
- 출생연도 : 1993년



“우리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아쟁 연주자”

고창에 단 한 명 뿐인 아쟁 연주자 마도현 예술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락에 담겨 있는 '힘뚝', '기쁨', '슬픔'을 연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전통 음악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죽을 때까지 음악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포부를 가진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강진에서 다녔습니다. 진도국악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국악예술단 고창'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판소리를 하던 저는 선생님께서 아쟁을 전공으로 해보라고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흥미 반, 강제 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 변성기로 인한 슬럼프가 찾아와서 잠시 포기했지만, 진도에 국악고가 생기면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국악계에 발을 처음 들인 데뷔의 시점은 언제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정식으로 국악 예술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쟁으로 전과하면서부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대학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Q 진도 국악고에는 아쟁 전공이 있었나요?

아쟁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게 아쟁을 해보라고 권유하셨죠. ‘너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어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특기자는 아니었고요. 정시로 들어간 케이스예요. 이제 1년 반 동안 선생님께서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배우게 되었죠. 아쟁이란 악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쟁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거죠.

Q 판소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쟁은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아쟁의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빠져들게 되죠. 아쟁이라는 악기가 사람의 울음소리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쟁을 시작할 때 농현이라는 것이 있고, 꺾고 뺨는 게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안에서 사람이 평평 울고 꺾꺾 대고 울음을 참는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져들지 않았나 싶어요.

Q 혹시 대회에 출전한 경험과 상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대회는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장관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최우수상과 차상 정도까지는 받은 경험이 있어요.

Q 고창군에서 아쟁을 하는 예술인이 많나요? 혼자시면 건강관리를 잘하셔야겠어요.

고창에서는 저 혼자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판소리는 더 심하잖아요. 어쨌든 제 몸이 악기이다 보니 목을 항상 아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 조금 덜 관리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Q 고창군에서 일반인들이 아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아쟁을 대여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군에서 지원해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걸리기도 해요. 의외로 아쟁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는 40~50대 어른들이 더 많이 찾는 편이에요. 수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5명만 모여도 수업은 가능하죠. 최소 인원만 모이면 악기 대여는 제가 악기사에 연락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과 고창군을 오가며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힘든 것보다는 이 팀을 만나면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오는 것은 아니고, 공연 연습 일정이나 공연이 잡힐 때 오곤 해요. 큰 정기 공연 같은 걸 준비할 때는 그 전날 리허설을 하고 숙박한 뒤 공연을 진행하죠.

Q 고창군에서만 활동하시는 편인가요?

고창에서는 팀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는 사회적기업 상주 단체로 퍼블릭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전에서도 다른 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팀은 비영리 단체예요. 전남 영암에서도 팀을 운영하고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Q 주로 하는 장르는 전통인가요? 혹은 퓨전으로 진행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전통을 좋아합니다. 퓨전도 하고 전통도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퓨전 안에 전통 느낌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대중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도 하고는 있지만,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공연하는 모습을 보거나 음악으로 들을 수 있나요?

작년 쯤에 레드콘 사업으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어요. 고창 팀으로 만든 뮤직비디오도 있고, 멜론에도 음원이 올라와 있어요. 멜론에서 “국악예술단 고창“을 검색하면 두 곡이 나옵니다. 곡은 3분짜리이고, 이 곡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년 모양성에서 상설 공연을 했을 때 이게 주제가곡이었어요. 높을 ‘고’와 소리 ‘창’이 결합된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Q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원래 가족들도 제게 공부하는 쪽을 더 원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제가 그걸 꺾어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벌어다가 악기를 사고 레슨비를 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는 우리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퓨전 국악이 외국의 현대 음악을 끌어와서 국악기를 집어넣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고유의 음악이 계속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저는 이 전통 음악을 계속 유지하고 계승해 나가고 싶어요. 조선시대의 힘듦, 기쁨, 슬픔이 지금까지 이어온 가락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좋아하고, 웃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Q 개인 독주회를 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쟁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옆에 장단자가 있어야 하고, 무대 대관비부터 모든 것이 짜여져야 해요. 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합주하는 부분도 있어서 선생님들까지 챙겨줘야 하니까, 이걸 사업비를 따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는 있어요.



Q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음악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키우고 싶고, 악기마다 류가 있어요. 판소리로 보면 누구누구의 류가 있는데, 저도 저만의 류를 만들어서 한번 하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2.(월) 16:00

▶ 면담장소 : 조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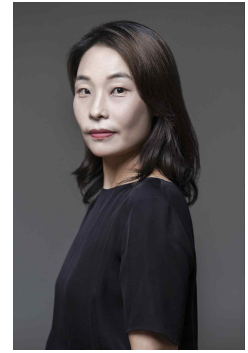
이야기수집가 : 배길숙

그림책을 읽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할매가 되는 것이 꿈인 그림책테라피스트.

'북꽃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이도, 어른도, 할매도, 할배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책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테라피스트이다.

문현주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서울
- 출생연도 : 1978년



“고창농악의 혼을 담은 소고꾼, 문현주 예술가 “

고창농악에 반해 이곳에 정착하여 공연과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소고의 매력을 통해 고창농악을 알리고, 전통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악의 본래 정신을 지키며 풍성한 전통을 이어가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교까지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고창농악이 좋아서 고창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농악보존회의 이수자로서 공연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고창에는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처음 고창에 오게 된 건 1999년에 농악 전수를 받으면서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오갔지만, 본격적으로 고창에 정착한 건 2003년 12월입니다. 결혼은 2008년에 했습니다.

Q 농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대학 시절에 풍물패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농악을 시작했습니다. 그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학교나 주변에서 직접 접할 기회는 없었지만,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Q 처음부터 소고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학교 다닐 때는 주로 팽과리를 쳤어요. 그런데 고창에 처음 내려왔을 때 제가 막내였거든요. 당시에는 이명훈 선생님이나 다른 어르신들이 팽과리와 장구를 맡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제가 소고를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팽과리를 배우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상쇠 역할을 했었지만,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소고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때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잘한다고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소고를 맡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이걸 해”라고 강요하신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Q 최근 하셨던 '사이닝 고창'이라는 공연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이 작품 안에 여러 신이 있는데,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신에서는 잡색 역할을 했고, 또 이상한 마을을 설정한 장면에서는 풍장굿을 여성 멤버들로만 구성한 신에서 팽과리를 쳤습니다. 풍장굿은 원래 논농사와 함께 남성들이 주로 해오던 전통이었지만, 이번에는 여성들만으로 구성해 극적인 요소를 더했죠.

각 신마다 설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있고 농악과 연기가 결합된 작품이었습니다. 농악은 여럿이 함께하지만, 개인 놀이 부분이나 독무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형태는 고창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다양한 무대에서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이 상쇠일 경우, 그 악기를 조명하는 무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Q 소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다른 지역 농악들은 주로 상모를 많이 사용해요. 상모와 고깔이 섞인 형태의 소고도 많고요. 그런데 고창 지역, 특히 영무장 지역에서는 상모 대신 고깔 소고를 사용합니다. 상모 대신 소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역적인 특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르신들 말씀이 예전에도 상모를 사서 해봤지만 잘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창에서는 계속 고깔 소고를 사용해 왔죠.

고창의 소고는 고유의 장단과 춤과 잘 어우러집니다. 상모는 돌리면서 빠른 장단을 따라야 하는데, 고창 농악의 특성과 맞지 않아서 상모 대신 고깔 소고로 고유의 흐름과 맛을 살려왔습니다. 이 지역의 가락에 맞는 춤과 장단이 소고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전통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는 것이죠. 고창농악에서는 소고와 장단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Q 고창에서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고창에는 청년 네트워크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하며 알게 된 건, 어릴 때 농악이나 사물놀이를 배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고창에 남아 있다는 거였어요. 이 친구들이 20~30대가 되어 농악단에서 활동하지만, 대개 농악단은 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소통이 어렵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모아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원 사업들은 기존 동아리나 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청년들을 새롭게 모아 구성하는 지원은 부족해요. 올해 추진하려 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농악을 이어가면 좋겠어요. 어르신들과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고창의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활력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외지로 나가는 젊은 세대가 많아 혼자 무언가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존회를 통해 지원받고 선생님들과 유대감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주해 온 젊은 세대도 함께 모이면 더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

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할 자원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주변에 이야기해보면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젊은 세대가 어떻게 지역 문화예술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Q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네요. 제가 기억하는 고창의 선생님들, 그리고 농악으로 크게 활동하신 분들은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셨죠. 예를 들어, 우도농악 명인이셨던 故 나금주 선생님은 프로 예술가로서 어린 시절부터 활동하고 교육해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배운 1세대 선생님들은 지역에서 평생 헌신하며 농악을 이어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셨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농악과 같은 전통을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농악이 이곳에서 본래의 정신과 맥락을 잃지 않고 다채롭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기억되는 예술가로 남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제 목표는 지역의 농악을 알리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술가, 소고춤꾼, 농악인으로서 고창농악이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고창에서 자라난 친구들 중에서도 농악을 전공해 다시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김은선 선생님이나 전새론 선생님 같은 후배들도 있고요. 또, 고창에서 농악을 배우던 친구들이 각기 다른 학교로 진학해 연희를 전공하고 외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고창에 뿌리내리고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작은 스텝들이 모여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재단뿐만 아니라, 농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받은 유산은 단지 장단이나 판재 같은 기술뿐만 아니라, 관객 문화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창에 처음 왔을 때, 경연대회나 모양성제에서 농악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곤 했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와서 앉아 구경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죠.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물론, 고창에서도 가끔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지역에서는 농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 관객 문화 자체가 하나의 전통이자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모두가 농악을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농악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요즘은 어디서든 공연하기가 쉽지 않지만, 고창은 여전히 농악을 이해하고 이어가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점에서 고창이 참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3.(화) 09:42

▶ 면담장소 : 고창농악전수관



이야기수집가 : 배길숙

그림책을 읽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할매가 되는 것이 꿈인 그림책테라피스트.

'북꽃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이도, 어른도, 할매도, 할배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책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테라피스트이다.

박성준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경북(포항)
- 출생연도 : 1987년



“고창 음악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하는 고창농악 이수자“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국악에 발을 들인 박성준 예술가. 고창농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7년에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고창농악보존회에서 공연 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고창농악 이수자입니다. 고창 지역에 거주한 지는 약 8년 정도 되었고, 이곳에서 음악 관련 공연, 교육, 체험 등을 기획하고 공연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어린 시절에는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농악을 접했을 때, 그게 너무 흥미로워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Q.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매료된 시기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대학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동아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무작정 소리가 들렸던 풍물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풍물패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를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국악인으로서의 데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데뷔에 대해 말하자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공연 활동을 처음 시작한 2012년을 데뷔로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고창농악보존회에서 배우던 학생이었어요. 당시 고창농악보존회장이셨던 이명훈 선생님께서 개인 발표회를 준비하셨고, 저도 그 일원으로 공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는 배우기만 하던 시절과는 달리, 공연 무대에 서게 된 상황이라 굉장히 떨리고 설렐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Q. 언제부터 고창군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나요?

저는 2017년도에 처음 고창군에 거주하기 시작했구요. 그때 바로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Q. 어떤 장르를 하고 계신가요?

큰 범주로 보면 국악이고요. 국악 안에서도 저희는 농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악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고창 지역에서 하는 농악이기 때문에 고창농악이고요. 고창농악은 전북 특별자치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Q. 고창군 그리고 고창문화관광재단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국악 관련 부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열리는 여러 국악 행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예술인과 예술 공간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Q. 본인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국악,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농악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악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이 국악이기에, 국악 공연 예술 활동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국악을 소재로 한 이런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고창군의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또 고창군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들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싶습니다.



Q.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나요?

저는 제가 하는 그런 예술 활동이 보시는 분들이 좀 즐거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후에 어떤 만족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어떠한가요?

저는 지금은 고창농악보존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창농악보존회 공연 팀장으로서 조금 더 고창농악보존회에 고창 음악을 잘 알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이 일단은 목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 개인도 좀 더 고창에서 국악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이 예술가 박성준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19.(금) 11:22

▶ 면담장소 : 고창농악전수관 (고창군성송면향산1길106)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박영진

- 분야 : 문학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66년



“책 읽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전하는 예술가“

책 읽는 공간을 통해 누구나 와서 쉬고, 문화를 통해 위로받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박영진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북 고창 공음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청보리밭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중학교 때 전주로 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창작과비평(창비)에서 문학 평론가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평론가로 계속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책을 좋아하다 보니 직장생활과 작은 사업을 병행하며 여러 일을 해왔습니다. 2005년 이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문학의 길이 내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문학평론가와 책풍 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소질이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저희 아버님은 김제, 어머님은 장흥 출신이십니다. 어머니께서 교육에 열정이 많으셔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여러 문예 행사에서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때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읽으며 문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평론가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에서 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학평론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시나 소설을 창작하기보다는 남의 작품을 읽고 분석하는 평론가가 저에게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Q. 처음에 책에 매료되었던 부분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까뮈의 이방인처럼 “너는 자유인이다”라는 강렬한 첫 문장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작가들의 첫 문장이 서사의 시작이 되는데, 특히 유명 작가들의 첫 문장은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걸 읽고 나서 제 나름대로 해설하고 평론하는 과정에서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아, 이게 나와 맞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책을 읽어오면서 나만의 해석을 더해 평론하고, 그걸 통해 강의도 다니면서 독자들과 작가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과거엔 비평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저는 비평보다는 평론을 통해 작가들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독자들과 작가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이 정말 큼니다.

Q. 몇 살에 데뷔하셨는지, 데뷔 작품과 데뷔 당시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대학생 때부터 평론을 쓰고 작은 컬럼도 발표하곤 했지만, 정식 등단은 조금 늦게 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창작과비평(창비)에서 등단을 했는데,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문학 작품을 통해 돌아보는 내용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인 창비에서 등단을 하게 된 건 정말 큰 영광이었죠. 특히 등단 당시 창비 본관에 걸렸던 대형 현수막과 함께 국무총리, 대통령 등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언제부터 고창군에서 활동하고, 거주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고창 공음면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할 때에도 고창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고창에서 교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은 뒤, 2012년에 고창에 작은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조정권 선생님의 시 '독락당'에 영감을 받아, 나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2년 동안 혼자 책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어 건물을 계속 증축했죠.

고창 주민들보다는 외지 작가들과 지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공간이 성장했고, 3년 전에는 회원제로 운영을 전환했습니다. 4~5년 전부터는 고창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인문학이 번지점프하다>라는 주제로, 2주에 한 번씩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책도 출간했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문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계속 프로그램도 확대해가며 지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Q.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8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으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책풍으로 소풍 가요"라는 기획을 진행했어요. 작가들, 음악가들, 화가들을 초청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재미있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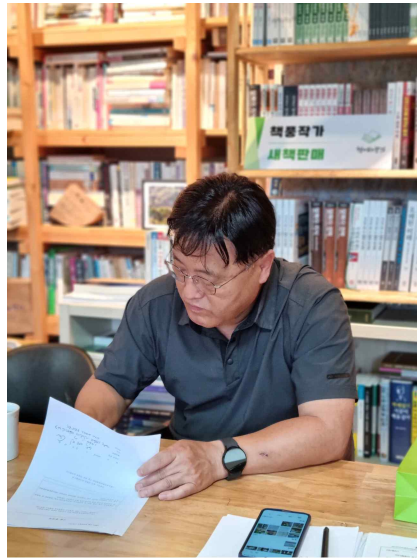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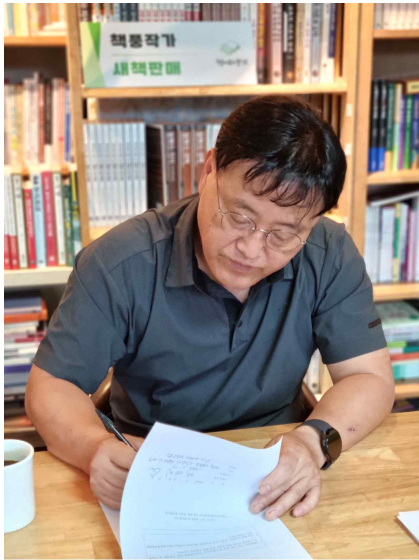
저에게는 이 지원금이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제 돈으로 은행 빚을 갚아가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800만 원이 마치 8천만 원처럼 느껴졌어요. 이정록 시인을 비롯해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 전만성 등 유명한 작가 4명을 초청하는 데 사실 2천만 원이 들었지만, 재단에서 800만 원 지원받아 큰 보탬이 됐습니다. 심사할 때 재단에서도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 800만 원을 8천만 원처럼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고창 주민들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Q. 본인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

많은 작가들이 고향을 떠나듯, 저에게도 고창을 떠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인정받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저도 그 과정을 겪었죠. 13년째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창에 있는 이 공간을 고창군이 지어줬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만 걸으면서, 지금은 많은 고창 주민들이 저의 활동을 알아봐 주시고, 이 공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이 공간을 통해 인문학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는 4만 권의 책이 있지만, 사실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쉬고, 놀고,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라고 말하죠.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하고, 종교인들은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치며, 여기서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작은 쉼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한 사람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프로그램에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 무모함이 오늘의 '책 읽는 풍경'을 만들었죠. 앞으로도 이곳을 통해 책과 인문학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처음 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인문학자입니다“라고 격려하는 것처럼요. 결국, '책이 있는 풍경'과 저는 고창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치유가 되는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고창의 치유 문화에 기여하는 그런 예술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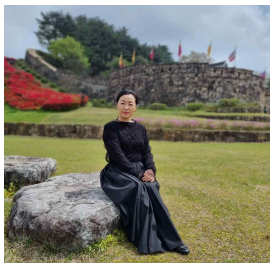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실 요즘은 무엇을 해도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죠. 그런데 었그제 강진으로 45명 문학기행을 갔는데, 단 3일 만에 45명이 딱 찼어요. 그중 80% 이상이 고창 사람들이었고, 회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며들고, 이곳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목표는 고창군민들이나, 누구라도 직업이나 배움의 깊이와 상관없이 문화를 통해 위로를 받고, 문화가 주는 힘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가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저도 그 말씀처럼, 이곳이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위로를 받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면담일시 : 2024. 7. 11.(목) 11:00

▶ 면담장소 : 책이 있는 풍경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송시준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전주)
- 출생지역 : 대전광역시
- 출생연도 : 1990년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구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전통예술인“

음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미래에도 음악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인상적인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입니다. 국악을 처음 접하게 된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장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청소년 시절에는 웃다리농악, 호남우도농악, 경기무속장단, 동해안별신굿 등 여러 장단을 익혔으며 이후 작곡 공부를 병행,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서 피아노와 가야금, 거문고 등 우리 전통악기 연주 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꾸준한 공부와 연구를 실천하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느끼셨나요?

제가 스스로 느끼진 못했지만,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동요를 하교 후에 집에서 피아노로 곧잘 연주했다고 부모님께서 늘 말씀 하시곤 했어요. 친구들이 동요 선율을 연주할 때 저는 화음을 연주하곤 했죠.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보면 시각, 촉각, 청각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유복한 유년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중 유독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감각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Q.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처음 매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음악이라 함은 ‘호흡’에 의해 존재한다는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숨’이라는 신체적 활동이 음악의 성격과 경계를 뚜렷하게 나타내기도 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호흡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호흡이 잘 발현된다면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목적을 달성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애착과 함께 공동체라는 유대감이 형성되죠. 저는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꼭 음악으로 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Q. 데뷔는 언제 하셨나요? 그때의 기분도 궁금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특히 작곡에 더욱 관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혼자서 노트에 작곡을 하던 대학시절에 한 친구가 속해있는 실내악단의 국악 창작곡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 해왔어요. 그 음악을 필두로 제 음악들이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 후로 진정한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 사랑하는 일을 찾았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Q. 데뷔작품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데뷔작품은 2013년 제7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대상을 타게 된 ‘함양양잠가’라는 곡이고요, 함양지방에서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치면서 부르던 노동요예요. 어릴 적 우연히 들었던 민요였는데 그때부터 ‘언젠가 저 민요를 내 색깔로 변화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 꿈이 실현된 게 2013년도 그때였죠.

Q. 고창군에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창이랑은 인연이 참 깊어요. 2011~2012년 그 정도 시기부터 국악예술단 고창과 많이 협업도 했고 많은 연주 활동도 같이 했어요. 이렇게 쪽 이어온 인연으로 2019년도에 정식 단원으로 발탁이 됐죠. 그 후 창작 창극, 음악극, 아동극, 국악가족뮤지컬, 상주단체 공연, 상설공연 등 매년 다회 공연의 음악감독으로 역임하였으며 수백 건의 창작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왔습니다.

Q. 지금은 주로 어떤 작품활동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장르는 무엇이라 칭하면 좋을까요?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예술자원 발굴 또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단체의 성장(각종 전국대회 수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역예술 사업 성과 등)을 동시에 이끌어 내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곡들로 하여 대중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국악을 쉽게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궁중음악인 정악을 재편곡해 가족 구성원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극을 작업했고, 판소리 적벽가나 심청가를 바탕으로 창작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Q.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작곡을 하다 보니까 먼 훗날 제가 없어도 나중에 음악은 남잖아요.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그 사람 이 썼던 곡이야’라고 제 이름이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먼 목표는 아직은 없고요. 내일의 음악이 오늘의 음악보다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15.(월) 13:00

▶ 면담장소 : 고창문화의전당 2층 연습실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송진숙

- 분야: 미술(공예, 도자기)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남 고흥
- 출생연도 : 1967년



“흙으로 엮은 치유의 미학, 송진숙 예술가“

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도예가입니다.

그녀는 도자기 제작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과 회원들의 변화 속에서 큰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고창의 도자기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열정을 쏟고 있는 진정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일반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그렇게 졸업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도자기를 처음 접하게 됐죠. 도자기를 배우면서 처음엔 그냥 결눈질로 배우고, 보고 따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 실력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저도 모르게 실력이 조금씩 나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 아이들도 가르쳐 보고, 강사로서 회원들도 가르치면서 도자기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도자기를 만들면서 저 자신도 행복하고, 회원들도 함께하면서 행복해하고, 치유받는 걸 보면서 더 보람을 느껴요. 지금은 열정적으로 도자기 활동에 몰두하고 있고, 남편이 도자기 명인이신데, 그분의 조교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기쁘고 행복합니다.

Q 어린 시절에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셨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저희 고향에 점토가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고급 점토가 나오지 않아서 직접 땅에서 점토를 채취해서 만들곤 했죠. 학교 수업에서도 점토로 많이 만들었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술에도 남다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도자기를 만드시면서 즐겁고 매료되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남편 작품의 조수로 터치나 마무리 작업을 많이 도와줬는데, 공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품을 시작했는데, 첫 작품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은상, 대상 등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더 생겼죠. 고창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공방 회원들도 오래 함께하다 보니, 지금은 미술 활동도 하고 미술협회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배우는 회원들 중 6명이 예술인으로 등록되었어요.

저는 제 작품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공방에 와서 흙을 만지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갱년기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와서 도자기를 만들며 치유되고,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면 정

말 행복해요. 예술에 감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저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Q 처음 만들었던 작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처음 작품을 만들 때는 서툴잖아요. 그런데도 그 첫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컸어요. 처음에는 그저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특별했죠. 이제는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그 첫 작품을 만들 때의 행복감은 잊을 수가 없어요. 도자기는 선, 색채, 균형미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제가 그런 멋진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몸에 배어 있던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실력을 가질 줄 몰랐는데, 어느새 작품을 10개, 20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느끼면서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Q 정말 아끼는 작품이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고흥 출신인데, 고흥에서 분청자기 공모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청자기로 작품을 출품했죠. 정말 열심히 만든 매병 작품이었는데,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어요. 그래도 그 작품은 지금도 마음에 들고, 개인전을 하게 되면 꼭 그 작품을 앞세우고 싶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작품입니다.

Q 언제부터 고창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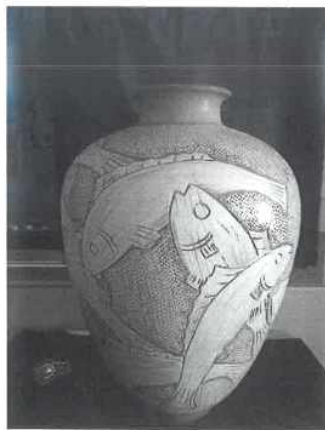
고창에서의 활동은 처음에는 남편 밑에서 배우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면서 시작했어요. 2019년 예술제부터는 제 작품도 출품하기 시작했습니다.

Q 주로 어떤 작품을 많이 만드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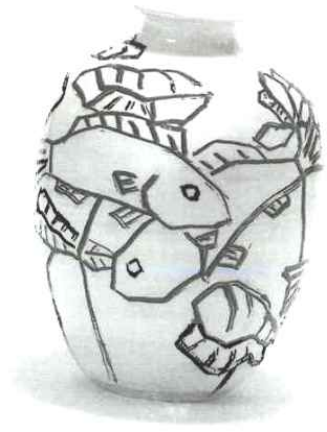
저는 전통 공예를 주로 하고 있어서, 청자나 백자 같은 전통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요. 주로 단지 작업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는 어떤 작품이든 만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비상(飛上)



분청자기인화어문 항아리 세로57x가로34



Q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은 단지에요. 백자에서는 달항아리 같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청자에는 당초 문양을 넣어서 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분청사기에는 물고기나 도장을 새겨 넣기도 해요.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지 작업이 가장 자신 있어요.

Q 고창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까요?

고창은 도자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역처럼 청자 축제나 도자기 박물관이 없어요. 강진에는 청자 축제가 있고, 부안에는 박물관이 있지만, 고창은 그런 게 없죠. 남편께서도 이 점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고창의 도자기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커요. 그래서 저희는 재능 기부로 도자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료비나 회비도 최소한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고창이 청자를 처음 만들어낸 고창이라는 걸, 청자를 구운 가마터가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창의 도자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Q 고창에 청자를 구운 가마터가 있나요?

네, 고창에는 가마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형 가마터도 있었어요. 흙과 나무 같은 재료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도자기를 만들다가, 재료가 고갈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죠. 땔나무를 멀리서 싣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마터를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쉬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나무가 자란 처음 가마터로 와서 매워진 가마터 위에 또 가마를 짓는 관계로 아파트 같은 가마터가 발굴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창에도 아파트형 가마가 발굴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마터를 발굴 후 다시 묻어버려 남편께서 항상 가슴 아파하세요. 그 가마의 도자기 역사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신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남편께서는 가마터나 도자기에 대해 매주 강의를 하시고,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고창에서 도자기를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흙을 만지며 치유를 경험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3분, 5분도 못 버티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죠. 치유가 필요한 회원 중 한 분은 우울증이 심했는데, 도자기를 만지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흙을 만지며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참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도자기를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고 싶어요. 결과물보다는 흙을 만지는 과정에서 얻는 치유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은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대상도 받고, 작가로도 초대받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작품을 만들고, 공모전에도 출품하면서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저도 회원들에게 많이 배우는데, 그들과 함께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공방은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공방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알려지고, 회원들이 건강하게 많은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지막 목표는 건강을 잘 챙기고, 고창의 도자기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강진이나 부안처럼 고창도 도자기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들이 도자기를 해볼까 물어봤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면 도자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배고프기도 했고,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굴곡이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재능 기부를 많이 해서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 길을 선택하려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하길 바랐어요. 도자기는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그 길을 물려주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리 고창이 정말 도자기로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이 열정을 쏟아 가르치고 있는 이 도자기 문화가 고창에서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활성화되어서, 도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흙을 만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치유되는 그런 고창이 되었으면 해요. 앞으로 남은 삶에서도 저희 공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1.(일) 13:00

▶ 면담장소 : 동곡요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여현수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인천광역시
- 출생연도 : 1982년



“전통을 지키며, 깃발과 소고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고창의 자칭 광대”

농악과 탈춤뿐만 아니라 깃발과 소고까지 직접 제작하는 여현수 예술가.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놀이와 소고 제작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악과 탈춤을 하는 광대, 흔히 굿쟁이라고도 하죠. 광대로서 소일거리로 공연에 쓰이는 소품, 예를 들면 소고를 만들고, 아내는 의상이나 깃발, 방울, 기반이 같은 기놀이에 쓰이는 물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드는 것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재주를 살려서 농악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소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Q. 농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고창군으로 오게 된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초중고는 인천에서 다녔고, 대학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호원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원래 대학은 안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권유로 대학을 가게 됐고, 어차피 간 김에 '뭐라도 제대로 하자!' 싶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죠. 그때 풍물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운이 좋게도 그 동아리가 사물놀이와 탈춤을 배우는 곳이었고, 거기서 강령 탈춤과 사물놀이를 접하게 됐습니다. 2002년에 진안 중평굿을 만나면서 이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농악을 업으로 삼게 되었고, 여러 선생님과 학생들, 좋은 공연을 경험하며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고창에는 2004년에 소고를 배우러 처음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창과 인연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5년인가 2016년쯤에 고창에서 '야간 한옥 상설 공연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창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전에 고창농악보존회와 잡색 탈 작업을 하면서도 고창을 자주 오갔고, 당시 아내와 만날 때여서 고창을 오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전주에서 1~2년 정도 살다가, 결국 2019년에 고창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전통 공연에 관한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느끼셨나요?

어렸을 때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전통 공연은커녕 현대 공연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만 음악을 좋아해서 많이 들긴 했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탈춤과 농악을 접하게 됐고,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연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Q. 현재 하고 계시는 예술 활동에 매료되었던 첫 순간이 기억나실까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첫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농악이나 탈춤을 하면서 공연의 희열을 느꼈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Q. 좋은 자극이 된 공연을 한 경험이 있나요?

최근에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요즘엔 깃발 공연을 자주 하는데, 큰 깃발을 들고 무대에 서면 굉장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자리에서 공연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심지어 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공연 무대뿐 아니라 집회 장소나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바다에서도 공연했고요. 그런 자리에 서서 제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더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공연을 그저 화려한 연희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곳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감동을 주는 일이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Q. 그렇다면 데뷔는 언제 하셨나요? 그때의 기억이 나시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연판에 발을 들인 건 아마 21살, 22살쯤이었을 거예요. 대학 동아리 공연 말고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공연했을 때가 제 데뷔라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들을 도와 뭔가 보조 역할을 하곤 했었죠. 처음에는 명확한 '데뷔 무대'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늘 식전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 데뷔다!'라고 할 만큼 명확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Q. 사람들 앞에서 처음 공연을 했을 때 기억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원래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했죠. 그런데 첫 공연 때 장구를 쳤어요. 그때 부모님도 오셨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장구채를 떨어뜨려서 아쉬웠지만,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몇 년간 노력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설레고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Q. 요즘은 주로 어떤 작품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탈춤과 농악을 계속하고 있지만, 기놀이는 좀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2004년에 처음 기를 들기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제대로 배워서 그때부터 기 공연을 많이 하게 됐죠. 당시엔 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았고 많이 보존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걸 들고 밖으로 나와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요즘은 탈춤이나 농악보다 기놀이가 저희 공연의 메인이 된 것 같아요.

Q.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욕심이 많지 않아요. 만약 욕심이 있었다면 전주나 서울 같은 곳에서 전수자나 이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부터 그런 데에는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걸 다 정리하고 나와서 활동하게 됐죠. 저는 그냥 ‘고창에서 깃발을 돌리고 소고를 만들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만 기억이 되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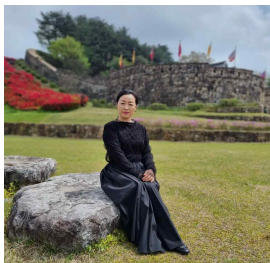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기놀이를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명 정도가 저한테 배웠는데,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전국 곳곳에 깃발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큰 행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깃발을 들고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소고 제작이에요. 무용이나 농악에서 쓰기 좋은 소고를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예요. 아직 100%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70점, 80점 정도랄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고를 개선하고 평생 제작하면서 더 좋은 소고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당연한 목표이고요, 일적으로는 이게 제 큰 목표입니다.

▶ 면담일시 : 2024. 7. 15.(월) 15:00

▶ 면담장소 : 자택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옥세진

- 분야 : 미술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인천광역시
- 출생연도 : 1981년



“공감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예술 강사“

일상 속 아름다움이 곧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옥세진 예술가.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1년 7월 20일에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자기소개를 할 때 MBTI 성격 유형으로 많이 소개하잖아요. 저는 ENTJ, 즉 통솔자 지도자형입니다. 제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전을 갖고 타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7개 시군을 대표하는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 전문 지도교사 양성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Q. 인천에서 태어나셨는데 고창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되었나요?

친한 친구의 소개로 다정다감한 고창인 남편을 만나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2006년 결혼과 동시에 고창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Q. 평생교육강사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나요?

평생교육은 제가 2006년도에 고창에 내려오면서 홈공방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며 만드는 과정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고창에서의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평생교육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 평생교육 강사의 매력을 느끼며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오며 더 나은 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평생교육강사로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나요?

다문화교육과 교육학,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환경교육과 치매 예방을 지도하고, 미술 실기교사로서 캘리그래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캐와 부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이죠.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되어있다고 느끼셨나요?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꼬지락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술 심리 테스트를 외우고 다니며 주변인들과 많이 공유했고, 다양한 공예를 배우거나 독학해서 친구들과 가족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공작활동에 대해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더 좋았던 건, 예술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매일 꽃을 사다가 집안 분위기를 전환 시킨다던가 인테리어를 계절마다 다양하게 바꿔봄으로써 늘 새로운 자극으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냅킨아트를 배워서 오래된 싱크대나 티테이블을 변화시키며 더욱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때가 제가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고 소질이 있다는 걸 가장 크게 발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Q. 몇 살에 데뷔하셨나요? 데뷔한 순간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저는 데뷔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저는 평생교육 강의를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작품 출품이나 수상 같은 걸 따지면 2017년이 데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2007년도부터 소규모 예술 행사에서 전시를 많이 했죠. 본격적으로 대회에 나간 건 2017년도 열린 국제대회 제21회 아시아 미술대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데이지 꽃을 반제품에 그려서 출품했는데, 첫 출품임에도 불구하고 큰 대회에서 입선을 받았어요. 이 작품은 데이지 꽃말에서 영감을 받았고, ‘숨겨진 사랑’, ‘겸손한 아름다움’, ‘평화’, ‘희망’이라는 의미가 어머니의 사랑과 연결되어서 그 주제로 정했죠. 그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각나요. 저 혼자 스스로 뭔가를 딱! 작품을 만들어서 큰 대회에 나가 성과를 얻었다는 것 자체에 성취감과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대회가 아니라 국제 대회다 보니 그냥 출품하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뒀었는데, 입선까지 하게 되어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저에게 ‘어머니’를 주제로 꽃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Q. 지금은 주로 어떤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주로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작품 활동이라고 하면, 캘리그리퍼로서의 활동이 많아요. 꾸준히 캘리그래피 강의를 하면서 혼자서도 글씨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명언이나 시집, 일상 속 생활 문구 등을 참고해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죠.

캘리그래피는 서예풍의 감성 있는 개성 있는 글씨잖아요. 예전에는 조금 상업적인 작품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수상이나 주문 제작의 형태보다는 자기계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양한 주제와 변형으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면서 날마다 새롭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캘리그라퍼로서 처음 캘리그래피의 매력을 느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학생 때 교양과목으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는 캘리그래피가 굉장히 생소하던 때라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인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나다. 그런데 서예와 비교했을 때 캘리그래피는 조금 더 자유롭고 개성이 있으며 글자표현이 더 아름다웠어요. 거기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특히 광고나 드라마 같은 상업적인 제품을 보면서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서예도 아니고 일반 글씨도 아닌, 무언가 특별한 것 같았어요. 캘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동기부여가 되어 관심을 갖고 배우며 더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캘리그래피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친숙해졌잖아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캘리그래피로 강의도 하고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 교육을 하면서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Q. 벌써 캘리그래피를 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과 지금 캘리그래피를 대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나요?

처음에는 캘리그래피가 예술과 상업이 결합한 형태라 상업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했어요. 작품 제작 의

되나 주문 제작, 강의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팔리지 않아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글이든 그림이든 어떤 형태로도 나 스스로에게 힐링이 되는 도구로서 글씨를 쓰거나 그리고 있습니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나만의 도구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강의를 하다보면 본래 활동을 할 때 행복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마치 자본주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전문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그분들을 취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캘리그래피는 보여지는 큰 결과물은 없지만 저의 안식처이자 힐링의 공간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글씨로 감정을 풀어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캘리를 대하는 나는 온전한 그냥 낱것의 나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허전한 나의 마음의 빈 공간 어딘가를 채워주는 캘리입니다. 캘리로 쓰여지는 수 많은 글들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Q. 본인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공감과 소통하는 예술강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공감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예술 강사로서 학습자들에게 일상 속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매 순간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주고 싶습니다. 예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이 작은 변화와 움직임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미술을 접할 때 “나는 소질이 없어”, “미술은 못해” 라고 종종 말씀하시는데, 잘하지 않아도 그 과정을 즐기면 된다고 늘 말하고 싶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작품이 아니라더라도 과정에서 피어는 나 예술적 교감, 친밀감, 아름다움, 희열 그래서 크게 변화하지 않아도 발전하지 않아도 옥세진이라는 예술 강사는 항상 즐겁게 작품을 대하고 공감과 소통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의 작은 행위가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식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평생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인생을 살면서 내가 끝까지 좋아하고 잘하는 일, 교집합을 찾아 지금처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4.(수) 17:25

▶ 면담장소 : 담소예술교육문화원(고창읍 모양성로96)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유선이

- 분야 : 미술(공예, 가죽, 냅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충남(논산)
- 출생연도 : 1971년



“가죽 공예로 일상의 틀을 깨고, 성실과 신뢰로 기억되고 싶은 예술가”

고창군에서 활동하며 가죽 공예의 매력을 전하는 예술가 유선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교육과 소외된 마을들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함과 신뢰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따뜻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언제부터 고창군에서 활동하게 되었나요?

저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고, 1995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고창군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거의 반은 고창 사람이 된 셈이죠.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손재주가 정말 좋으셨어요. 음식을 잘하셨고, 뜨개질 같은 손으로 하는 작업도 감각적으로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옷도 다 손수 뜨개질로 만들어 주셨고, 색깔도 뛰어나게 신경 써서 입히셨죠. 아버지는 군인이셔서 시골에 살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고무신을 신을 때 저는 부츠를 신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의상실에서 맞춰준 브라우저를 입고, 머리도 매일 아침에 어머니가 손수 묶어 주셨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세팅해 놓으신 옷을 그대로 입고 학교에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는 어머니의 주도하에 로봇처럼 행동하는 게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받은 감각적인 영향은 지금도 이어진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학창시절부터 손재주가 좋았나요?

학창 시절에는 딱히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 성격이 정적이라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동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혼자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혼자 하는 일을 좋아했으니까요.

Q. ‘이 길을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이 있나요?

우연히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들 집에 다니며 집을 꾸며주곤 했거든요. 전통적인 향아리나 작두 물 흐르는 장치 같은 걸 좋아했어요. 예전엔 지금처럼 자동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장치가 없어서, 제가 어항집에서 직접 재료를 구해 와서 전기로 연결해 물이 흐르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앞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미고 닭도 넣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예쁘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배란다 정원도 꾸며주고, 논에서 가져온 문짝에 락카를 뿌려 가구도 만들고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토털 공예를 배우게 되었고, 가죽공예에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가죽을 통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도안하고, 오리고, 바느질하며 생활 속의 소품들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공방까지 차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Q. 지금은 주로 어떤 예술활동을 하시나요?

지금은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쟁이문화예술원 대표인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특성화 사업을 몇 년째 진행 중이에요.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고창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가요. 고창읍은 잘 되어 있지만, 고창에서 조금 떨어진 공음 같은 곳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마을들을 찾아가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역 특성화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서, 그분들과 함께 즐겁게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Q. 언제 데뷔하셨나요? 당시 기억을 들려주세요.

30대 중반부터 고창에서 한지공예 같은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아해서 조금씩 배우다가, 제 나이 3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점차 예술 활동에 발을 들이게 되었죠.

Q. 공모전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공모전은 제가 좀 늦게 냈어요. 2010년에 전주에서 열린 공예대전에 가죽 공예로 참여했는데, 그때 동상과 특선을 받았어요. 원래는 예술가로서의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때서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저는 3~4년 동안 준비만 하다가 결국 추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작가로서 발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Q. 지금 하시는 토털 공예는 어떤 작품 위주로 작업을 하시나요?

지금은 작품보다는 지도자 양성과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런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건 냅킨 공예와 가죽 공예예요. 특히 가죽 공예는 저와 한 몸처럼 느껴질 만큼 애정이 깊어요. 고창에서 제 이름을 떠올리면 가죽 공예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죠.



Q. 가죽 공예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가죽의 매력은 생활 소품에 있어요.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탁구공을 넣는 가방 같은 걸 작업 해봤어요. 이번 전시도 그런 테마를 잡아서 진행하려고 해요. 가죽 공예 하면 보통 가방이나 지갑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틀을 깨고, 탁구 라켓 케이스나 탁구공 주머니 같은 실용적인 소품들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접근을 해보고 있어요.

Q.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저 성실하고 믿음직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물론 작품을 잘 만들어서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에게는 성실과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저를 '유선이 참 성실하고 믿음 가는 예술가'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2025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성장하는 걸 느껴요. 다른 예술가들의 전시를 보면서 제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디를 가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계속 작품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물론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좋아요. 개인전을 잘 마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그동안 함께해온 선생님들, 제자들과 함께 회원전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 개인전을 잘 준비하는 게 목표예요.

▶ 면담일시 : 2024. 7. 8.(월) 11:00

▶ 면담장소 : 작업실 (현대아파트상가 1층)



이야기수집가 : 배길숙

그림책을 읽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할매가 되는 것이 꿈인 그림책테라피스트. '북꽃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이도, 어른도, 할매도, 할배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책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테라피스트이다.

유찬이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순창 등)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83년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가며, 고창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예술가”

고창에서 태어나고 자란 판소리 예술가 유찬이.
신재효 판소리 공원에서 전통을 잇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판소리 교육을 통해
고창의 국악 인재를 양성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창 출신으로 판소리를 전공했고, 현재 신재효 판소리 공원에서 관리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예술 감각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발달되었다라는 걸 느끼셨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고창에서 자랐는데, 목소리가 좀 커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리국악당이 개관 당시 처음으로 판소리반, 가야금반 같은 강좌가 신설됐어요. 그때 부모님이 제 목소리가 크다고 판소리를 한번 배워보라고 권유하셨고, 그때부터 동리국악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술적 감각보다는 큰 목소리 덕분에 판소리를 전공하게 되었죠. 목소리가 컸던 것도 하나의 감각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Q. 지금의 예술 활동에서 매료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졸업 후 교육 현장에서 1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요, 판소리 눈대목, 민요 등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운 걸 발표하는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꼈어요. 그 준비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발표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성과였고, 제 직업의 매력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Q. 혹시 그렇게 하셨을 때 진짜 이젠 내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느끼셨을 때는 언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업 후에는 판소리와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한시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4년 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스승님도 바뀌고,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한 공부는 다시 시작한 지 4년 정도 되었어요. 지금이 오히려 진정한 첫 순간인 것 같아요. 굳이 첫 순간을 꼽자면, 어렸을 때 스승님의 공연을 보면서였죠. 공연 순간 순간들이 아직도 너무나 기억에 깊게 남아요. 저도 꼭 스승님처럼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매료된 순간이었어요.

Q. 그러면, 몇 살 때 데뷔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판소리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부터 동리국악당을 다녔고, 4학년 때부터 개인 레슨도 받고 합숙도 갔죠. 그런데 진정한 데뷔는 대학 졸업 후, 2005년에 제가 동리국악단에서 강사를 하면서였어요. 강사를 하며 완창 발표회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보니 예민해지고,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죠. 완창 발표회를 마치고 나니, 제 소리 실력이 많이 늘었고, 하나의 숙제를 끝냈다는 성취감에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부모님께 인사 드리면서 울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지금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완창 발표회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했기에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26살이었는데, 지금은 42살이라,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도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Q. 지금 주로 하시는 작품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판소리 공원에서 근무하면서,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 안의 비조채선이라는 판소리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각종 국악 공연을 하고 있고, 진채선 선양회 단체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죠. 1년에 한 번 공모사업이 있으면 참여해서 작년과 올해 운 좋게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곡을 받아서 초연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7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주 1회 가르치고 있고, 어른들도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어요.

Q. 어떤 예술가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만 세상이 그럴 수는 없죠. 제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가르칠 때 괜찮은 선생님, 공연활동에서는 괜찮은 공연자라는 정도로 기억에 남으면 좋겠어요.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저는 이 공원이 더 활성화되어 신재효 판소리 공원에서 국악 프로그램과 공연이 더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목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고창이라는 판소리 성지에서 많은 전공자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6.(금) 14:00

▶ 면담장소 : 신재효 판소리공원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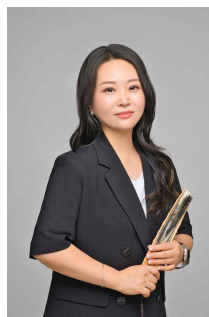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유혜은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서울
- 출생지역 : 경기도 성남
- 출생연도 : 1975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소리꾼”

광주에서 시작된 판소리 인생을 고창에서 꽃피운 소리꾼, 유혜은
전통 판소리와 현대 창작을 넘나들며 무대에서의 희열을 만끽하는 예술가.
어린이 판소리 교육에도 열정을 쏟으며, 고창의 예술적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남에서 태어났고, 13살 때 광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4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광주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녔고,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광주시립창극단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고창 사람을 만나 고창으로 오게 됐고, 지금도 여기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Q 어린 시절에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네, 어릴 때부터 음악이나 미술 쪽에서 소질이나 끼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 엄마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이 길로 가게끔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Q 판소리를 하면서 예술적으로 매료되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무대 위에 있을 때예요. 무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희열, 그게 정말 매력적이죠. 무대에 서 본 사람만이 아는 그 느낌이 있어요.

Q 처음 무대에 데뷔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아마 창극단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작은 공연들이나 무대는 많이 경험했지만, 본격적으로 “데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광주시립창극단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20대 중반, 25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큰 작품이나 대작을 했던 것도 그때였죠. 광주 시립창극단에서 임방울 선생님의 *쑥대머리*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때 성창순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인간문화재이셨던 성창순 단장님이 계실 때 올렸던 작품이에요. 그 작품으로 미국의 세 도시를 순회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뉴욕, 시카고에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그때 여자 주인공 ‘산호’의 어렸을 때 역할을 맡았었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시다.

Q 첫 무대에 섰던 기분은 어떠셨어요?

큰 무대라 그런지 긴장도 많이 됐지만, 설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 아래서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을 때 그 희열, 정말 잊을 수 없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Q 고창에 언제부터 거주하셨을까요? 거주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아마 2010년이나 2011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고창에 왔을 때, 첫 아이가 3살, 4살쯤이었어요. 2010년쯤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고창에서 설 수 있는 무대가 거의 없었어요. 2012년에 전남도립국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화순으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 계약이 끝나고 2013년에 여기 전수관에서 판소리 강사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학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신재효 선생님이 계셨던 판소리의 고장이라, 저와도 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창에 시집오고 나서 판소리의 대가가 계셨던 이곳에서 활동하게 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그 이후로도 12년 넘게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창도 많이 발전해서 예술 활동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에서도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고창에 문화예술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새싹들이 자라나야 고창이 판소리의 성지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이곳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판소리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걸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가 필요해요. 어른들을 위한 전시관이나 문화원 같은 시설들은 충분해요. 소규모로 그룹별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야 판소리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원이나 전주에 판소리꾼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정말 소리꾼으로 성장하려면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거든요. 단체 수업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대 1로 짧게라도 집중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전통 판소리를 지키면서도, 전통만 고집하고 싶진 않아요. 신곡에도 참여하면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연기나 창극도 좋아하고, 신곡 같은 것도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면서 활동하고 싶어요. 팔방미인처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전통만 할 거야’ 이렇게 한정 짓지 않고, 다 수용하면서도 전통과 접목된 방식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목표라... 이루고 싶은 게 많지만, 이게 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 자취를 남기고 싶어요. 제가 배운 걸 그대로 답아두고 싶어요. 제일 처음 배운 바탕소리인 동초제 심청가는 방성춘 선생님께 송순섭 선생님께, 송순섭 선생님께 적벽가, 수궁가, 흥보가를 다 배웠고, 지금은 춘향가 한바탕을 남겨두고 있어요. 춘향가는 고창의 소리인 만정체 춘향가를 안숙선 선생님께 사사 받고 있습니다. 소리꾼이면 다섯 바탕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로 공부하러 다니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김소희 선

생님의 만정제 춘향가를 배우고 답아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꿈이 있다면 제가 배운 소리를 음반으로 남기는 거예요. 제가 최고의 경지에 오른 소리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음반을 남기고 싶어요. 유명한 소리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 소리 꽤 괜찮아”라고 해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저는 전수관에서 꿈나무들을 키우고 싶어요. 10년 넘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하진 못해도 소리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소리를 계속 전수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싶어요. 전수관과의 인연이 허락하는 한, 제가 힘닿는 데까지 계속 소리를 전수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처음에는 신재효 선생님에 대해 잘 몰랐는데, 고창에 와서 보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살다 보니 “내가 이런 판소리 대가가 있는 고창에 시집을 왔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신재효 선생님의 묘소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숲이 우거져 방치된 느낌이었거든요. 고창군에서 신재효 선생님의 묘소를 더 잘 관리하고, 그곳을 명소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가터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지만, 묘소는 그렇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또한, 공연 활동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판소리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해요. 특히 경제적 이유로 소리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1대1 수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판소리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고창은 판소리 성지니까, 이런 꿈나무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창극단이 국공립으로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고창에서 예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렇게 되면 고창의 판소리를 알릴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에 올라 고창이 브랜드화된 공연 예술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창극단이 국공립화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사들도 보강해서 정규직화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고창이 판소리의 진정한 성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면담일자: 2024. 7. 23.(화) 14:30

▶ 면담장소: 동리국악당 전수관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이명철

- 분야 : 문학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황해북도(수안)
- 출생연도 : 1943년



문학으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수필 교육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전하고 싶은 예술가

고창에서 수필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가 이명철.

본인의 창작뿐만 아니라 수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문학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향과도 같은 고창에서 문학 활동을 하는 이명철입니다.

Q. 고창군에서 언제부터 활동하게 되었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1943년 9월 26일에 황해도 수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부모님 고향은 정읍인데, 아버지께서 보국대로 징용될 상황을 피하려고 황해도 수안으로 가서서 광산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죠.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큰아버지께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죽었다고 해서 큰아버지가 실망하셨죠. 하지만 큰아버지가 흠이불을 걷어내고 저를 들어 올리며 등을 때리시니 갑자기 제가 울더랍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났고, 큰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누나와 정읍으로 돌아왔어요.

6살 때, 정읍 동국민학교에 입학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형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전쟁이 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로 군대에 가게 되었죠.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가족은 피난을 떠났는데, 산으로 가지 못하고 들로 나가 김제 금산면 원평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이후 중학교도 다녔죠. 고등학교는 서울로 올라갔지만, 대학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대학 진학이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제가 25살 때, 그러니까 1968년에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고창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쪽 고창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은 없지만,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셈이죠. 아니, 이제는 그냥 고창을 고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갑수 선생님이라는 한국학자가 계셨는데, 제가 경찰 시절에 그분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고창에 온 지 40년이 넘었고, 아이들도 여기서 자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했는데, 고향을 어디라고 해야 합니까?” 그때 한 선생님이 두 말 없이 말씀하시더군요. “40년이 넘었으면 고향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 지금은 어디 가서나 고창이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Q. 고창문화원에서 수필 교육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셨던 정아열 선생님이 시인이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두서 없이 말씀하시더군요. “너 글 하나 써봐.” 그래서 제가 “뭔 글을요?” 했더니, “너 큰아버지 돌아가셨다며. 그에 대해 한번 써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형님이 군대 갔다가 큰집으로 양자로 갔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나는 한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어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초상을 치르고 난 후 그 일을 한번 써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썼고, 선생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그 글이 전북 신문에 실렸어요. 대회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써보라 해서 쓴 건데 말이죠. 그 당시 우리 집엔 전화도 없었는데, 신문에 글이 나가니 참 소문이 났어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편지도 오고, 인기가 꽤 대단했죠.



Q. 데뷔는 언제 하셨나요? 그때의 기분과 데뷔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저는 데뷔가 좀 늦었어요. 경찰로 일하면서도 경찰 고시라는 매달 나오는 잡지에 원고 청탁을 받아 글을 쓰곤 했죠. 정식으로 등단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경찰 일도 바쁘고, 글 쓸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일기를 써왔어요. 그러다 고창문학에 들어가서 지구 문학으로 등단 신청을 했고, 서울에 있는 지구 문학에 시로 등단하게 되었죠.
 데뷔작은 세 가지가 기억나는데, 하나는 제가 공음 파출소장을 할 때 쓴 <파출소의 텃밭>이라는 글이에요. 또 하나는 <벚꽃 아래서>라는 작품인데, 파출소 뒤에 큰 벚꽃나무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한 작품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데뷔할 때의 기분은 담담했어요.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등단 흐름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파출소의 텃밭>은 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의 모습을 그려냈던 것 같아요. 심사평에서도 그런 사람이 파출소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될까 기대가 간다고 하더군요.

Q. 주로 어떤 작품 활동을 지금 하시고 또 어떤 장르라고 칭해야 할까요?
 문학입니다. 지금은 주로 수필을 쓰고 있죠. 본의 아니게 문학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이제는 놓을 수가 없잖아요. 등단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려 해도 여러 출판사에서 원고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 싶었죠. 문학을 하다 보니 책이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료로 얻는 건 희박해요. 요즘은 5~6만 원 정도 주거나 그냥 책으로 보내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원고료를 못 준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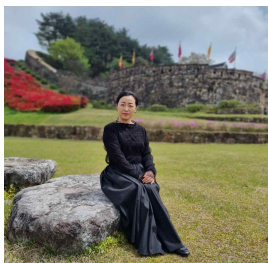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라고 할 건 없지만, 건강하게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싶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수필도 끝까지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면담일시 : 2024. 7. 8.(월) 13:30

▶ 면담장소 : 고창문화원 2층 소강의실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이명훈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68년



“고창농악의 전통을 지키며,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농악의 공동체신명을 전하고 싶은 예술가“

오랜 시간 농악의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가 이명훈.
농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 이상 고창에서 고창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농악 보존회에서 고창농악 이수자이면서 상쇠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창농악전수관장, 고창농악보존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고창농악 교육과 공연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無名
衆位之樂을
꿈꾸다

PROGRAM
국사립설·영상
설장고
고창국거리춤
고창소고춤
한량무
판굿
부포놀이

이명훈 개인발표회
Program Book X Photo Essay



Q. 농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농악을 처음 접한 건 1988년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의 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고창농악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전국의 농악을 공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고창에도 농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창은 우도농악의 중심지인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른들이 하는 농악을 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고창에 농악 하는 어르신들이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처음으로 고창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창농악을 이어오게 되었죠.

당시에는 마냥 장구라는 악기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동아리 자체가 탈춤, 민요, 풍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통예술을 하는 곳이었고, 그때는 사회적인 참여도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시대적인 참여활동도 많이 하였으며, 이론적으로나 실기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했어요. 대학과 노동현장에서 공연도 하고 작품도 만들어야 했고요. 사실 처음 장구에 관심을 가진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창여고에 농악대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대학교 가면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대학에 가니 딱 그 동아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Q. 농악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드셨나요?

그때가 기억나네요. 서울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단체 활동을 할 때는 사실 전통에 대해 잘 몰랐어요. 당시 전통 농악이 지역에 많이 남아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선배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수 받기도 하고, 고창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고창문화원에 연락을 해봤죠. 그때 이기화 원장님께서 황규연 선생님을 소개해주셨고, 1991년 7월에 선생님 댁을 찾아가 일주일간 처음 장구를 배웠어요. 정말 놀랐던 건 선생님이 70세셨는데도 장구를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 고창에서 공연을 해야 하니 내려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고창농악을 하는 60~70대 어르신들이 30~40분 계셨어요. 다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완전 반해버렸죠. 저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작 놀랐어요. 그 장면이 정말 놀라웠고, 잊을 수 없었어요.

Q. 농악에서 어떤 악기를 맡고 계신가요? 더불어 농악의 매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황규연 선생님을 따라 10여 년간 장구를 쳤지만, 2001년에 황규연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상쇠로서 쟁과리를 맡아서 연주하고 있어요. 농악의 매력은 특정 악기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모든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야 농악이 완성되기 때문에 각 악기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죠. 농악은 악기를 메고 함께 뛰면서 연주하는데, 그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큰 매력이 생겨요.

장구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악기지만, 설장구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아름답고 눈을 사로잡죠. 쟁과리는 농악의 판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해요. 연주자들을 조율하면서 판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데서 오는 재미와 보람이 큼니다. 고창은 특히 '고깔 소고춤'으로 유명한데, 그만큼 고깔소고춤을 잘 추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 춤을 살리기 위해선

쟁과리, 장구, 징 같은 반주 악기들이 중요해요. 반주가 잘 받쳐줘야 춤이 빛나고 멋있는 춤이 되거든요. 농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전통예술이에요.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타악기가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타악기를 메고 연주하면서 동시에 춤을 추는 건 우리나라 농악이 유일하다고 해요. 상모를 돌리며 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도 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느끼게 되죠.



꽃장구 쳐 주시던 날, 선생님의 고향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2000년 황규연선생님 댁)

Q. 언제 데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시의 기억을 들려주세요.

저는 1991년에 고창농악을 시작했는데, 데뷔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1992년 정월 대보름 때였습니다. 그때 고창군 상하면 장호마을에서 할아버지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 종일 보름굿을 쳤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마을에서 장구를 메고 고깔을 쓰고 농악복을 입고 굿을 쳤는데, 본격적으로 마을굿 무대에 섰던 순간이자, 데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어르신들에게 받은 굿의 힘이 지금까지 활동하게 하는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Q. 농악은 체력이 좋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나이가 들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체력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예전에 70대, 80대까지 하셨던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농사도 짓고, 평생 농악이 좋아서 하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내공이 쌓여서 그 힘으로 끝까지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Q. 고창 농악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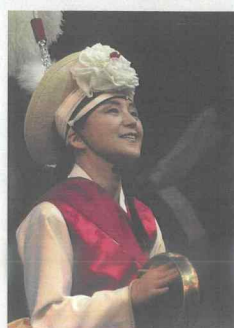
고창농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농악은 우리나라를 크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때도 경기, 충청 웃다리농악, 강원도 농악, 영남 농악, 호남 우도농악, 호남 좌도농악 이렇게 구분했죠. 호남 지역은 농악이 가장 발달하여 우도와 좌도로 나뉘는데, 고창은 우도농악에 속해요. 우도농악은 해안 평야지대에서 발달했는데, 이 지역이 곡창지대로 농사와 관련이 깊은 농악이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고창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 농악은 영무장 농악권에 속해요. 고창, 영광, 나주, 함평, 장성 등지의 농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죠. 그래서 고창농악은 우도농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무장권 지역 특유의 가락과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행형태도 문굿, 풍장굿, 매굿, 도둑잡이굿, 판굿등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농악은 정월 대보름을 시작으로 모내기철, 김매기철, 추수철, 그리고 마을의 경사나 슬픈 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연행돼요. 정월대보름에는 당산굿을 치고, 샘굿, 매굿등을 치며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의 액운을 몰아내고 복을 빌죠. 농사철에는 공동노동의 힘들을 농악과 함께 했구요, 풍장굿을 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두레 축제를 벌이기도 했어요. 고창농악보존회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고창군에는 14개의 농악단이 있고, 전국의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고창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해 농악을 배우러 옵니다. 농악은 무형유산으로써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전통예술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2020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무명무위지락
無名無位之樂을 꿈꾸다
이명훈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주문 대공연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호 고창농악 이수자



본국의 굿을 칠 때 장구를 치는 것은 보습에 이롭다. (1996년 낙산면 장사마을)

Q. 지금까지 공연하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고창에서 문굿, 풍장굿, 도둑잡이굿, 매굿 등 기억에 남는 공연이 많지만, 가장 고생하고 의미 있었던 공연은 2001년 전북도민체전 공연이에요.

그때 고창에 공설운동장이 지어졌고,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고창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죠. 당시 이호중 군수님께서 500명의 농악인들을 꾸려서 공연을 하라고 하셨는데, 당시에 농악인 500명을 꾸린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었어요.

원래 고창에는 자생적으로 활동해 오던 읍·면 농악단이 6개 팀 정도 있었는데, 도민체전을 위해 나머지 읍·면에도 새로 농악단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면당 30~40명씩 농악단을 꾸리고 저녁마다 가서 가르치고 연습했죠. 마지막에는 3개 면씩 모여서 연습하고, 전체 연습까지 해서 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막공연을 해냈어요. 이 공연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결성된 14개의 읍·면 농악단이 지금까지도 20년 이상 잘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창군 행정과 각 읍·면 공무원들이 연습 때마다 직접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간식도 챙겨주며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Q. 고창군에서 활동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고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고창에서 나왔고, 1987년 3학년 때까지 고창에 있었어요. 이후 서울로 올라가서 학교를 다녔으며, 졸업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1993년도에 다시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창에 다시 돌아온 건 1997년이에요. 그때부터 고창에서 거주하며 활동을 시작했죠. 1997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동리국악당에서 농악반 수업을 하게 되면서 고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Q. 어린 시절 접했던 농악과 현재의 농악의 분위기는 비슷한가요? 달라졌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어렸을 때는 농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고에 농악부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농악을 연주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제가 대학교에서 농악을 접하고 고창에 계신 할아버지들을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사람이 농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지역에서 농악을 한다는 자체가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딸이 집안 망신시킨다며 무척 싫어하셨어요.

그러다 동리국악당에서 농악 강습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창군민들을 위한 농악 교육이 이루어졌고,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농악을 배우기 시작했죠. 2001년에는 읍·면 농악단이 전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악당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동리국악당에서 배우는 아이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발표도 여러 해 하다 보니, 학부모들부터 농악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지금은 14개 읍·면 농악단이 있고, 전수관이라는 큰 집도 있고, 전수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농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전국에서 고창처럼 농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창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며 활성화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농악을 한다 하면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좋은 걸 한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해보면 재미있다는 반응도 많아요. 농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이제는 농악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정말 큰 변화발전을 한 거죠.



Q.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나요?

저는 그냥 “고창에서 고창농악 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농악을 빼면 저에게 남는 건 없으니까요.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특별한 목표는 없지만, 고창농악전수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고창농악보존회 회원들, 그리고 농악을 함께 치는 분들과 더 재미있고 즐겁게 농악을 이어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3.(화) 10:00

▶ 면담장소 : 고창농악전수관 (성송면 향산1길 106)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병섭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충북, 충주시
- 출생연도 : 1988년



“멋진 공연이 실연되도록 묵묵하게 지원하는 무대감독”

공연하는 배우들에게 든든한 아군인 이병섭 문화행정가는
외연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건물의 시설관리부터 공연기획과 행사진행까지
고창농악전수관의 숨은 보물입니다.

Q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북 충주에서 태어났고요. 고창농악보존회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 쪽 일을 담당하고 공연할 때 무대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고향이 충주이신데, 고창으로 오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2007년에 대학 동아리를 하면서 고창농악을 배우러 오게 되면서 고창과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농악을 하면서 팽과리를 했는데, 다른 악기는 가족으로 만들어졌는데 팽과리는 쇠로 만들어서 특유의 매력을 느꼈어요.

Q 어렸을 때 농악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대학 동아리 활동이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잠깐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강했던 것인지 대학교에 진학하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하게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Q 고창농악전수관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농악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농악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고창농악전수관)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저를 기준으로 위로 반, 아래로 반 정도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고창에 오게 된 계기가 대부분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대학시절에 농악을 즐겁게 접하다 보니,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농악이란 전통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함

께 즐기면서 하다보면 매력에 심취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것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Q 선생님께서는 농악을 하기 보다는 공연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농악 공연을 하지는 않아요. 워낙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공연을 실연할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가끔 사람이 부족할 때 기수라든지, 잠깐씩 하게 될 때도 있지만요. 공연을 직접 실연하지 않아도 공연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챙겨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Q 기억에 남은 공연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은 2016년에 고창에 내려왔을 때인데요.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에 대한 현장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가 고창읍성 안에서 상설 공연을 20회 정도 진행했는데, 고창읍성이 문화재이다 보니 매일 설치하고 매일 철수하고 했었어요. 그 시기가 한여름이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기억이라서 그런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상당한 기간 동안 고창농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고창농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고창농악의 매력은 다른 지역농악은 상모를 쓰고 하는 윗놀음이 발달되었다면 고창농악은 고깔을 쓰고 몸짓, 발짓 등의 아랫놀음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이것이 고창농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께서 2016년부터 고창에 거주하고 계신데, 고창농악전수관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전수관이 많이 달라졌죠. 처음 제가 왔을 때에는 뒤에 숙소동만 있었고, 앞에 폐교가 있었는데 2016년 즈음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폐교를 리모델링한 건물과 숙소동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습실이 3개 정도 있었는데 마루바닥도 꺼지고 비도 많이 새고 걸어도 보기도 많이 허름했는데, 이제는 리모델링도 하고 내부공간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Q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미있던 것 보다 힘들었던 것이 더 많이 기억에 남네요. 리모델링하면서 사무실을 저기에 있는 숙소동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많은 짐을 옮기고 이곳을 사용하기 좋도록 내부공간을 정리하던 것이 기억나요.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곳에서도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때 첫 행사로 고창농악경연대회를 진행했는데 그 행사가 기억나네요.

Q 공연지원을 하시면서 10년 전과 현재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10년 전에는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을 배우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면, 지금은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일을 알려주면서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죠. 지금은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행사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바뀐 것 같아요.

Q 선생님께서 최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공연보다는 문화행정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 우리 단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제가 맡은 부분이고 저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Q 일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 그 때가 가장 힘이 들어요. 제가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 건물이 오래되어서 어딘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하니깐요.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젊은 직원들 중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공연지원을 하던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을 올리고 그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무척 즐겁습니다.

Q 최근에 무대에 올렸던 공연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전북대표상설공연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5시에 동리국악당에서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 고창’이란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공연이 3, 4회차에 들어서는데 처음 개막 때에는 배우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안정되어서 즐겁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Q 지금 전수관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던데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고창농악을 배우러 6박 7일 과정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입니다. 월요일에 입소해서 일요일 퇴소하는 일정이에요. 대학생들이 입소하면 북적북적한데, 8월 말경이 되어 전수가 끝나면 대학생들이 모두 퇴소하고 그러면 왠지 공허하고 허전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매일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면 이상하잖아요.

Q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지원받아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전수를 하는데, 여름과 겨울은 두달정도 운영하고 봄과 가을에는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단기간 이루어져요. 모든 대상이 참가가능하고요.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입소한 첫날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그 이후 악기수업, 잡색수업, 복색수업이 이루어지고 다같이 합주 수업하고 퇴소 전날 발표회를 진행해요. 뒷풀이도 있어요. 입소한 첫날과 중간, 그리고 퇴소 전날에 발표하고 나서요. 이렇게 세 번 뒷풀이를 해요.

Q 고창농악전수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창농악전수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쉽게 놀러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농악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전수관이었으면 해요. 지금은 농악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내부뿐만이 아니라 밖의 조경에도 신경을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농악을 배우러 오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놀러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Q 어떠한 문화행정가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으세요?

저는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해 주는 사람, 공연이 잘되도록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 즐겁게 웃으면서 함께 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 이곳에서 단체경영과 보존회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존회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면담일시: 2024. 7. 23.(화) 11:00

▶ 면담장소: 고창농악전수관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복남

- 분야 : 미술(공예, 전통자수)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남(보성)
- 출생연도 : 1954년



“모란 자수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힐링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예술가“

전통 자수를 넘어서 감상자수라는 독창적인 길을 걷고 있으며,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복남 작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통 자수를 놓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모란 자수를 할 때 가장 기쁘고 위안을 얻습니다. 다른 것을 할 때는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데, 모란 자수를 할 때는 내 상상 속에서 피어나는 그 모란이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모란을 계속 하고 싶어요.



Q. 전통 자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1973년에 전통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솜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자수반이 있었는데, 밤새워서 자수를 마치고 했어요. 중학교 때는 가사 선생님 대신 샘플을 만들 정도로 자수를 좋아했죠. 원래는 의상 디자인을 해볼까 했는데, 친정 오빠가 여자는 양장점을 하면 고생하니 우아하게 수를 놓는 걸 배우라고 권해서 동양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973년에 광주에서 배우고, 1974년부터 서울에서 10년 정도 활동했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방학 때는 자수를 놓았습니다.

Q. 고창군에는 언제부터 살게 되었나요?

1985년부터 살게 됐어요. 당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고, 결국 고창에 오게 되었어요. 시댁도 자수를 하는 집안입니다.

Q. 어렸을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나요?

그렇죠. 중학교 때 이미 뜨개질도 끝냈고, 자수도 시작했죠.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붓글씨도 하고, 붓으로 그림도 그렸어요. 지금도 도안은 제가 직접 만들어요. 나는 답답한 걸 싫어해서 전통 자수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자유로운 걸 추구해요. 전통 자수는 대부분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흉내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전통 방식도 다 한 번씩 해봤지만, 자유롭게 창작하는 걸 더 좋아하죠.

특히 감상자수를 좋아해요. 이장봉 선생님께서 감상자수를 하셨는데, 그분이 동양화도 하셨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 저도 감상자수 쪽을 많이 했어요. 병풍, 액자, 족자 같은 감상자수는 생활 자수보다는 예술적 감상용이에요. 한국화를 배워서 직접 채색도 하고, 꽃을 보고 그린 도안을 가지고 자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란을 스케치해서 도안으로 만들어서 자수를 놓죠.

Q. 자수 활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있나요? 있다면 들려주세요.

있죠. 시누이들과 '아웅다웅 시누 올케전'을 하면서 제 작품이 대중 앞에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수가 뭐 그렇지' 정도로 생각됐었는데, 제 작품을 직접 보고 나서 사람들이 자수가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걸 보니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인정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작년에 개인전을 했을 때는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온 사람들이 자수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면 감탄했죠. 색상이 화려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수가 정말 예술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줘서 제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이 즐겁게 작업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즐겁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이상 판매에 신경 쓰지 않고, 보여주는 자수를 하고 싶어요. 전시회에서 몇몇 분이 작품을 팔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와서 보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싶어요.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넓은 장소에 자수를 전시하고, 제가 만든 꽃차를 나누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Q. 첫 작품을 작업할 때가 기억이 나나요? 어땠나요?

첫 작품은 다람쥐와 밤송이를 그린 자수였어요. 1973년에 만든 <밤송이와 다람쥐>죠. 사실 다람쥐와 밤송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색상이나 기교를 넣는 건 제 몫이었어요. 처음 하면서도 음영도 잘 넣고, 지금 봐도 정말 잘했구나 싶어요.

Q. 요즘 특별히 즐겨하는 작업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모란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금계가 있는 모란, 새가 있는 모란을 하고 싶어서 지금 도안을 만들어서 작업 중이에요.

Q. 모란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모란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네요.

모란은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속에 있는 걸 표현하게 해주는 존재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작업실에 오셔서 “여기서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며 저 작품을 가리키셨어요. 그걸 보고는 “이걸 하면서 너무 행

복하지 않았어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너무 행복했죠. 그때부터 '좋아하는 걸 하면서 꼬집어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꽃을 좋아하는데, 사실 잎사귀를 표현하는 게 좀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송이 꽃만 도안으로 만들어 작업을 시작했는데, 둘째 딸이 “굳이 이파리를 꼭 넣어야 돼요? 꽃만 있어도 예쁘잖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 모란을 시작으로 노란색 등 다양한 색으로 모란을 표현하게 됐어요. 모란의 표정과 색감들이 다 다르고, 그걸 해내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끼죠.

어쩌면 내가 혼자 자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7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었지만, 난 유복녀로 거의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있을 때 힐링이 돼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데, 혼자 수놓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회복돼요.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수놓으면서 힐링이 됐어요. 이 작업은 일이라기보다 완전히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이걸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Q.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에 남길 바라나요?

저는 자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요. 특히 모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사람들이 '이복남, 전통 자수를 하는 사람' 하면 모란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수를 참 아름답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수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개인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자수도 옛날 고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수는 문화재처럼 옛것을 재현하는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제가 하는 감상자수는 거의 소외된 상태예요. 옥수수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런 자수가 거의 없어요. 전부 옛날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흉내 내는 쪽으로만 가니까요. 그래서 저만의 작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자수도 이렇게 아름답고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시관에 와서 자수를 보며 차를 마시고, 마음을 풀어놓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자수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요.

저는 예전부터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일을 해왔어요. 자수로 나만 힐링한 게 아니라, 저를 필요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앞으로도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 ▶ 면담일시 : 2024. 7. 16.(화) 17:00
- ▶ 면담장소 : 고창자수 (아산면 중북길 23-6)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성수

- 분야: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서울
- 출생연도 : 1977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농악인, 이성수 예술가 “

농악의 전통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장구와 태평소를 연주하는 농악 활동가입니다.
고창농악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농악의 다양한 매력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주를 넘어, 서민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악인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이수자로 장구와 태평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농악 관련된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공연, 연구 등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한 장르로 딱 정리하기는 어렵고, 농악과 관련된 일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악기는 주로 태평소와 장구를 다루는데, 판에서는 태평소로 많이 활동해 왔습니다.

Q 고창과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을까요?

고창과의 인연은 2001년에 시작되었어요. 군 말년휴가 때 후배들이 고창에 농악을 배우러 온 것을 챙기러 왔다가, 그때 연이 닿았죠. 그리고 2003년 7월에 고창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여기서 고창농악 소고를 치는 문현주 씨와 만나 결혼도 하고 두 딸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고창에서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어렸을 때부터 농악에 대해 흥미가 있으셨나요? 어떻게 농악을 시작하게 되셨죠?

아닙니다. 전혀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죠 도시니까요. 저희 세대 때는 80년대 운동권 세대와 맞물려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대학생들이 농악에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저도 96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농악을 접하게 됐죠. 대학 오기 전에는 서양 관악기를 배웠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농악을 한 번 배워보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젊은 대학생의 호기심이었죠. 그렇게 들어간 동아리가 학과 내에 있던 풍물패 ‘우리장단’ 이었고, 그게 농악의 시작이었어요.

Q 농악을 접하기 이전에 음악적인 취미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셨을까요?

네 취미 활동 정도는 있었죠. 클래식 관악기인 클라리넷을 접하게 됐어요. 꽤 애정 있게 취미 활동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해서 교회 오케스트라 활동과 고등학교까지 한 7~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Q 농악은 우리 전통 음악이잖아요. 클라리넷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매력들이 있나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는 문화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는 두 음악을 배우는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클래식 음악은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배우는 반면, 농악은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는, “그냥 해봐, 따라 해봐, 몸으로 깨달아라.”라는 방식으로 배운거죠. 몸으로 배우는 네이티브한 문화죠.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충격이었죠. 클래식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접하는 반면, 농악은 몸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또 농악의 매력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악은 예부터 서민들의 삶과 함께 녹아 있는 음악이죠. 농사일을 하면서 치는 노동악으로 시작해서, 대보름굿과 같은 의례음악, 민간신앙적인 무속악, 농황기의 연희악 나아가 군대의 군악까지 농악은 서민들의 일상과 공동체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게다가 기악, 춤, 연기, 노래 등 다양한 장르를 품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과 장르로 사람들의 삶 속과 밀접한 문화라는 것이 농악이 가진 큰 매력이라 생각해요.

Q 무대 데뷔는 언제였을까요?

농악을 하다 보면 데뷔라는 개념이 애매해져요. 농악은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순간부터 바로 무대에 오르기도 하거든요. 잡색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냥 무대에 끌려 들어가서 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뷔'라고 묻는 것은 뭔가 딱히 큰 무대에서 머리를 올리고 정식으로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농악에서는 악기를 들고 들어가서 함께 놀고 있는 그 순간부터가 무대에 서 있는 거니까요.

Q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도 참 애매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프로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기준으로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그 분야에 쏟을 수 있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을 위한 온전히 투자할 수 있어야 프로라 생각합니다. 돈벌이가 따로 있어도 그것의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프로인거죠. 저도 2003년 고창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내 시간을 농악에 온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프로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Q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대학교 2학년 때 후배들을 데리고 경상도 성주로 농활을 갔던 때예요. 당시 학부제로 바뀌면서 선후배 간의 연결이 끊어질 위기였는데, 후배들과 함께 농악을 치며 마을분들 집집마다 방문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청년들이 마을에 와서 트럭을 타고 다니며 지신밟기를 하는데 마을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 따뜻함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요.

특히 그때 당골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가 선무당인 걸 알아보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던 일도 기억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분들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현장의 생생한 감각에 끌려 농악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꼈던 경험이었죠. 그때의 감정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장면들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Q 고창군에 거주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03년 7월에 고창에 내려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 2001년에 제대를 하고 나서 ‘뭘 하고 살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제 선택이나 전공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 무언가 풀고 싶은 갈증을 느끼던 차에

고창과 인연이 시작됐어요. 고창농악을 배우라고 보낸 ‘우리장단’ 후배들을 응원차 방문했는데, 후배들이 사부들에게 너무 준비 없이 내려왔다고 혼나며 농악을 배우고 있던 것이 첫 기억이네요.

그때 사람들과 사부들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여러 단체에서의 배움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사람들과의 그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어요. 고창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무언가 배우고, 풀어가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당시 고창농악전수관의 분위기는 이제 막 문화재를 받아 아직 덜 활성화된 블루오션 같은 매력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연습하거나 일 없으면 한가롭고 그때 생각에 부족한 나여도 이곳에서 버티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Q 요즘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능력을 종합해 보면 교육 쪽에 강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구한 내용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그러다보면 기획이나 연출 같은 것도 시도해보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연 기획이나 연출도 가끔 하고 있죠. 또 홍보 쪽 일도 많이 했어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홍보물 제작이나 문구 작성 같은 것도 하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도 일하면서 배우고 사용하게 됐죠. 하지만 제 본업은 악기 교육이에요. 결국 교육을 중심으로 기획, 연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 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Q 농악을 시작하신 지 30년이 다 되셨는데, 30년 전과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대의 흐름을 보면 전통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원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핵심 개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와 사회가 변하면서, 그에 맞춰 전통도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예전에는 농악이 농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농업도 기계화되고 생활 방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농악의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 농악을 접했을 때만 해도 전쟁 전과 일제강점기 시절의 농악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어려운 시절에도 농악을 지켜오셨죠. 하지만 전쟁 후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서양 문화가 급

속도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단절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농악도 한때는 시대적 흐름에 희미해져 가다가 대학생들의 문화운동과 사물놀이 역수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대 간에 또는 정신적으로 형식적으로 단절되었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면서 배우고 연구하던 세대였어요.

그에 반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농악은 자신들이 즐기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어요. 이건 예술적으로는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근간이 되는 정신적, 형식적 뿌리가 탄탄하다면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저희 때와는 다른 분위기죠.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농악의 악기와 형식을 활용해 새로운 춤과 음악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농악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태평소반 친구들과 구시포에서 (2019년 고창농악 겨울전수 중)

Q 다른 지역의 농악과 다른 고창농악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창농악의 특징은 다른 지역 농악과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고 생각해요. 고창농악은 사실 후발 주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재 지정을 늦게 받았죠. 그런데 고창농악은 단체로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것이 다른 지역 농악과 차별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한두 분의 선생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농악패를 구성하는 다양한 선생님의 모습과 삶을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점이 지금에서는 연희적인 기량에 매이지 않고 농악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고창농악이 늦게 주목받은 만큼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노력해 왔어요. 예를 들어, 다른 선발주자들의 시스템을 참고하며 고창농악만의 방식을 만들어왔죠. 이명훈 선생님 이하 많은 동료들이 어르신들의 농악문화와 젊은 세대들을 연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다행인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창농악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종종 들어요. 이는 고창농악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모두 헌신해 이뤄낸 변화라는 점에서 뿌듯합니다.

Q 본인을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농악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는 농악 활동가로 생각해요. 공연, 교육, 연구, 기획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사람들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저는 태생적으로 네이티브하지 못했잖아요. 고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자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았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고창농악뿐만 아니라, 호남 우도농악 전반에 대한 가락, 장단, 의미를 깊이 파고들었죠. 최근에는 연구 성과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 정리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기획이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게끔 정리해보고 싶고요.

또 다른 목표는 농악을 자기 수양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악을 신명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놀이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자기 공부로 생각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공연은 그러한 공부의 결과물을 소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다만 누구와도 누구 앞에서도 편안하게 장구 치고 태평소 부는 내가 되보고 싶어요. 엔터테이너로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보다는 농악으로 나를 돌아보며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론적인 연구만큼 몸을 쓰는 부분도 더 집중하고 싶어요.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잡아 저를 더 성장시키고 싶어요.

▶ 면담일시: 2024. 7. 18.(목) 10:10

▶ 면담장소: 고창농악전수관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지연

- 분야: 미술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서울, 강원도, 전남
- 출생지역 : 서울시
- 출생년도 : 1990년



“불의 온기와 향을 지닌 따스하고 열정적인 기획자”

고창이 지닌 자연의 감각과 에너지에 심취해서 머물고 있는 이지연 예술가는 새로운 시선으로 고창을 마주하며 흥미로운 예술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되지 않은 공간에 매력을 느끼고 몰입하는 기획자를 만났습니다.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 전시기획, 문화연구, 에디터,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입니다. 대학에선 전통공예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미술사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사물들, 예를 들어 밥그릇, 도자기, 한복, 가구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서울시 청년허브라는 중간지원 조직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동대문옥상낙원(DRP: Dongdaemun Rooftop Paradise, 2014년) 프로젝트의 공동 운영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커뮤니티아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동대문 옥상낙원이 기획자로서 활동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동대문의 아주 오래된 신발상가의 옥상공간 300여 평을 동대문옥상낙원(DRP: Dongdaemun Rooftop Paradise, 2014년)라는 공간으로 조성했어요. 서울은 빽빽하고 이미 많이 기획된 도시라고 생각해요. 특히 동대문은 봉제공장에서 패션을 생산하고 도소매시장에서 유통까지 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클러스터화된 도시죠. 이렇게 빠르게 작동되는 도시에서 지역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창작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약 8년간 활동했어요.

Q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고창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서울은 최고야!”라는 생각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서울이 가장 빠르게 폐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답답함을 느끼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고창과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고창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커뮤니티아트, 문화예술교육, 전시 기획, 전시 참여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분야는 다양하지만, 로컬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처: 동대문옥상낙원 DRP 페이스북 페이지

Q 어린 시절에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예술적 감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들, 새로운 시각과 남다른 관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굉장히 몰입하는 편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몰입하는 태도가 예술성과 관련된 지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Q 예술 활동에 매료되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매료되었던 느낌을 이야기해보면, 서울에서 고창으로 내려온 계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동대문처럼 시스템적으로 뽀뽀하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창작 작업을 하다 보니 서울이 온통 거울로 둘러싸인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거울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상상해보면, 제 욕구나 필요, 취향이 거울처럼 투영되는 공간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울은 이미 저를 반영한 공간이라, 즐거운 서비스를 받으면서 소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고창에 내려와서 창작하는 게 즐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획되지 않고 변하지 않아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장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알게 된 삼양사라는 버려진 공간이 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무 쓰임이 없고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오래된 폐허 같은 곳이 너무 좋고,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바다 역시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자연의 작동 원리가 그 공간의 용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처럼 과하게 기획된 공간보다 소도시의 열린 공간, 개방된 공간, 기획되지 않은 공간을 보면 많은 영감을 받곤 해요.

Q 창작 작업을 처음으로 하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한 동대문옥상낙원 프로젝트가 제 첫 창작 작업이었어요. 그때 정말 재미있었죠.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자주 했는데, 특히 봉제사 선생님들과 많이 만났어요. 한국의 의류 시스템은 오더메이드 방식이라, 디자이너가 오더를 내리면 봉제사들은 그걸 그대로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메이킹”이라는 개념은 창작과 가까운 단어인데, 봉제사 선생님들은 메이커임에도 불구하고 주문 받은 디자인을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현대 제작 시스템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봉제사 선생님들이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작업을 시도했어요. 예를 들어, 구멍 난 티셔츠를

아름답게 디자인해 그 옷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작업도 했고, 가수가 안 입는 무대 의상을 해체해서 새로운 무대 의상을 만들거나, 청년 창작자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치는 등 기존 봉제 방식을 해체하고 창작자로서의 역할이 전환되는 작업을 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죠.

예술은 꼭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안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지점을 밝혀주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에서 고착화되거나 고정된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커뮤니티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짜릿한 감정을 주었고, 의미도 있다고 느꼈어요.



출처: 동대문옥상낙원 DRP 페이스북 페이지

Q 고창에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어떠한 작품을 하시나요?

고창에는 2020년부터 오가며 지냈고,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주로 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고창에서 작업을 많이 하진 않지만, 개인 작업을 하면서 서울, 강원도 철원, 전라남도 고흥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죠. 고창에서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활동가 양성과정 ‘익는학교’의 컨설턴트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작년에는 고창읍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상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해설사가 전통시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에디팅도 했었습니다.

Q 고창에서 활동하신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작년(2023년)에 김준우 작가님과 함께 수박에 관련된 작업을 했어요. 김준우 작가님은 시각미술 작가인데, 2년 전부터 수박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수박농사도 짓고 작가 활동이 흥미로웠고,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 작업은 수박에 대한 리서치부터 시작했어요. 고창수박이 언제부터 유명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30~1940년대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서 고창의 수박이 상징화되는 과정을 연구했죠.

그리고 현재 고창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을 만나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50년 동안 수박 농사를 일군 베테랑 농부님, 서울에서 일하다 고창으로 유턴한 2년차 청년 농부, 그리고 수박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 등 세 분을 대상으로 인터뷰했어요. 리서치와 인터뷰를 통해 수박의 과거와 현재의 경향, 그리고 수박의 미래를 정리하면서 영감을 받았고, 김준호 작가님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구상을 설치작품으로 전시했어요. 정말 재미있게 진행했답니다.



Q 어떠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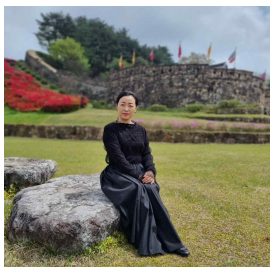
저는 개인으로도 활동하지만, ‘작은불연구소’라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숲에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우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작업을 해요. 그 불로 요리도 하고, 주변에서 춤도 추고, 따뜻한 온기를 쬐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조그마한 모닥불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요리하고 춤추다 보면, 온몸에 불의 온기와 향이 스며들겠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고창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3일, 고창에서 4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바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서울에선 작업하고 일하고 친구 만나느라 늘 바쁘죠. 그런데 고창에 있을 때는 오롯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고창의 자연환경과 생태적인 힘이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을 창작 활동으로 표현하고, 고창의 아름다움을 잘 그려내고 싶어요.

▶ 면담일시: 2024. 7. 25.(목) 12:15

▶ 면담장소: 고창읍 청룡길 20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정병갑

- 분야 : 미술(서예)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47년



“끊임없는 수련과 정성으로 서예의 깊이를 탐구하는 예술가“

한 자 한 자에 정성을 담아 서예의 깊이를 탐구하는 정병갑 예술가.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로 서예의 매력을 전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서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자 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창군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남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서당을 운영하셨고, 6살 때부터 할아버지 댁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사자소학, 명심보감 같은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 부모님께 효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배웠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한학 공부를 이어갔고, 조기환 선생님께 논어까지 배웠습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치르고, 군대 가기 전에 취직하기 위해 공무원 공채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했습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 방송통신대 행정학과에 졸업(행정학사), 재직중에는 전북대 최고관리자 과정(1년)을 수료 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서예 하시는 이런 감각이 있다고 혹시 느끼셨습니까?

할아버지께 한학 공부를 하면서 간간히 붓글씨를 쓰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습자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계속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당시에는 서예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한학을 여러 해 공부하면서 서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에도 서예를 하고 싶었지만, 맡은 업무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번 시도하다가 중단했지만, 언젠가 꼭 다시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서예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서예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첫 순간이 기억나시는지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 주세요.

처음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서예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끼리 서로 모함하거나 헐뜯는 상황 속에서 서예를 하면 정신이 집중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낍니다. 서예를 하다 보면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주위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더 서예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Q. 데뷔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제가 딱 데뷔라고 할 만한 시기는 아니지만, 서예를 시작하면서 여러 공모전에 꾸준히 출품했습니다. 2010년부터 전라북도 공모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했고, 2014년과 2015년에 전라북도 초대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광주시전에서도 추천 작가로 인정받았고, 국전에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부문은 경쟁이 치열한데, 2017년에 처음으로 입선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입선을 네 번 하고, 특선을 두 번 받으면서 2003년에 초대 작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예서로 쓴 “연광정“이라는 시구입니다. 그 작품으로 특선을 받았는데, “연광정“은 한 인물이 연광정에서 머물면서 주변 경관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 시를 예서로 표현해 특선을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지금은 주로 어떤 작품을 활동을 하시는지 또 그것은 어떤 장르로 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예의 여러 장르를 공부했습니다. 전서, 행서, 예서, 초서 등 오채작품을 모두 공부했고, 중국 서법가들의 고급 명가의 책들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서예를 배우던 초기에는 제 마음에 맞는 배움터를 찾지 못해 광주로 가서 학정 이돈홍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10여 년 넘게 전서, 행서, 초서 등 5체의 기초를 지도받고, 임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의 서예 작품을 공부하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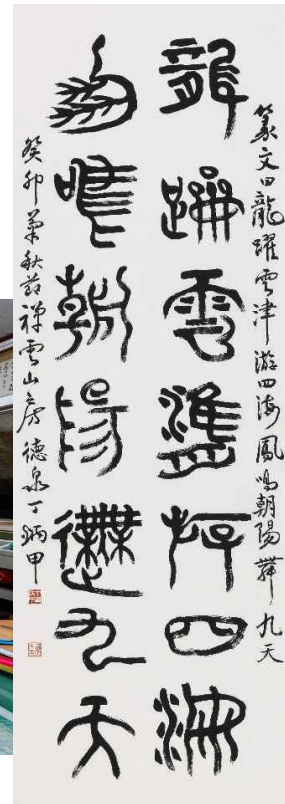


Q. 선생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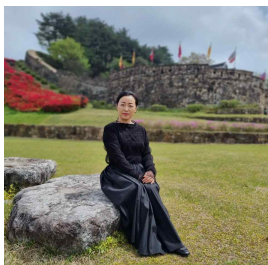
서예는 다른 예술 장르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양 미술은 그리면서 덧칠도 하고 수정도 할 수 있지만, 서예는 한 번 획을 그으면 끝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출발선에서 시작해 달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서예도 한 글자를 써버리면 수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예는 매우 세밀한 정성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련과 반복적인 연습으로 고법을 익히고 새로운 기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범고창신의 정신으로 서예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늘 젊을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를 더해서, 개인전을 한 번 열고 많은 분들에게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제가 배웠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 면담일시 : 2024. 7. 26.(금) 11:00
- ▶ 면담장소 : 작업실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정호영

- 분야 :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순창)
- 출생연도 : 1988년



“전통을 지키며 퓨전과 조화를 이루는 소리꾼, 정호영 예술가 “

전통 판소리부터 퓨전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소리꾼입니다.

국악의 성지인 고창을 알리기 위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리 하나는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국악예술단 고창의 대표를 맡고 있고, 고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13년 차 소리꾼 정호영입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제가 스스로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제가 자란 쌍치라는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방과 후 활동에서 우연히 가야금을 배우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레슨을 받으면서, 운 좋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됐죠. 그때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저에게 끼가 있다며 국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가야금보다 목소리를 살려 소리를 하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안숙선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Q 소리를 하면서 예술적인 감성에 매료되었던 첫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야금을 시작해서 판소리로 전공한 지 올해로 28년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제가 완창했을 때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자 선생님을 만나서 완창에 도전했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때가 익산에서 열린 국창 정정열 대회(국창정정렬추모 익산 전국판소리, 고법 경연대회)였는데,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죠.

Q 몇 살에 데뷔하셨는지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12살에 처음 무대에 올랐어요. 저희 아들 나이와 같네요.

하지만 본격적인 데뷔라고 한다면 2009년에 고창으로 내려와서였어요. 그때 예술 인턴으로 시작해 문화원과 복지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국악예술단 고창이라는 팀에 막내로 들어가게 됐어요. 당시 대표였던 임현호 오빠가 저에게 “고창에 국악의 색을 알려보자”고 제안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작품은 한옥상설 ‘도리화 귀경가세’였어요. 그때 제 진짜 실력을 알게 되었고, 제 소리와 연기가 도태돼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김영자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 계기도 그 작품 덕분이었죠. 남기성 연출님의 그 작품이 저에겐 가장 인상 깊은 데뷔작이에요.

Q 고창군에서 언제부터 활동하거나 거주하게 되셨을까요?

2008년 11월에 고창으로 내려왔고, 2009년부터는 고창군 문화예술 인턴으로 문화의 전당에 취직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Q 최근에는 주로 어떤 장르의 작품을 하시나요?

최근에는 복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과 퓨전, 그리고 뮤지컬적인 요소를 모두 혼합한 형태의 작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악예술단 고창은 처음에 실내악이나 퓨전 국악 공연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고창군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고창을 알리는 곡과 작품들을 연구하며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쉽게 말해, 고창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본인은 어떠한 예술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희 스승님인 김영자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리는 전통의 기본이다.” 요즘 퓨전이나 트로트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소리꾼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고창이라는 국악의 성지를 알리려면 소리를 정말 잘해야 하고, 기본을 지키는 전통 소리를 전국

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소리꾼 정호영으로서, 누군가가 저를 떠올릴 때 “정말 소리 잘하는 사람이다. 국악의 성지 고창답게 소리 하나는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소리뿐만 아니라 뭘뭘이도 잘 갖춰진 예술가로 남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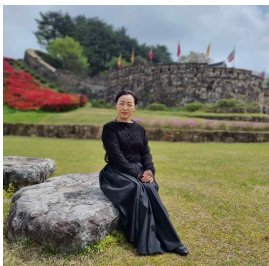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편이에요. 제 궁극적인 꿈은 인간문화제가 되는 것이고, 그 꿈에 도달하려면 매년 목표를 확실히 다져야 하죠. 올해의 목표는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매주 이틀씩 전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수궁가 완창을 했듯이, 이번에는 저희 선생님이 문화재로 인정받은 심청가 완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완창을 마친 후, 전주 대사습, 춘향국악대전, 공주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길게 잡아도 3년 안에는 꼭 그 상을 타고 싶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6.(금) 14:45

▶ 면담장소 : 고창문화원 1층 접견실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조영하

- 분야: 미술(공예, 도자기, 판화)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남(곡성)
- 출생연도 : 1981년



“흙과 판화를 넘나드는 예술적 열정의 소유자, 조영하 예술가 “

도자기와 판화 작업을 병행하며, 흙의 질감과 손의 교감을 통해 예술적 치유를 찾는 도예가입니다.
판화에서 느꼈던 창작의 기쁨을 도자기 작업에도 녹여내며, 고창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가며,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곡성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이후로는 광주에서 살다가 결혼을 계기로 2015년에 고창으로 이사 왔습니다. 고창에서 우연히 도예 공방을 알게 되면서 도자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전업주부이자 도예가로 활동 중이고, 앞으로도 고창에서 도예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도예가입니다.

Q 어린 시절부터 공예 관련 활동을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미술학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했고, 이후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부 판화 미디어 학과에서 판화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판화 작가로 활동하면서 광주미술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했었지만, 현재는 도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현재는 쉬고 있지만, 2014년까지는 작품 활동과 작가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Q 도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자기 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도자기의 매력은 흙과 손이 교감하는 그 감각적인 즐거움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만지고 느끼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흙의 질감이나 물레를 돌릴 때의 부드러움이 저에게 큰 힐링이 되더라고요. 흙으로 만들 때와 불에 구워져 나올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변화가 늘 궁금하고 재미있어요. 실패 확률이 높아 예상과 다르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불확실성 자체가 도자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잘 나왔을 때의 뿌듯함과 실패했을 때의 아쉬움 모두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죠.

저는 약 5년 정도 도자기를 해왔고, 고창에서 전통 도자기를 배우고 있어요. 전통 자기의 깊이와 아름다움도 매력적이지만, 현대 도자기나 생활자기도 좋아해요. 특히 직접 만든 접시나 화분을 사용하는 게 정말 기쁨이 크죠. 그래서 전통 도자기와 생활 자기를 함께 작업하고, 앞으로도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Q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고창 미술협회로 전입을 했고, 전북 미술협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북 미술 쪽에서 더 많이 활동할 것 같아요. 고창에서 거주하고 있고, 고창군 주민으로서 지역을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고창은 작은 소도시지만 예술인들이 많고, 다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서 제 이름을 알리고 싶고, 고창군이 예술인들이 많은 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처음으로 판화 작품을 하셨을 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판화를 접했을 때 정말 매료되었어요. 특히 동판화 작업이 기억에 남는데, 금속판에 그림을 새기고, 부식시키고, 프레스로 찍어내는 그 과정이 마치 금속 공예 같은 느낌이 들었고, 너무 흥미로웠죠. 첫 작품은 손바닥만 한 작은 동판화였는데, 그 작은 판을 가지고 수십 번 찍어보면서 선 하나하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틈틈이 작업하면서 교수님께 자주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격려도 해주셔서 더 힘이 났죠. 이 첫 작업에 매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판화에 몰두하게 되었고, 공방에서도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출품했던 광주광역시전에서 특선을 받으면서 자부심도 생겼고, 이후에도 꾸준히 판화 작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Q 고창 미술협회에는 판화 분야가 없는데, 판화를 계속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는 도자기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판화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판화 작업은 화학 약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하기 어렵죠. 나중에 작업실을 마련하게 된다면, 도자기 작업과 함께 작은 판화 작업도 다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도자기에 더 애착이 가서 베란다에 테이블을 놓고 흙을 만지며 작업하는 게 마음을 푸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도자기 작업에 집중할 생각이지만, 여건이 갖춰지면 판화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Q 판화와 도자기의 협업 작업이 가능할까요?

판화와 도자기의 협업 작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자기와 판화의 결합을 '도판화'라고 부르는데, 판화처럼 흙을 밀고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이죠. 그 위에 조각이나 그림을 그려서 굽는 과정을 통해 도자기 판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도자기 판을 액자에 걸거나 작품으로 전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도판화를 전문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도판화 작업을 해보고 싶고, 올해 말에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미술협회 초대 전시가 있는데 그때 도판화를 전시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Q 판화와 도자기가 구분된 작업이라 생각했는데, 두 작업이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판화와 도자기를 완전히 별개의 작업으로 생각했는데, 두 작업을 연결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작은 판화와 도자기를 하나의 액자에 함께 넣어보는 식으로요. 공간을 조금 띄운 느낌으로 배치하면, 판화가 도자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자기가 판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오묘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전시 기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미술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전을 열었고, 이번에는 도자기를 처음으로 전시하게 됐어요. 도자기와 판화를 결합한 작업을 통해서 저만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Q 처음 이런 작품을 만드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처음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정말 신선하고 짜릿했어요. 판화는 손으로 새긴 그대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명확함과 솔직함이 매력적이었고, 여러 장을 찍어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도자기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만든 걸 불에 구워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큰 쾌감이 있었어요. 불의 세기나 유약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배울 게 끝이 없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복잡하고 끝없는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전통 자기는 그 정교함과 깊이 때문에 특히 도전하고 싶은 분야예요. 장작 가마 같은 전통 방식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아이들에게도 이 재미를 전하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작은 공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꿈도 가지고 있어요.

Q 현대 자기와 전통 자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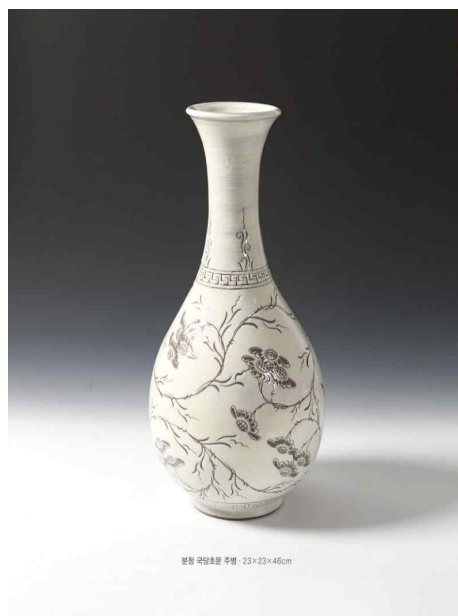
전통 자기는 우리의 선조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과 문화를 담고 있어요. 청화백자, 백자, 분청사기, 옹기 같은 전통 도자기들은 그 시대의 미감과 기술이 녹아 있죠. 전통 자기를 만드는 건 단순히 옛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롭게 재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전통 문양과 기법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예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전통 자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반면, 현대 자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도자기를 말해요. 접시, 컵, 화분 같은 일상 용품들이 대표적이죠. 현대 자기는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겨요. 매일 쓰는 물건이라도, 예쁜 디자인이 감동을 준다면 그것도 예술적인 현대 자기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전통 자기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 배우는 과정이지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Q 최근에는 주로 어떤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요즘은 청자와 분청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청자는 주병, 주전자 같은 전통 기물을 만들면서 전통 문양을 새겨 넣어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어요. 분청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 중인데, 예전에 했던 판화 경험을 살려 도자기와 판화를 결합한 도판화 작업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아직 실험 단계지만,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의미 있어요.



분청 국립미술관 주병 · 23×23×46cm

Q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하루 대부분을 작업에 쏟았는데, 지금은 가정을 돌보면서 작업 시간을 조절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보통 10시에서 11시쯤 작업실에 나가서 오후 2시나 3시까지 작업해요. 저녁에는 집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아이들 재운 후 밤에 2~3시간 정도 더 하죠. 체력적으로 예전만큼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큰 작업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있어요.

예전에 50m 크기의 작업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 저한테도 잘 맞는다고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크게 작업하고 싶어요. 남편한테도 “작업실만 마련해 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작업을 시도해 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온 일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작업이 밥 먹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교수님들도 “계속하다 보면 성공할 거야, 언젠가 빛을 발할 거야”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을 믿고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아직은 지역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외에서도 전시할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Q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은 어떤 장르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순수 미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은 여러 장르로 나뉘지만, 저는 창작에는 경계가 없다고 봐요. 도자기를 꼭 좌대에 올려놓을 필요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접시를 땅바닥에 깔아놓는 설치 미술도 하나의 방식이죠.

이번에 기획 중인 전시에서도 도자기를 드로잉을 배경으로 설치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에요. 경찰청 같은 전시 공간에서 벽에 걸거나 바닥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도자기가 깨질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대량 생산된 깨지지 않는 도자기도 있지만, 그건 제가 하는 작업과는 다릅니다. 작은 작업도 소중히 여기며, 손으로 만든 도자기는 선물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류(상점) : 15×14×25cm, 18×17×65cm, 26×16×28cm.

Q 어떠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늘 제가 좋아서 예술 활동을 해왔어요. 남들이 제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걸 보면서 힐링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작품이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 마음에 뭔가를 울리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제 작품을 통해 “참 열심히 하고, 자유롭고,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이니까, 제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목표는 정말 많아요. 우선, 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 죽는 날까지 도자기든 판화든 예술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돼도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 예술은 제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기술과 경험들을 그냥 묻어두고 싶지 않거든요. 공방에서 다른 분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면서,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언젠가는 공방이나 학원을 차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누구에게든요.

▶ 면담일시 : 2024. 7. 2.(화) 10:45

▶ 면담장소 : 지음 공방

이야기수집가 : 임애진



고창미술협회 공예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음공방을 운영하는 공예 작가. 평생교육 강사이자 패브릭 공예 작가로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공예와 원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한 것은, 고창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며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주영룡

- 분야: 국악(전통예술, 농악 포함)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기획자, 주영룡 예술가”

고창농악에 심취하면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는 예술가입니다.
전통 농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공연 기획을 통해 현대 예술과의 융합을 시도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물놀이 동아리를 통해 처음 국악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가 1998년도였어요. 이때 처음 사물놀이에 빠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악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이후 대학교에 가서도 풍물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국악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고, 2001년에 고창에서 처음으로 고창농악을 접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으며,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 이수자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농악에서 북을 치고 있고, 수북입니다.

Q 수북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악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쥘과리, 징, 장구, 북, 소고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앞에서 이끄는 사람에게 '상(上)'자나 '수(首)'자를 붙이죠. 예를 들면 상쇠, 상장구, 수장구처럼요. 그래서 수북은 북 제비들 중에서 제일 앞에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농악에서 북을 이끄는 사람, 즉 수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시다고 느끼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감각이 특별히 발달했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오히려 왜 내가 잘 못할까,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게 됐죠.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으로 성취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배워가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현재 하고 계시는 예술 활동에 매료되었던 첫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첫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성송에 있는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처음 농악을 배우러 갔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고창농악을 접하고 사람들과 함께 농악을 하게 되었죠. 그때 제가 농악을 하고 있다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환경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직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순간입니다.

Q 예술가로 몇 살에 데뷔하셨을까요?

큰 무대에 처음 선 건 2008년도였어요. 나이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큰 무대에 서게 된 것이었고, 고창농악에서 유명한 고깔소고춤을 테마로 한 공연이었어요. 저는 북을 맡았고, 소고 출연자들과 함께 북으로 반주를 하며 무대를 채웠죠. 그때 저에게 북으로 무대에 서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Q 그 당시 기분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큰 무대에서 처음 경험한 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농악은 마당이나 열린 공간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관객과 출연자가 딱 나눠져 있고, 그런 환경에서 농악을 선보인다는 게 정말 생소했어요. 그래서 무대에 서 있는 동안도 뭔가 현실 같지 않고, 좀 낯설고 실감이 안 갔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Q 고창군에는 언제부터 거주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로 하시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고창군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2010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주로 해왔던 작품은 농악, 그리고 농악을 활용한 창작 작품들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따지자면, 전통 연희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국악과 연희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고창문화의전당에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고창농악 이수자로서, 고창농악을 알리는 자리에 기회가 된다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Q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목표는 공연 기획자로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한, 고창농악 이수자로서의 길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의 문화예술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10.(수) 16:00

▶ 면담장소 : 고창문화의전당 접견실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차연정

- 분야 : 미술(공예, 망건)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남(여수)
- 출생연도 : 1960년



“시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망건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품 제작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

망건 작업을 이어오며 전통을 지켜나가는 차연정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망건 뜨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여성을 위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망건 작업은 어떻게 접하게 되었고,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제가 24살에 결혼하고 고창에 왔을 때인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마루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망건을 쓰셨으니 망건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직접 뜨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뭐예요?”라고 여쭙봤더니 “이게 망건이다. 너도 한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우리 애들, 자식들 일곱 명 모두 한 번씩은 해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라고 말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아기가 생기면 뜨기 힘들니까 아기 없을 때 배워보라”고 하셔서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망건을 뜨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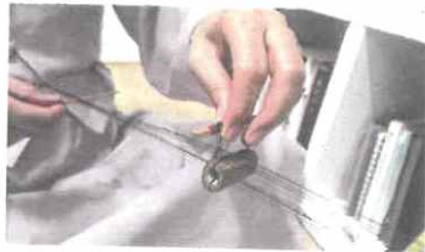
Q. 망건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옛날에는 사람 머리카락으로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말꼬리털, 말총으로 해요. 사실 옛날에도 처음에는 머리카락으로 뒀다가, 나중에 말총으로 뜨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총이 머리카락이랑 비슷한데, 머리카락보다는 좀 굵어요. 머리카락은 가늘잖아요. 이 말총은 그거보다 좀 굵어서 그걸 가지고 편자를 떠요. 망건은 편자 틀에 말총을 하나하나 묶고 베 짜듯이 짜요 그리고 다시 망건 고리에 묶어 망건을 뜨는거죠.

Q. 망건 하나를 다 뜨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망건을 뜨면 팔아주신다고 하셔서, 열심히 뜨면 좋겠다 싶어 부지런히 작업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하나씩 뜰 수 있었죠. 밤에도 막 하곤 했으니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예전처럼 부지런히 하지 못하니까, 한 달에 하나 정도 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품이 나오면 참 재미있어요.

|망건제작과정|



편자 짜는 과정



편자를 망건골에 묶는 과정



망건 뜨고 있는 과정

망건이 완성 되기까지 ~~~

1. 편자를 짜고
2. 편자를 망건골에 묶어 말총으로 한올 한올 백바퀴를 뜨야 한다.
3. 망건골에 다시 묶어 당을 걸어 4시간 삶아
4. 예쁘게 잘 다듬어야 한다.
5. 베로 싸개를 해서 풍장을 달고 편자를 달아 당줄을 달면 마무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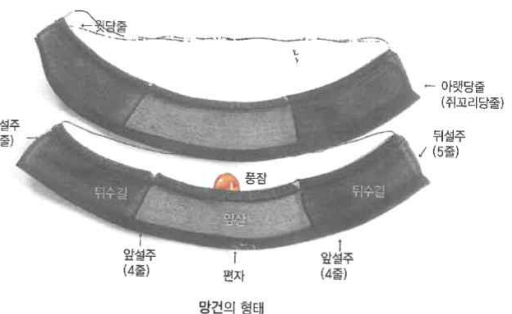
편자 다는 과정



호박 풍장 다는 과정

Q. 그럼 어렸을 때부터 바느질 같은 건 잘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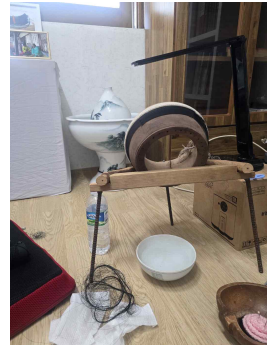
잘하지는 않았지만, 바느질은 좀 했었어요. 친정 엄마가 모시옷 같은 걸 아버지께 해드리면서 저에게도 한번 배워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한복 짓는 것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바느질은 꽤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망건 뜨기도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망건의 형태

Q. 바느질에 익숙하셔서, 시어머니가 하시던 망건 작업에 더욱 관심이 갔나 보네요?

그렇죠, 바느질은 원단을 재단하고 붙이고 다림질하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망건은 가만히 앉아서 뜨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느질보다는 훨씬 간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바느질을 했던 사람이라 앉아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망건 작업이 잘못하면 다 늘어지고 지저분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생각엔 바느질보다는 훨씬 간단해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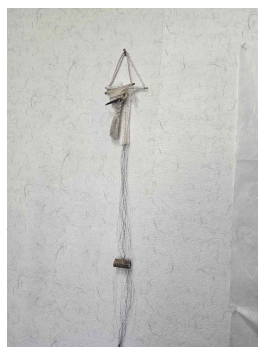


Q. 가족 중에 선생님만 망건 작업을 이어서 하시나요?

다른 며느리들은 안 하고, 저만 해요. 시어머니의 딸들도 한 명씩 조금씩 떠보기는 했지만, 완성품을 만든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작업을 이어서 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이 한번 해본다고 해서 출품도 했어요.

Q. 작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나요?

꿈쩍 않고 계속 앉아서 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몇 바퀴 뜨고 나서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앉아서 뜨곤 해요. 계속 앉아서만 못 해요. 그리고 책상에서 작업하면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니까 팔도 아프고요. 팔을 이렇게 놓고 작업하는데, 어차피 비슷하네요. 책상 하나 사야 할까 싶기도 해요.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번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작업 자세 때문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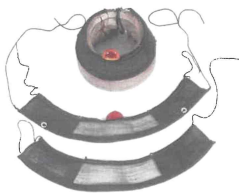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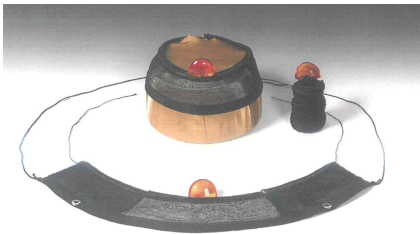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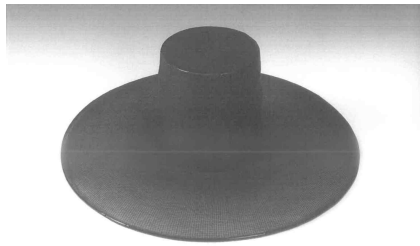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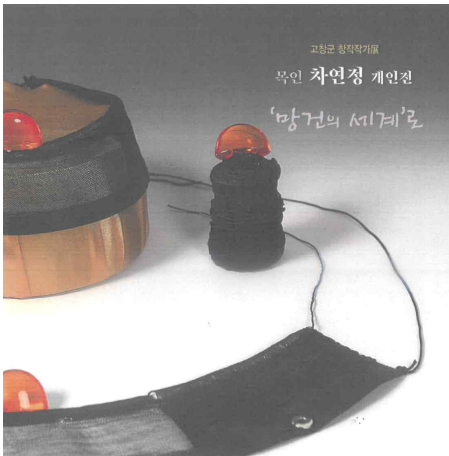


Q.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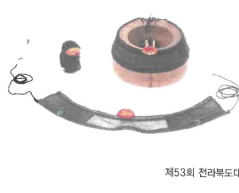
올해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어봤어요. 전시회를 해보라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해보라고 해서 이번에 한번 해봤죠. 매년 전시회를 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해야 한다면 또 하겠지만요. 그래도 막상 작품 전시할 때 기분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Q.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예정인가요?

원래 남자들만 쓰는 건데, 내가 이제 한번 창작을 해볼까 싶어요. 여자들도 잘 쓸 수 있게 망건을 만들 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현대적으로, 머리띠처럼 쓰고 다닐 수 있게요. 망건이 너무 환하긴 한 데, 한복을 입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높이 떠서 머리 위로 올라가게 하면, 딱 멋있을 것 같아요. 한복에 맞는 그 머리에 쓰는 장식처럼요. 이번 전시회 때 어떤 여자 분들이 오셔서 “진짜 좋다”며 칭찬해 주셨는데,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제25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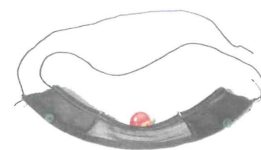
제53회 전라북도대전 입선



제4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제4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제15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특선



제19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장려상

▶ 면담일시 : 2024. 7. 21.(일) 09:30

▶ 면담장소 : 자택

이야기수집가 : 배길숙



그림책을 읽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할매가 되는 것이 꿈인 그림책테라피스트. '북꽃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이도, 어른도, 할매도, 할배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책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테라피스트이다.

최은서

- 분야: 음악(피아노)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고창
- 출생연도 : 1964년



“교육으로 피어난 음악의 하모니, 최은서 예술가”

고창에서 35년간 음악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음악적 재능을 키웠습니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통과 성장을 선물하며,
오케스트라를 통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64년에 고창읍 교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86년에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강호항공고등학교에 음악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어릴 때는 특별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교육에 열정이 많으셔서 제 재능을 발견해 주셨어요. 특히 1970년대 초등학교 2학년 때, 눈 오는 겨울날 처음으로 피아노를 접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꾸준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무렵 피아니스트의 꿈보다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여 한동안 음악을 멀리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을 통해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음악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Q 어릴 적에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창 경연대회에서 반주를 맡으면서, 음악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죠. 그때부터 나도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처음으로 데뷔한 순간은 언제였고, 그때의 기억은 어떤가요?

제가 처음으로 데뷔했다고 생각한 순간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과 함께 음악 프로그램 만들었고, 제가 피아노 연주를 했죠. 그때가 첫 데뷔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이 지역에서 음악을 연주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자체가 귀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가벼운 곡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활동 무대는 주로 고창이셨나요?

네, 거의 고창에서 생활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고창에서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창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시작했고, 35년 동안 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고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Q 선생님께서 주로 하셨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술가라기보다는 예술교육자라고 생각해요.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학생들과 음악 활동을 했고, 그들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제가 예술가로서 활동한 건 아니지만, 학생들과 함께 여러 음악 행사를 많이 했죠.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고창군의 음악 활동을 맡았고, 고창군의 여러 행사에서 브라스 밴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고창을 포함한 13개 면의 행사를 거의 다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Q 사진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지휘하시는 장면도 있던데, 그건 어떤 활동이었나요?

2010년쯤, 기존의 학교 음악 활동이 점차 사라지면서 악기와 음악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교육부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도 이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죠. 제가 그때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공모 신청서도 작성하고, 책자도 만들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창여중과 강호항공고등학교가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받아 학생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악기를 들고 마칭을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로 변화했어요. 한 80여 명의 단원으로 오케스트라를 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Q 고창군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직에 있을 때는 주로 학생들의 예술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고창군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지역민들에게 예술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꼈어요.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예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Q 고창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고창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어른들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죠. 2010년 학생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국가에서 악기를 지원해주었기에 가능했어요. 저렴한 악기를 3년간 사용하면 학생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만약 고창에 주민 오케스트라가 생긴다면, 처음 배우는 분들도, 이미 악기를 다루는 분들도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모니가 지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로 모아줄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거창한 오케스트라가 아니더라도,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은 앞으로 어떠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실까요?

저는 교육가로서의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의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육자로 남고 싶어요. 예술가라기보다는 '교육 예술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그 이름이 참 좋네요. 저는 지역민들과 함께 교육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 목표는 이 지역사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마음의 악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에서 앙상블을 만들어, 지역민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지금은 한 7명 정도로 작은 앙상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이 함께 연주하면서 고창의 대표적인 브랜드 앙상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현재 7명이 활동 중이고, 추가로 10명 정도가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고향 고창에서 60여 년을 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고, 다른 분들 역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창군과 문화관광재단이 함께 더 많은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고창에서 많은 예술인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2.(월) 16:00

▶ 면담장소 : 고창군자원봉사센터 2층 이사장실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한상용

- 분야 : 미술(서예)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48년



“전통 서예의 매력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붓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은 예술가“

고창군을 향한 무한 애정을 지닌 한상용 예술가.
본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창 신림에서 태어났고, 신림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고창중학교와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늦게 전북과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예총 고창지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Q. 서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마을에 있던 한문 서당에 다니면서 천자문과 추구를 배웠어요. 그때부터 한문에 대한 친근감이 생겼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서예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2000년에 친구 소개로 정읍에서 서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초당 이무호 선생님께 배웠고, 2009년에 세계문화예술대전 초대작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가 되었고, 그 전에 연 3회 특선으로 초대작가가 되었죠.

Q. 서예 활동에 처음 매료되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서예를 시작하면서 공모전에 입선하고 초대작가가 되면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이왕 시작한 거, 미술, 서예 대전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가 돼야겠다 싶었죠. 결국 그 꿈이 실현되었죠.

Q. 선생님의 데뷔 시점은 언제인가요? 데뷔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2년 동안 공모전에 꾸준히 참여하다가, 2009년에 세계문화예술대전에서 초대작가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한문 서예 작품이었고, 그때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꿈을 이루었다는 그 성취감이 정말 컸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 고창에서 태어나셨는데, 꼭 고창에서 거주하셨나요?

네. 꼭 고창에서 지냈죠. 다만 군대 시절에 월남에 다녀왔습니다. 1970년에 갔다가 71년에 귀국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 1년 동안 참전했습니다.

Q. 현재 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로 서예와 문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화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고, 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한국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주력은 서예와 문인화입니다.



Q.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문인화와 서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분야를 주로 작업하고 있죠. 캘리그래피는 필요할 때 활용하는 정도로 하고, 한국화도 가끔 그리곤 합니다. 문인화와 서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 어떻게 하면 서예를 잘할 수 있나요?

서예는 무엇이나 마찬가지로 다관다습(多觀多習), 다첩다습(多帖多習), 인서구로(人書俱老)의 마음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마치 국악인들이 득음을 위하여 정진하듯이 말입니다.

Q. 서예를 하시려면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몇 시간씩 작업하시는 경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작품 활동을 할 때, 특히 여름에는 집에서 글씨를 쓰다가 땀이 나면 정말 어려워요. 땀방울이 글씨에 떨어지면 그 부분이 번져서 다시 써야 하거든요. 서예는 한 획, 한 번의 먹물이 떨어져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니까요. 문인화나 한국화는 실수를 덮어서 수정할 수 있지만, 서예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예가 예술 중에서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서예하는 사람들이 피곤할 때 붓으로 문인화를 그리기도 했는데, 그게 문인화, 묵화 같은 것이죠.

Q.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서예란 무엇인가요? 혹은 서예를 어떻게 알리고, 어떤 양성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문화가 너무 서양화되다 보니, 전통 문화, 예술 특히 한문 서예가 점점 배제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붓을 잡을 줄도 모르고, 서예를 전혀 접하지 못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 2세들의 교육을 위해 학원을 만들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싶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저의 숙제입니다.



- ▶ 면담일시 : 2024. 7. 23.(화) 15:00
- ▶ 면담장소 : 고창문화의전당 2층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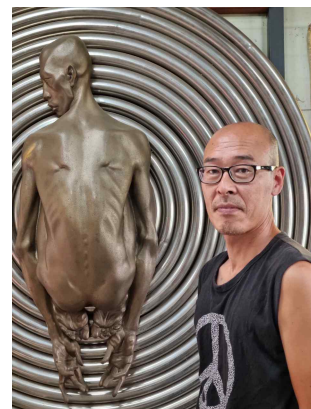


이야기수집가 : 김이화

프로 N잡러로서 다양한 길을 안내하는 취업진로 강사이자 금융 강사.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얻은 통찰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고창청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삶에 색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존재라 믿으며, 고창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이야기수집가로서 이 여정에 함께했다.

황상태

- 분야: 미술(조각)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서울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76년



“인물조각에 감정을 담아내는, 황상태 예술가 “

고창을 기반으로 인물 조각을 통해 감정을 극대화해 표현하는 조각가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감정이 느껴지는 조각을 선보이며,
고향 고창에서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예술가로서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창군 무장면에서 태어났고, 학창시절은 전주에서 보냈습니다. 원광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남양주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여러 이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 고창에서 8년째 작업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에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전주로 전학을 간 이후, 시골 생활과 전주 도시 생활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혼자서 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Q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예술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사실 미대에 갔을 때까지도 입시 미술만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군대 제대 후에 로댕의 작품을 보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흙을 만지다 보니, 흙의 느낌과 재질이 로댕 작품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구본주 작가님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분 작품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Q 언제 처음 데뷔를 하셨을까요?

딱히 '데뷔'라고 할 건 없지만, 대학교 졸업 후 남양주에 작업장을 짓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도 함께 병행하며 생활했죠.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서울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조각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작품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느꼈던 제 자화상 같은 느낌으로, '외로운 타협'이라는 주제로 만들었어요. 당시 엄청 힘들었던 제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그걸 계기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언제 다시 고창으로 오시게 되었죠?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와이프와 상의를 한 후 고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사실 처음부터 고창으로 내려올 계획은 없었고, 다른 지역도 몇 군데 돌아다니며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유난히 눈에 띄는 집이 있어서 중개업자에게 이 집을 팔아달라고 해서 결국 그 집을 사게 되었고, 그렇게 고창으로 오게 됐습니다.

Q 지금 하시는 예술활동이 어떠한 장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로 초상 조각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조각으로 표현하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 작품에 있어서는 사실적인 표현이 조금 재미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의도적으로 인물을 조금 더 없어 보이거나, 말라 보이거나, 또는 웃겨 보이게 감정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Q 자신을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만들고 작업하는 모습이 주변 예술인들에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작가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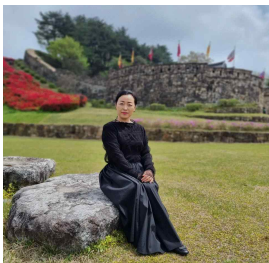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고창에 전봉준 조각상을 작업했어요. 선배가 같이 하자고 해서 농민군을 만들었는데, 다른 곳에서 했으면 단순히 돈을 받고 그만큼 일하는 거였을 텐데, 고창군에 설치된다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졌어요. 내가 사는 곳이고, 내가 매일 지나다니며 볼 작품이니까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1년 동안, 약 6~7개월을 일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고 재밌었어요.

제 작품이 유명해져서 잘 팔리기도 하고, 활동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고창군에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고창군 사람들이 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고, 고창에도 이런 예술가가 있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싶습니다.

▶ 면접일시 : 2024년 7. 12.(금) 11:00

▶ 면접장소 : 고창군 성내면



이야기수집가 : 황정민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 전통무용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학사. 고창에서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고창 예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수집가로 참여했다.

3. 6인의 무형유산 보유자, 명인, 명장 이야기

권애란

- 분야 : 미술(공예, 천연염색)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정읍), 광주광역시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64년



“자연의 색으로 인간의 정서를 연결하며 치유하는 염색 예술가!”

인간과 자연을 색으로 연결하는 고창의 천연염색 명장 권애란 예술가.

자연의 색에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색을 찾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작업에 매진하며, 지역 예술의 발전에도 깊은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문화명인 염직문양염 제22-04-25-02호로 인증되었으며 미소엘 아트 대표입니다. 자연의 천연재료, 식물, 동물, 광물 등의 염료를 이용하여 염색하는 천연염색 작가로서 자연의 4원소 공기, 물, 불, 흙과 밀접한 자연 친화적 예술활동가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색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근원적인 뿌리가 자연인데, 저는 인간과 자연을 색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색으로 표현하고, 현대인이 겪는 바쁜 삶 속에서 색을 통한 생활예술로 일상 속에서 치유와 힐링을 돕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융합 디자인 석사 과정 중이며 다양한 장르 예술과 결합하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Q. 어릴 적부터 예술적 감각이 있었나요?

저는 태고 때부터 색을 봤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한복집을 하셔서 비단 같은 천연 염색과 화학 염색을 접하며 자랐거든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색을 보고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색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Q. 색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대회에 나가면 항상 수상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미술부 활동을 하며 대회가 있으면 수업 대신 그림 연습을 했고, 자연스럽게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공예를 전공해 현재까지 색과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Q. 그림을 그리다가 염색 쪽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의 인생의 특별한 고난중에 섬유를 만났고, 염색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열망들이 색을 통해 발산되는 것 같아요. 결국 다른 길을 가다가도 다시 색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천연염색 작업에 대해 보상이나 큰 욕심이 없어요. 그저 색을 좋아해서 하고 있고, 이 색을 통해 사람들과 감정선을 나누고, 그들에게 색으로 각자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며 교감하는 일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Q. 활동 지역은 주로 어디였나요?

이전에는 미술학원,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광주, 정읍, 전주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천연염색 작업실은 고창군에 계신 엄마 곁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현재는 해외 전시 및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서 초대전시 및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전시회를 열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개인전 ‘일상의 빛이 되다’는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자연의 숭고한 조화로움으로 작가로서의 삶이 늘 설레고 보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전시 때마다 우리 전통의 색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전주대학교 60주년 초대전 융합전시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예와 결합하며 우리 전통의 색을 예술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Q. 천연염색 명인으로서의 활동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명인으로서 전통을 전승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의 색을 체험하고, 최근에는 호주에서 재즈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아랍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염색을 체험했어요. 현재는 교육청의 늘봄 학교와 연계해 아이들에게 염색 교육을 하고, 세대별 체험객과 귀농인 등 치유염색을 통한 치유디자인 전시 등 다양하게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명인의 조교 양성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의 다양성을 넓히고 전통염색의 미적 예술적 가치를 재해석하며 현대적인 기법과 재료를 콜라보한 작품을 연구하며, 홈 인테리어용품과 생활용품에 천연염색을 도입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완성시킨 신선한 라이프스타일로 제시하는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Q. 선생님이 작업하는 활동의 장르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예술문화명인 엮직문양염 제22-04-25-02호 문양을 디자인 염색하는 장르로 인증을 받았어요. 섬유 공예가로서 전통의 색을 염색하고 디자인하며 일상의 삶이 예술이 되는 장르입니다.

Q. 본인을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상 속 의식주에서 꼭 필요한 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색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느끼며 우리의 오감을 열어 삶 가운데 색에 대한 추억과 행복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연이 주는 사계절의 색들을 우리 인생과 함께 교감하며, 자연의 아름다운 색빛을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Q.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천연빛깔의 아름다운 색을 구현하고 연구하는 진정한 염색인으로 섬유공예의 차별화된 기법과 실용적인 융합예술로 천연염색의 전통성과 아름다움을 전승 보존하는 예술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염색 작업이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느껴지네요.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공예 작업은 손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스토리가 생기는 거 같아요. 저는 공예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아트가 되는 게 아니라 섬유를 가위로 자르면서 색을 담고 어떤 색이 나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주제가 나무라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색이 무슨 색인지 생각하죠. 식물 뿌리에서 색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 얼마나 오랜시간 자연의 에너지를 받았는지 상상하면서 자연의 숭고함 자체가 아트라고 생각해요.

Q. 작업 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작업할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색을 염료로 끓여놓고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먹어본 거예요. 자연 염료라 별탈이 없었죠. 가끔은 색을 보고 설렘 때도 있어요. 어떤 풍경을 보면 그 색이 작품으로 이어지고는 해요. 손가락이 뻘뻘해질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하죠. 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치자를 염색해서 아이들과 함께 널어놨는데, 치자 향에 벌과 나비가 날아와서 그 모습을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인간이 자연과 한 몸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에게 색과 자연의 진실함을 전달할 수 있다는게 정말 보람이죠.



Q. 어떤 활동을 할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최근의 작업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색을 통해 자연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아요. 어른들 수업도 재미있지만, 어린이들이 가슴과 정서를 표현할 때, 자연의 색을 알게 되면 새로운 감정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람이죠. 고창의 자원 해리면 삼양사 소금으로 고창의 갯벌을 표현한 작품은 소금을 활용해서 우리 고창의 특별한 풍경을 염색했고, 모양성 돌담 위에서 바라본 방장산 숲의 풍경을 쪽 산수화 풍경으로 염색한 작품 활동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앞으로의 목표는 고창의 미술사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술협회의 직무를 내려놓더라도, 고창 공예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어요. 고창 공예를 차별화시키고 훌륭한 작가님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 고창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손끝을 지니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고창의 아름다움을 염색으로 많이 알리며, 자연에서 얻어지는 지혜, 정서, 교감의 가치를 인식하는 천연염색 명인의 사명감으로 미래의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면담일시 : 2024. 7. 25.(목) 11:00

▶ 면담장소 : 미소엘 공방



이야기수집가 : 배길숙

그림책을 읽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할매가 되는 것이 꿈인 그림책테라피스트.

'북꽃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이도, 어른도, 할매도, 할배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책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테라피스트이다.

김영남

- 분야 : 미술(공예, 천연염색)
- 활동지역 : 전북(고창), 전북(군산), 서울 등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58년



“전통과 자연의 색을 연구하며, 천연 염색으로 우리의 문화와 감성을 이어가는 예술가”

자연의 색으로 전통을 잇고, 천연 염색을 통해 고창의 문화를 알리는 김영남 예술가.
소의 계층을 위한 교육 활동에도 힘쓰며,
지역 특화 상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연애 천연염색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남입니다. 2007년 자연애를 설립하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천연염색 저변 확대와 산업화를 위한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염색장 이수자이며, 국제 문화예술 천연염색 명장으로 지정을 받아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보존을 위한 전승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지도사 자격증 인증과 전문가 양성과정 지도사 배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 특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목우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Q.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지는 근검절약을 실천하시고, 예의와 나눔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어요.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 하시며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으셨고, 학교 육성회장을 맡으시며 교육열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그 시절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마을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가족은 부모님께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인자하시고 특히 음식 솜씨가 좋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언제나 현모양처로 살아오셨고, 절기마다 마을에 음식을 나누시며 베푸셨어요. 우리 집은 항상 부모님의 인자함 덕분에 음식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검하시고 인자하신 부모님 덕분에 항상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좋으셨던 부모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가다듬게 됩니다.

Q. 고창군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제가 자란 곳은 고창군 무장면 목우마을이에요. 마을은 성송면과 아산면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저는 아산면 남산리에 있는 석곡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논, 밭을 지나 냇가를 건너야 했어요. 다리가 없어서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갔죠.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당시에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나 장마철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비가 많이 오면 냇물이 넘쳐서 들판도 물에 잠겨서 길도 징검다리도 사라져 바다가 되고는 했어요. 장마철이 되면 학교에서 방송으로 “목우마을 학생들은 오늘 학교에 오지 마세요.” 라고 알리고는 했어요.

어린 나이에 입학 하기도 했지만 몸이 약해 집에서 일하시는 분 등에 업혀서 학교에 간 적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물살에 휩쓸릴뻔한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아련한 시절이죠. 어떻게 그 길을 매일 걸어 다녔는지 신기하기도 해요. 당시에는 언니나 오빠들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자연스럽게 다녔던 것 같아요.

Q. 학교를 다니던 시절 생각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세요.

저는 또래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갔어요. 7살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 시골에서는 보통 8살에 학교에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때로는 9살이나 10살에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군산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계셨었어요. 아버지가 오빠의 공부를 위해 선생님들을 모셔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학교를 빨리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께서 아코디언을 연주해 주신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 저와 형제들이 노래하고 율동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골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예술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그때 아코디언 소리는 아직도 제 마음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중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깨비’를 봤던 무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여중학교 입학을 하고 어머니께서 저희를 데리고 읍내 ‘은하수 양장점’에서 교복을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광신 양화점’에서 가죽 단화도 맞춰 주시고는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시절에는 구두를 신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구두를 맞춰 주시며 읍내에 사는 학생들에게 “기죽지 말고 다녀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Q. 다복하게 자라셨네요.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형제는 2남 5녀로, 저는 셋째 딸이에요. 예전 어른들께서는 아들 선호 사상이 많아 아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시대인데 우리는 딸이 다섯이나 되었지요. 부모님께서 아들을 낳으려고 자식을 많이 낳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영남’”이라고 지으셨고, 동생은 ‘현남’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에요. 저의 이름도 처음에는 바꿀 역자를 썼다고 하고, 동생은 나타날 ‘현(現)’에 사내 ‘남(男)’자를 써서 ‘현남’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형제가 많아서 어린 시절이 정말 다복했어요. 늘 집안이 북적였고 서로 도우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저는 셋째 딸이라고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아 왔던 기억이 나며, 지금은 저 혼자 고향에 남아 있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릴 때의 정이 많아서 지금도 저희집은 가족들끼리 자주 연락하고 지내죠.

Q. 학교를 마치면 어떤 일과를 보내셨나요?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께서 농사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새참을 가져다 드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외에도 고창에서 언니와 함께 자취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일과를 정리하고, 가정 과목 숙제로 자수를 놓는 일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언니가 저보다 손재주가 좋아서 자수를 놓는 일도 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를 닮아 솜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때 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엄마 같은 우리 둘째 언니입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꼭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의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 옷은 내가 직접 만들어 입고 싶다고 다짐했었는데, 아직 그 꿈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의상이나 예술, 색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죠.

Q. 천연염색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천연 염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마침 제가 고창에 있는 교육발전연구소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 연구소에서는 지역 학교 선생님들과 정보 교환과 연구 과정을 진행했는데, 특히 ‘교육자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회교육을 제공했죠. 그때 저는 “평생학습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동국대 정덕희 교수님의 특강을 들었는데, 그 강의가 제게 큰 감명을 주었어요. 당시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깊이 와 닿았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뭘 하면 재미있을까? 뭘 하면 보람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널려 있던 자연 속 재료들 쪽이나 모싧잎 같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염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몰랐죠. 그런데 어릴 적, 마당에 있던 황매화나 쪽 식물들로 손수건을 두들겨서 물들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천연 염색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염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흥미로웠어요. 천연염색 관련 정보를 찾게 되었고 공부가 시작 되었습니다.

Q. 본격적으로 천연 염색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이 궁금해지네요.

천연 염색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에,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에서 천연염색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바로 신청했죠. 그런데 수강 시작일이 다가올 때, 전라북도 사람이라서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하고 싶었기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그때 마침 친구가 나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수업을 마치고 친구 이름으로 수료증을 받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연 염색을 처음 접하게 되었죠. 염료를 끓여서 염색을 할 때마다 색이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매염제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색이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렇게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며 아름다운 천연 염색의 매력에 빠져 들었고, 그 과정에서 동신대학교의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이 권유로 대학원 예술학과에 입학하여 천연염색 전문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토대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 되었습니다. 천연염색 실습실에는 다양한 실험도구가 있었고 실습을 통한 결과물은 신기루였습니다.

교수님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토대로 새로운 공부가 시작 되었고, 교수님들의 지도로 공모전에서 처음으로 출품한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마흔이 넘는 나이에 꿈을 향해 노력하셨네요. 느즈막히 새로 시작한 공부는 어땠나요?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주부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때부터 새로운 길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천연염색을 배우기 위해 나주로 다녔는데, 그 시절엔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어서 고창에서 나주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 했어요. 광주를 거쳐 송정리로 가서 나주에 도착해야 했으니깐요. 매번 그 길을 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더 집중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했지만, 그 열정 하나로 열심히 배우고 달려왔죠. 공부가 시작되었지만 졸업 논문을 준비하지 못해 오랜 시간 졸업이 지연 되었습니다. 입학 후 5년간의 수학의 시간이 지나고 지역의 특산품인 복분자를 활용한 ‘복분자 색소의 견적물 염색성’ 이라는 논문이 통과되어 예술학 석사를 부여 받아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 이후 모교의 첫 강단에 섰던 영광은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녹여주는 기쁨이었죠.

Q. 현재 하고 있는 예술활동에 처음 매료되었던 순간이 기억나실까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연염색 중에서도 특히 ‘쪽’은 정말 신비로운 염료예요. ‘쪽빛 하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쪽에서 나온 색이고 인디고 블루에서 유래된 거예요. 쪽앞에 있는 인디칸이라는 물질에서 나오는 인디고 색은 정말 형용하기 어려운 천연의 빛깔이죠. 저는 2004년에 국가무형유산 염색장 장인이신 정관채 선생님을 처음 뵙고 쪽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나주의 선생님 마을에는 논과 밭에 쪽을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한여름 선생님 마을에서 농사지은 쪽을 분양 받아 쪽을 베어 “니람” 만드는 수업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고무통에 10개를 사서 쪽을 베어 얹히고 조개 껍질을 구워 석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생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전통 쪽 니람 만드는 연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일행 중 한명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때부터 쪽으로 니람을 만드는 과정과 환원 과정을 배우면서 신비한 그 색에 완전히 매료 되었죠. 쪽의 색깔은 마치 하늘과 바다를 담아낸 듯한 깊이와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쪽은 제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 매력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요.



Q. 매력적인 쪽 염색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쪽은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내 성장하게 됩니다. 신선한 쪽잎에는 인디칸 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쪽 색소 추출은 쪽의 꽃봉우리가 하나씩 올라올 때 수확을 하여 항아리에 물을 부어 담가 12~24시간 정도 인디칸 색소를 추출합니다. 색소 함량은 쪽의 꽃봉우리가 올라왔을 때 가장 색소 함량이 최고입니다. 쪽물에 담긴 색소인 인디칸 색소를 추출 한 다음 소석회를 넣고 교반을 하게 되면 커다란 청색의 꽃 거품이 일고 산화 및 침전을 시키게 됩니다. 침전물에서 상등액을 제거 하면 진흙 형태의 “니람” 이 됩니다. 니람은 진흙 형태의 쪽을 말하며 이것을 발효에 이용하게 되어요. 쪽물의 발효는 불용성인 인디고를 수용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환원이라고 하며, 환원 과정은 갯물에 니람을 풀어 미생물을 이용하여 환원 상태로 만들어야 쪽물이 생성되면 비로소 쪽 염액이 만들어지고 쪽 염색이 가능합니다. 쪽빛 하늘, 쪽빛 바다를 상징하는 연한 하늘색부터 밤하늘의 검은 빛인 감청색까지 낼 수 있습니다.

Q. 색에 대해 강하게 매료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천연 염색에 대한 매료는 제가 자라온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천에 있는 자연의 것들이 전부 물이 들어지는 걸 보고 자랐죠. 예를 들어, 풀밭에 앉아만 있어도 옷에 물이 들고, 익지 않은 뽕은 감을 따 먹고 나면 입술이나 티셔츠에 감물이 배어들고 잘 빠지지 않았어요. 또 마당에 오디나 매화 같은 걸 심어놓으면,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입술이 보라색으로 물들고, 손수건에도 물이 들었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쪽이나 치자 같은 것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이런 자연 속의 물들이 그저 일상의 일부였지만, 나중에 천연 염색을 시작하면서 그 기억들이 소중한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린 시절 황매화꽃을 따서 찢어보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당시엔 ‘친환경’이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자연과 소통하며 살아온 그 경험들이 천연 염색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천천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천연 염색에서 나오는 색들은 정말 은은하고 아름답지요. 화학 염색에서 나오는 색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데, 천연 염색의 색은 부드럽고 조화를 이루거든요. 색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보면 볼수록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요. 천연 염색이 가진 그 고요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이 저를 계속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Q. 선생님이 목에 두르신 은은한 색감의 천연염색 스카프에 눈이 갑니다. 이런 색감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색깔들이 참 은은하고 자연스럽죠. 천연 염색의 매력이 바로 그런 점에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천연 염색을 접하면, 화학 염색과 비교해서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화학 염색은 간단하잖아요. 분말 염료와 물만 있으면 원하는 색을 몇백 장, 몇천 장씩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죠. 하지만 천연 염색은 그게 어렵습니다. 같은 색을 낼 수 없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천연 염색은 항상 자연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감물로 염색할 때, 감에 들어 있는 타닌 성분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햇볕을 받으면 색이 더 깊어져요. 감물색도 지역, 즉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강원도에서 자란 꽃, 제주도에서 자란 꽃, 고창에서 자란 꽃이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요. 똑같은 염료, 똑같은 무게를 사용하더라도 재배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또 쪽 염색도 마찬가지로, 햇볕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영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색소 함량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색이 달라져요.

그리고 염색하는 사람의 기술, 작업 과정에서 반복하는 횟수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같은 염료로도 매번 다른 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연 염색의 매력이에요. 하나의 염료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색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Q. 천연염색에는 어떤 기법들이 존재하나요?

천연염색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크게는 ‘침염’과 ‘날염’으로 나눌 수 있죠. 침염은 염액에 천을 담가서 염색하는 방식이에요. 염색을 하고 매염제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양염 기법이 있어요. 문양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방염’이라고 해요. 방염은 찰쌀과 미가가루를 반죽하여 끓여서 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석회가루와 콩가루를 반죽해서 문양틀에 바르는데, 호가 마르면 염액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죠. 나중에 물로 씻어내면 그 부분이 문양으로 남게 되어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하는 염색 기법입니다. 반대로 문양을 넣고 염색했던 부분에서 색을 빼내는 기법도 있어요. 원하는 디자인을 넣고, 그 디자인에 따라 색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또한 파리핀이나 소이왁스를 이용하여 문양을 나타내주는 방법 등 이렇게 다양한 기법을 통해 천연염색은 각각의 작품마다 다채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통 문양뿐만 아니라 회화적인 요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기법들의 매력이죠.

천연염색은 사실 과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매염제를 사용하거나,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을 통해 염색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Q. 염색작업이 예술적 영역이면서도 과학적이네요. 어릴 적 과목에서 과학도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과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호기심과 탐구력이 좋은 특별한 아이들이었죠. 저는 그보다는 국어나 음악에 더 흥미가 있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서는 가정 과목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꼈어요.

Q. 작업실 주변에 나무가 참 많아요. 직접 관리하시나요?

제가 교사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편은 교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했어요. 이 공간은 원래 남편의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곳인데, 남편은 이곳을 수목원처럼 잘 꾸며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37년 동안 이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으며 가꾸어 왔죠. 그런데 생각보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수목원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은 블루베리와 쪽 농사와 염료 식물 몇 가지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장 안의 나뭇잎들은 에코프린팅 염색에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같은 공간에서 저와 남편이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어요. 남편은 주로 농장일과 쪽을 키워 주고, 나뭇잎 만드는 일을 도와 주시고 저는 염색작업과 교육을 하면서 서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Q. 남편 분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희 남편도 고창군 출신인데, 사실 초등학교 선배였어요. 다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당시엔 잘 몰랐죠. 남편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전주로 전학을 가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다시 고창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이후 대학은 멀리 제주도에서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서로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죠. 저희가 알게 된 건 남편이 군대 생활 중에 휴가를 나왔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해병대 ROTC 장교로 중위를 달고 제주대 학군단에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여 모교인 영선고등학교 교사로 첫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딸이 시골로 시집가야 했기 때문이죠. “내 딸 손톱 밑에 흙 안 묻히겠다.” 하시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게다가 남편이 집안은 중가집이고 큰아들이라 책임감도 크고, 시골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 형제 중에서 저만 여기 고창 시골에서 살아요. 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나중엔 제가 부모님과 가까워서 살게 되니 좋아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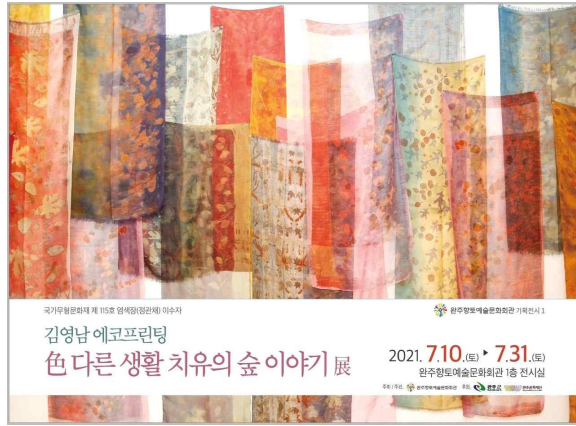
Q. 20년 넘게 염색작업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이력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20년을 이 길을 걸어왔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후회되지 않아요.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규방공예를 많이 접했었어요. 바느질이나 규방공예 쪽으로 권유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규방 지도사 자격증도 땀지만, 저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염색은 염색하는 사람이,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봉제는 봉제하는 사람이 각각 해야 결과물이 더 완성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바느질이나 공예는 깊이 있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간단한 파우치나 주머니 만드는 정도만 가르쳤죠. 염색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수자도 되고, 명장도 됐고, 문화예술 교육사나 노인 미술 지도사, 컬러테라피 상담사 등 자격증도 다 땀어요.

처음에는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정관채 선생님과도 별개의 기관인데, 나주에서 2006년에 설립된 문화재단이죠. 천연염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였어요. 저는 나주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과 인연이 닿았고, 졸업 전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 대학원에 다닐 때는 논문을 쓰거나 학위를 따서 강의를 하려는 욕심이 없었어요.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공부는 좋아서 한 것이었죠. 염색을 배우는 것도 그냥 즐거워서 한 거였고요. 사업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천연염색 분야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천연염색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었거든요. 몇몇 장인들이나 공방에서 조금씩 배울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찾았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됐죠.

미술 대전에 출품도 하게 됐는데, 처음 낸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 기뻐요.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 분야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천연염색이 미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경험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겼죠. 이후에도 여러 공모전에 작품을 내면서 입선도 하고, 특선이나 동상,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연염색을 알리는 일에 힘썼고, 졸업 전에 나주시 재단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천연염색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Q. 염색 관련 교육은 언제부터 직접 하셨나요?

이수자가 되기 전부터 강의를 했어요. 처음 강의를 시작한 곳은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현재는 천연염색 문화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곳에서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맡게 됐어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과정을 제가 많이 맡았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주로 교육 활동을 했고, 고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2009년부터는 천연염색 문화재단 자격관리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천연염색전문가 지도사 자격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매년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군장대학교 패션 산업과 특임교수로 재직하여 천연염색 디자인, 천연염색 기법과 실무, 상품 디자인 교과목으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천연염색 이수자가 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관채 선생님을 2004년에 처음 만나면서 전수관에서 진행하는 전승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전수관의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들을 연차적으로 이수하면서 오랫동안 선생님과 함께하며 배웠죠. 2016년까지는 보유자 선생님의 추천을 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실적과 현장에서의 활동을 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그동안의 전승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해서 100페이지 정도 준비하고, 현장에서 니람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죠. 심사위원분들이 오셔서 질의응답도 하고, 그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2017년에 이수자가 되었어요.

Q. 천연염색으로 활동을 시작한 데뷔 시기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연염색을 처음 접한 건 제가 45세였던 2003년이예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건 2006년이예요. 그때 이 공간 자연애를 설립하면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2010년에 전문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사이 꾸준히 교육 활동도 이어왔어요.

Q. 그렇다면, 데뷔 작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상을 받은 작품은 2005년에 출품한 작품이었어요. 순천 미술대전에서 섬유공예 부문으로 우수상을 받았죠. 작품 제목은 “흐름”이었고, 그 작품은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작품이기도 했어요. 염색 기법은 침염기법을 사용했고, 컬러는 적색, 황색, 청색 세 가지 계열로 그라데이션을 넣어 표현했어요. 옥사에 천연염색을 한 후, 올 폴림 형태로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하드보드지에 콜라주 형태로 액자 작품을 완성했죠. 당시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척 설레었어요. 교수님의 추천으로 출품하게 되었고, 첫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게 되니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때의 두근거림과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도 그 첫 작품을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Q. 요즘은 주로 어떤 작품(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2006년에 고창 천연염색 체험장 <천연염색 문화공간 자연애>를 개관했어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2009년에는 천연염색 지도자 자격증 양성 교육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2013년부터는 새로운 기법인 에코프린팅 염색을 도입해서 천연염색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2019년에는 에코프린팅 기법으로 대한민국천연염색 문화상품 대전에 출품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어요. 대만에서 열린 국제교류전에도 참여해 작품을 전시하고, 에코프린팅 워크숍도 진행했죠. 그때 한국의 에코프린팅을 널리 알릴 수 있었어요. 또 <에코프린팅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공동 출간했고, 출판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도 했어요. 2021년에는 ‘김영남의 에코프린팅 색(色) 다른 생활이야기전’이라는 전시를 열었고, 고창문화의전당과 완주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해 나주 영산강 축제에서는 에코프린팅 기법으로 원삼을 제작해 아트 패션쇼에도 참석했죠. 또한 보물로 지정된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의 전통 문양을 재해석해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도 개발했어요. 에코백, 파우치, 스카프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을 만들며 자연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22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뭇즈상품” 공모전에 선정되어 우리 지역의 문화상품이 박물관 상품으로 입점하는 영광을 누렸고, 2023년에는 고창군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현재는 식물성 가죽인 한지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지의 특성과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한지 가죽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뭇즈상품에 선정되었고,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에서 특선도 받았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목표는 전통을 이용한 전승활동 전개입니다. 천연염색을 통한 전통염색의 저변확대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연구와 보존을 위한 끊임없는 전승교육 활동 전개를 이어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천연염색 문화활동’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천연염색 보급 활동과 우리 전통문화 전승활동으로 재능기부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천연염색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오랫동안 꿈꾸어 온 전통문화 복합 공간인 전통공예 생활 공예관을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에 관련된 공예에 관심을 보이지만 일시적인 취미로만 접근하는 점과 지역 공예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부재가 아쉬워요. 지역 공예가들의 작품들을 한 공간에서 교육,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작가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호흡하며 공감할 수 있는 생활 공예관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Q.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나요?

네, 2023년에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했어요. 예술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작품 활동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2023년 고창 치유문화축제에서는 “치유의 색을 담다”라는 주제로 천연염색 설치전도 진행했어요. 이 전시는 천연염색을 통해 색의 치유적인 면을 표현하고, 지역민들과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 작품에 늘 전통을 스며들게 하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전통을 담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 에코프린팅이라는 기법은 사실 전통과는 크게 맞닿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각보를 결합한 ‘조각보 에코프린팅’을 연구하여 제가 직접 이름을 지은 기법이에요. 이 조각보는 예로부터 우리의 염원을 담은 상징이잖아요. 가족의 안녕, 행복, 건강을 기원하며 만든 것이죠. 저는 이 전통적인 의미를 에코프린팅에 녹여내고 있어요. 색색이 염색된 조각 원단을 에코프린팅 작업에 활용해서 조각보 형태의 색감을 담아내고, 그걸로 가방이나 파우치, 스카프, 옷 등을 만들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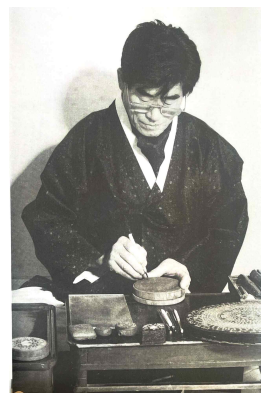
저는 항상 ‘온고지신’이나 ‘범고창신’ 처럼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전통을 연구하고, 작품 활동으로 실용적인 상품들을 개발하는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 상품들을 만들면서 고창의 색과 이미지를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창의 금동신발에서 나온 문양 하나만 풀어도 많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죠. 이렇게 지역의 전통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변환해서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전통이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더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빛날 수 있는 별처럼 남기를 바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전통을 전해 주고, 일상 속에서 전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 ▶ 면담자 : 강현정, 김다희(공공문화연구소 연구원)
- ▶ 면담일시 : 2024. 7. 16.(화) 10:50
- ▶ 면담장소 : 공방 ‘자연애’ (고창군 무장면 목우월평길 35-11)

김종대

- 분야: 미술(공예, 윤도)
- 활동지역 : 전국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33년



“고창 낙산마을에서 400여 년 동안 전해진 가업을 잇는 김종대 윤도장”

가난한 시절에도 손재간과 열정으로 윤도를 만들어 명성을 쌓았고,
결국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으로 인정받으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지킴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윤도는 단순한 나침반을 넘어 동양 철학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아들과 손자까지 5대째 이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세대를 잇는 명예 국가무형유산인 김종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고창 낙산마을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내가 출생신고가 늦어져서 호적에는 1934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933년생이 맞아. 닭띠야. 우리 아버지, 김영근(1912~1995)이 아들로는 나 하나였지. 내가 맏이였고, 밑으로는 딸들만 줄줄이 태어나서 나만 독자였어. 여동생들 이름이 삼숙이 이런 식이었어. 마지막이 오숙이였고. 그래도 딸만 낳는다고 그 만둔 건 아니었지. 아버지는 예능 쪽에 소질이 있었어. 음보를 모르면서도 시조를 잘했고, 양금을 능숙하게 연주했지. 음을 외우고 시조를 맞춰서 연주했으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

어머니 김계월(1915~2006)은 나를 무척 사랑하셨어. 독자라고 해서 어디 나갔다가 늦게 오면 늘 걱정하며 기다리셨지. 딸이 다섯인데도 딸 생각은 거의 안 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들인 나만 생각하셨지. 나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아버지는 날씬하고 예리한 느낌이었고.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 마을이었어. 우리 집이 마을 입구에 있었고, 바로 옆에는 둘째 백부 김정의 집이 있었어. 위아래로 붙어 있었지. 건너편에는 셋째 백부 김준의가 살았고, 큰 백부 김정근은 은골에서 살았어. 은골과 낙산은 같은 동네로 여겨졌어. 우리 할아버지 김권삼(1866~1944)이 아들 넷을 두셨는데, 그 아들들이 모두 같은 동네에 살았지. 그 후 둘째 백부가 돌아가시면서 제중형님이 서울로 가고, 우리도 그때부터 아래쪽으로 이사왔어. 그전에는 마을이 100호가 넘을 정도로 컸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60호 남짓 남았을 거야.

걸어서 왕복 26Km를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 3학년(24살)때 결혼

아버지가 배움을 제대로 못 해서 아들에게는 꼭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까지 다녔지. 정읍에 있는 호남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학교까지는 13km 정도 돼. 가난했기 때문에 하숙을 할 수 없어서 매일 통학을 했어. 걸어서 학교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버스를 타면 30분도 안

걸리지만 버스 타는 돈도 없었고, 버스도 자주 안 다녔어.

호남고등학교 4회 졸업생이었어.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남자 셋, 여자 하나, 넷밖에 없었어. 학교 다닐 때 새벽에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 보리밥을 싸서 먹고 학교가 끝나면 또 걸어서 집에 왔지.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 집에 오면 호롱불 켜고 공부했는데, 전깃불이 없어서 석유불이나 들기름으로 만든 등잔을 사용했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쟁이 끝나고 24살에 결혼을 했어. 당시엔 연애결혼이 아니라 중매로 했지. 나는 아내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 어른들이 사주단자라는 승낙서를 받아오면 그걸로 결혼 날짜를 정했지. 결혼식은 처가집에서 했고, 족두리 쓰고 사모관대 입고 전통혼례를 올렸어. 결혼하고 나서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주말마다 집에 왔어. 보고 싶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손재간이 있어서 어깨너머로 윤도를 배우다.

어렸을 때부터 백부가 윤도를 만드는 모습을 계속 보며 자랐어. 백부는 자신의 아들에게 윤도를 가르치려 했지만, 아들이 소질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자꾸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으니, 백부가 “내가 죽으면 네가 이걸 이어가야 한다.” 고 하셨어. 그 양반이 돌아가신 뒤로 내가 윤도를 인수받았지. 이 윤도라는 것이 우리 마을에서 350년 넘게 내려온 가업이거든. 처음에는 전씨 성을 가진 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한씨가 이어받고, 서씨가 한 차례 맡다가 다시 한씨에게 돌아갔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맡으시고, 백부에게 넘겨주셨지. 그 후로 우리 집안이 4대째 이어오고 있어. 지금은 나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5대째 이어가고 있지.

백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22살쯤이었어. 할아버지가 백부에게 “너는 아들보다 조카를 가르쳐라”고 했던 게 기억나. 백부가 나를 참 예뻐하셨지. 내가 심부름도 자주 해드리고, 손님 오시면 물도 떠다 드리고 하니까 백부가 나를 귀여워했어. 어렸을 때부터 손재간이 있어서 장판도 깔고 도배도 직접 했거든. 그런 걸 보면 백부가 참 기뻐하셨어.

백부는 윤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에게 이것저것 시켜보셨어. 나무 다듬는 일, 톱질 같은 걸 시키면서도 잘한다고 칭찬해주시곤 했어. 나는 그게 재미있었어. 한 글자라도 더 새겨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지. 아버지도 “잘 배워라, 눈여겨보고 배워야 한다”며 늘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한학 서당에 다니며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배우기도 했어. 윤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한자가 중요했거든.

어깨너머로 윤도를 배웠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았어. 특히 각자 작업이 그랬지. 백부가 자꾸 해보라고 시켜서 연습했는데, 정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 바늘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 처음엔 칠하는 단순한 작업만 했고, 윤도를 만드는 본격적인 작업은 어려워서 못 했어. 게다가 당시 윤도를 만드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고치러 오는 사람이 많았어. 백부가 돌아가신 후 본격적으로 윤도 제작을 이어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배운 것을 토대로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갔지.



〈1950년대 말(추정), 둘째 백부 김정외〉

윤도 하나에 집 한채, 6·25 전쟁 전까지 윤도의 전성기

그때 당시 윤도는 팔로가 굉장히 많았어. 지금은 화장 문화가 자리 잡아서 묘지를 잘 안 쓰지만, 그때는 명당에 묘를 쓰거나 집터를 정할 때 윤도가 필수였지. 명당에 묘를 쓰면 자손이 잘 살고 큰 인물이 나온다고 믿었거든. 그래서 윤도를 가지고 집터나 묘지 자리를 고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

윤도 하나 만드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 지금은 기계로 나무를 깎기도 하지만, 그때는 전부 손으로 했거든. 사두로 치고 나무를 통째로 들고, 그러니까 온전히 손으로만 작업했지. 각을 음각으로 파는 작업도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웠어. 도장은 양각으로 새겨서 빼쪽하게 나오게 하는데, 윤도는 반대로 들어가게 파야 했으니까 시력이 좋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어.

윤도 하나 팔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쌌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못 냈지. 그 당시만 해도 윤도가 굉장히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거든. 농사짓는 사람들이 2백 평당 2섬 정도 양식을 얻어서 근근이 먹고 살았던 시절이었으니까, 윤도 하나 팔아서 나락 몇 섬 받으면 그건 엄청난 거였어. 집 한 채 사려면 3~4섬이면 충분했으니, 윤도 한 개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지.

백부가 그런 윤도를 만들면서 동네에서 부자로 살았어. 윤도 하나 팔면 집이 생기니까. 6·25 전쟁 전까지는 윤도가 정말 큰 대우를 받았고, 그 시절이 윤도의 전성기였지. 백부가 돈을 많이 벌어들였던 것도 다 윤도 덕분이었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조각을 잘 배워서 저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백부는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아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어. 그때 나는 백부가 시키면 잘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넘쳤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윤도를 잘 익힐 수 있었어.



종형(김종길) 덕분에 윤도 기술을 이어받다.

우리 큰집의 종형, 김종길(아명 종관) 형님이 계셨지. 나하고는 20살 차이가 나고,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세 살 정도 적었을 거야. 왜정 때 성내국민학교 1회나 2회 졸업생이었고, 백부하고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 종형은 백부에게 윤도를 배웠지. 나는 어렸을 때 백부 밑에서 치목이나 조금 돕는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종형이 윤도를 많이 만들었어. 종형이 한학을 많이 배워서 글씨를 잘 알고, 글씨도 정말 잘 썼어. 그분 덕분에 내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지.

종형하고 나는 성격도 비슷했어. 둘 다 말주변이 없어서, 말은 잘 안 하고 그냥 작업만 했지. 한 5~6년을 종형이랑 같이 일했어. 그러다가 내가 나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종형이 내가 만든 걸 보고 엄청 놀라셨어. 그렇게 잘 만들 줄은 몰랐다고 탄복하셨지. 하지만 얼마 못 가 종형이 “70살 넘으니 눈이 안 보여서 더는 못 하겠다” 하시며 나에게 일을 넘기셨어. 이 작업은 시력이 나빠지면 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윤도를 이어받게 된 거지.

종형에게 일을 이어받았을 때, 사명감은 있었어.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어려움이 많았어.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종형한테 가서 물어보고, 종형이 가르쳐주면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 종형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분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담도 컸어. 그래서 더 잘하려고 연구를 엄청 많이 했지. 계속 만들어 보고, 또 고치고 하면서. 제대로 만 들기까지 5~6년은 걸렸던 것 같아.

손님들은 다 좋은 윤도를 가져가려고 하지, 미흡한 건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완벽한 것을 만 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

농협에 근무하면서 윤도 제작을 겸하다.

내가 한 27살인가 28살쯤 됐을 때여. 그때는 윤도를 넘겨받기만 하고 본격적으로는 안 했어. 내가 그때 농협을 다니고 있었거든. 농협에서 한 10년 일하다가 발령을 받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제. 독자였으니까, 여동생 다섯에 나 혼자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그만두라”고 하셨지. 군대 갔다 와서도 농협에 계속 다니다가, 한 52살쯤 됐을 때쯤 농협을 그만두고 윤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여.

그때 내가 농사를 지을지,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취직할 자리도 없고, 남들은 농촌지도소 같은 데 들어가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데도 못 들어갔거든. 그래서 성내 단위조합, 농협 연쇄점에 들어갔지. 요즘으로 치면 큰 슈퍼 같은 곳이야. 거기서 지배인으로 일했제. 문방구, 식품, 의류, 잡화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판매원도 네 명이나 됐어. 근디 내가 상업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일반 인문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부기 같은 걸 몰라서 많이 답답했어. 그래도 거기서 배우고, 연수원도 다니면서 겨우 배웠제. 그렇게 농협에 다니면서도 백부한테 윤도 만드는 걸 보러 자주 다녔어. 백부가 나보고 “잘 한다”고 자꾸 칭찬을 해 주니까, 그 칭찬에 욕심이 생겨서 더 배워보려고 했지. 기술을 인정받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배워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제. 백부가 도구를 넘겨준다 하니까 더 배우고 싶어지고, 그 욕심이 참 많았어. 그렇게 농협 그만두고 나서야 윤도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여.

농협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윤도를 시작

농협에서 오래 댕기다 보니 장기근속자라고 다른 데로 발령이 딱 나더라고. 신림 쪽으로. 그때 내가 농협에 다니면서 젖소를 키웠거든. 아들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상황이라 학비를 대야 했는데, 농협 월급으로는 턱도 없지. 그래서 농협 다니면서 아버지랑 안식구랑 같이 젖소를 키웠어. 새끼도 낳고 우유도 짜서 수익을 맞췄지. 젖소 키워서 얻은 수익이 꽤 컸어. 덕분에 애들 셋을 대학까지 보냈거든.

근디 농협을 계속 다니면 젖소도 더 이상 못 키울 상황이 왔어. 통근할 수가 없었거든. 부모네들이 “가지 마라, 그만둬라”고 말리더라고.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해버렸지. 새로운 발령지에 가서 하숙을 할 수도 없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서 집도 얻어줘야 하는데, 그게 제일 큰 고민이더라고. 그때는 아직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아니었으니까, 걱정이 많았어. 저녁마다 잠도 안 오고 말이여.

그러다가 8층짜리 윤도를 처음 만들고 나서 자신감이 팍 생겼어. 농협 그만둘 무렵에는 윤도 주문도 꽤 들어오고 있었거든. 처음에는 3층짜리 작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팔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다음엔 신광사 스님한테 8층짜리 큰 윤도를 하나 팔았는데, 그때 한 50만 원 받았어. 그 윤도를 만들면서 진짜 ‘아, 나도 이제 이렇게 큰 거 만들어서 팔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지. “이제 누구한테 도움도 안 받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더 연구도 하고, 글자도 더 예쁘게 파고, 나침도 더 잘 놀게 만들려고 했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안식구도 엄청 기뻐하더라고. 왜냐면 백부가 윤도를 만들 때 돈을 벌었던 걸 알잖아. 그래서 더 하라고, 밤에도 작업하면서 하라고 응원해줬어. 결국 윤도를 많이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돈벌이도 중요했지만, 배우는 과정이 참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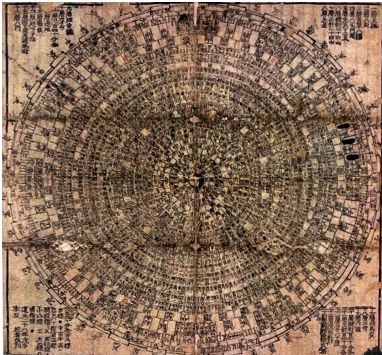
윤도를 만들면서 느끼는 재미와 보람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가업이라서 시작했는디, 하다 보니까 취미처럼 즐거운 거여. 만들어 놓고 보면 참 기분이 좋고, 뭔가 뿌듯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취미가 없으면 못 해. 배울 마음이 없으면 더더욱 못 배우고, 그걸 배우고 싶어야만 할 수 있더라고. 나도 그때는 내가 무형문화재까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지. 그저 백부가 “이 가업을 이어가라”는 얘기에 따라서 시작했을 뿐이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문화재까지 받고 나니까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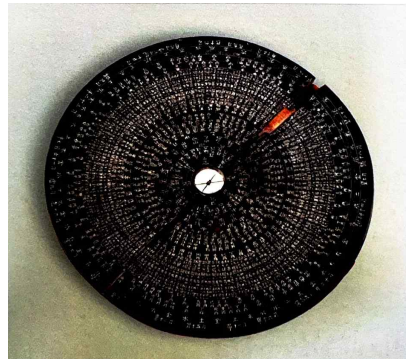
우리 안식구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까 옥돌도 같이 갈고, 먹칠도 해주고, 같이 손을 많이 봤지. 그때는 윤도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어. 내가 너무 싸게 팔았거든. 40만 원, 35만 원 정도였을 거여. 윤도 하나 만드는데 열흘도 넘게 걸렸으니, 그 값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았지.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불러놓으면 또 안 팔리고, 그래서 적당히 팔아야 했던 거지. 나는 85살까지 윤도를 만들고 팔았어.

2010년 정도까지도 사람들이 윤도를 찾았어. 윤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해놓고 나도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은 드물었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뭔가 조금씩 아쉽고, 어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거여. 그래도 큰 윤도도 만들어보고, 24층짜리 같은 것도 해봤어. 원래는 작은 윤도만 만들었는데, 큰 것도 해보니까 보람이 크더라고.

전주에 장희란이라는 변호사한테도 큰 윤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진득하게 잘 만들어 놓고는 싸게 팔았지. 나중에 그 윤도를 문화재로 지정받았는데, 이번에 그 윤도가 고장 나서 고치러 왔더라고. 그놈을 보니까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어렵고 정성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참 재미지고 뿌듯했어.



〈관상감 윤도판본(도광28년, 1848년 제작)〉



〈300여년째 이어온 낙산마을 윤도〉

윤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과 정교함

윤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과 정교함이야. 윤도의 핵심은 정간을 정확하게 그리는 건데, 이게 동심원 하나를 1도씩 나눠서 360도로 분할하는 작업이라 엄청난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해. 정간이 제대로 안 맞으면 윤도가 제 역할을 못 해. 내가 만드는 윤도는 그 방향이 정확하고 튼튼해서, 전통 나침반으로서 이제 유일하게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지.

처음엔 그저 백부에게 배워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으면서 ‘아, 나도 이제 이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즘은 윤도 만드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렸을 적에는 무주 쪽에서도 윤도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박달나무로 만들고 우리는 대추나무로 만들었지. 근데 무주 쪽은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우리 쪽만 남았어. 이북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윤도를 만들다 보니까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거야. 저녁에도 자면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익숙해지니까 정말 재미가 생기더라고. 욕심도 생기고, 더 잘해보고 싶고 말이지.

사람마다 글씨가 다르듯이 윤도를 만드는 스타일도 다 달라. 백부, 나, 그리고 내 아들이 모두 각자 다르게 만들어. 아들이 나한테 배우긴 했지만, 아들이 만든 윤도랑 내가 만든 윤도는 조금씩 다르지. 백부가 만들어 온 방식도 우리가 따라 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지. 윤도에 글자를 새길 때 '자자, 아들자' 子를 어떻게 새기면 더 딱딱 맞아떨어질까 하고 고민하면서 말이야. 아들 글씨는 내 글씨랑 좀 다른데, 한자로 새기는 걸 보면 아들 글씨는 아직 조금 덜 예쁜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지.

62세, 윤도장 문화재가 되는 과정

내가 윤도장으로 문화재가 된 게 62살 때여. 그때는 60세를 넘어야 문화재로 인정해 주던 시절이었지. 지금은 30대, 40대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를 포함해 목조각장 박찬수, 화각장 이재만, 그리고 서울대 이애주, 이렇게 네 명이 함께 문화재로 지정됐어.

처음에 문화재 심사를 나왔을 때, 국민대 김성수 교수하고 용인대 박영규 교수가 왔더라고. 심사 서류를 군(고창군)에 제출했는데, 처음엔 답도 없고 진행도 안 되길래 그냥 잊어버렸지.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와서 윤도에 대해 묻더니, 내가 무심코 “이거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느냐”고 했어. 그러자 교수들이 “봐야 한다”고만 하고 돌아갔지.

그리고 나서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조사가 나왔더라고. 그전까지는 군청에서도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지. 하지만 윤도, 특히 ‘홍덕 패철’ 이라 불리던 전통 나침반은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했어. 처음에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올리려다가, 나중에 중앙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서류를 다시 올렸지. 근데 또 소식이 없었어. 한 2년 정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했지. 나중에 다시 교수들이 나와서 선추(합죽선의 꼬리에 수술장식과 매다는 장식품) 조각하는 거, 바늘과 나침 만드는 과정을 보고 조사하더라고.

나는 그때 선추를 많이 만들지 않았던 터라 시연이 좀 서툴렀어.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보긴 했지. 그런데도 소식이 없으니, 답답해서 문화재청(당시엔 문화재관리국)에다 계속 알아보고 군청에도 매일 연락했어. 도대체 어찌 되는 건지, 신청이 진행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 담당자도 “결정이 아직 안 났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몇 년을 조마조마 기다렸지.

결국엔 그렇게 오래 기다린 끝에, 윤도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여.



동네잔치는 평생 잊지 못할 날

1996년도 말쯤이었어, 12월 31일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니까 증명사진 몇 장 들고 바로 문화재관리국으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급하게 올라갔지. 그때 가서 만난 사람이 박찬수 목조각장, 이재만 화각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애주 교수였어. 다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들이었지. 문화재관리국장이 우리한테 직접 문화재 지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사진 한 장씩 찍고 증명서를 받았어.

그 증명서를 받고 나서야 실감이 나는 거여. ‘아, 내가 진짜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됐구나’ 하고 말이야. 안식구도 얼마나 기뻐하던지. 내가 예전에 어디 가서 사주를 봤는데, 그 사람이 “12월에 큰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거든. 그게 딱 맞았던 거여. 셋째 아들도 “우리 아버지 이제 국보급이네!” 하면서 엄청 반가워했어.

우리 마을이 한 100호 정도 되는데, 그 소식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기뻐했지. 군에서도 겁나 반가워하고, 그래서 동네잔치를 크게 열었어. 친구들도 다 불러서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먹고 마시고, 그날 잔치가 아주 성대했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



4대 아들에 이어, 5대 손자까지 가문을 잇는 윤도

내가 딸 하나에 아들 넷을 두었는데, 애들이 말썽 없이 참 잘 컸어. 촌에서는 가끔 부잡스런 애들도 많잖아. 근디 우리 애들은 그러질 않았어. 건강하고, 인물도 남보다 부족함이 없고, 키도 크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줘.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군산대학에 갔어. 그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는데, 군산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엄청 기뻐하셨어. 그래서 애들을 지방대학이라도 다 보냈지. 둘째는 전북대, 셋째는 원광대, 넷째는 전문대에 나왔어.

다들 공예 쪽을 좋아하더라고. 내가 조각을 가르쳐주면 아주 잘 따라 했어. 아무래도 부모를 닮아서 그런지, 소질이 있었던 거 같아. 소질이 없으면 안 하려 하지 않겠어? 근디 욕심이 있어서 배우려고 하고,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와서 만져보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고, 자꾸 눈여겨보는 게 내가 참 반가웠어.

내가 어렸을 때 백부는 내가 뭘 만지려 하면 저리 가라고 하곤 했거든. 그게 참 섭섭했지. 그래서 난 그러질 않았어. 아들이 배우려고 할 때 의욕이 있는 게 참 반가웠어. 그래서 한문도 겨울방학 때 서당에 보내서 배웠고, 그렇게 우리 아들 4형제가 다 윤도를 배웠어. 전수장학생으로 배웠지. 내가 하는 걸 늘 보고, 배우니까 잘 따라 하는 거여.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우리 집안에서 가업을 이어가야지, 다른 집안으로 가졌어? 그래서 나는 이 가업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큰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옛날부터 족보나 뭐 보면, 큰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거니까. 근디 큰아들이 그때 백화점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생활에 큰 보탬이 안 되는 이 일을 맡으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결정했지. 큰아들을 불러서 “니가 해야 한다”고 말했어. “재산도 있으니까 와서 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이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때,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 근데 큰아들도 나이가 있었고, 나도 늙었으니 “아버지 말씀, 내가 따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전승을 이어가게 된 거여.

이제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갔고, 손자가 이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어. 손자까지 이어지면 5대째가 되는 거지. 한 15년 전쯤 큰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 데려왔잖아. 직장도 좋았으니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지. 윤도 만드는 일이 어렵고, 또 어려운 작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아들을 가르쳐서 잘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참 보람된 일이야. 나는 내 세대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 그래도 이렇게 이어왔으니, 앞으로는 손자가 이어갈지 모르겠어. 인자, 두고 봐야지.



<윤도장 전수관 전경>

윤도장 김종대(金鍾垈) 선생은

1933년에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의 낙산마을에서 부친 김영근(金英根: 1912~1995)과 모친 김계월(金桂月: 1915~2006) 사이에서 딸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김권삼(金權三: 1866~1944)과 둘째 작은아버지 김정의(金正義: 1904~1969)로 이어지는 가계를 통해 윤도 제작을 배웠으며, 전형적인 지역기반으로 하는 전승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부 이전에는 전씨→한씨→서씨→한씨로 이어지는 지역기반의 전승이었지만, 조부 이후로 현재 김종대 선생의 장남 김희수까지 4대째 가계 계승이 이어지고 있다.



〈선추로 사용된 윤도〉



〈윤도 평철 십장생조각 지름 27cm〉



〈윤도 거북(4층) 지름 8cm〉



〈윤도 거북(7층) 지름 13cm〉



〈윤도 면경(2층) 지름 5cm〉



〈윤도 면경(2층, 3층) 지름 6cm〉

윤도장이란?

윤도(輪圖)는 주로 방향을 찾기 위해 사용된 고대의 나침반으로, 자침(磁針)을 활용하여 동서남북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윤도는 단순한 나침반 이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음택(묘지)과 양택(건축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풍수를 보는 지관들이 사용하는 필수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윤도는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형태 때문에 '윤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최초로 윤도라는 명칭이 기록되었으며, 왕실의 묘지를 선정할 때 명나라 사람의 나경(羅經)을 본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윤도와 유사하다고 표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윤도는 단순한 방향뿐 아니라 음양오행(陰陽五行), 팔괘(八卦), 24절후(節候) 등 동양 사상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복잡한 도구입니다. 별자리인 28숙(宿)도 포함되어 있어, 천문과 지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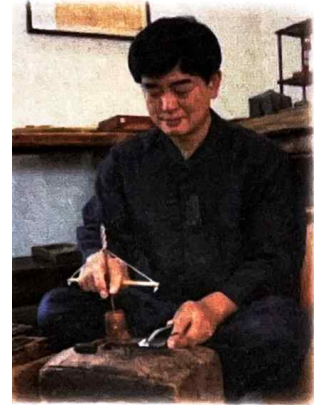
윤도를 제작하는 장인들은 주로 지관이나 항해자들이 사용하던 도구로, 현대에는 패철(佩鐵)이라는 이름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위 내용은 심층인터뷰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간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44 윤도장 김종대」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고 사진자료를 활용함.

- ▶ 면담자 : 강현정, 김다희(공공문화연구소 연구원)
- ▶ 면담일시 : 2024. 7. 16.(화) 16:00
- ▶ 면담장소 : 윤도장 전수관 (고창군 성내면 은낙길 70-9)

김희수

- 분야 : 미술(공예, 윤도)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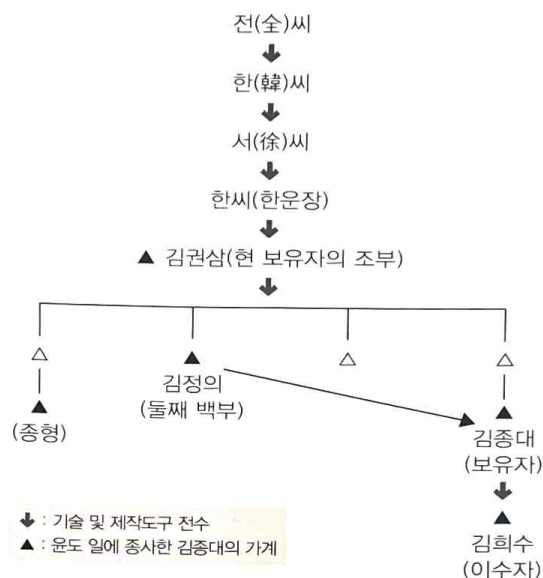


“400년의 전통을 이어가며, 세계 유일의 윤도 공예를 알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소중함을 전하고자 하는 장인”

고창군 400년 전통의 윤도를 이어받아
세밀한 작업으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는 예술가 김희수.
앞으로 윤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가무형유산 윤도장 보유자 김희수입니다. 저희 낙산마을에서는 윤도가 약 400년 정도 전승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 씨, 한 씨, 서 씨 가문에서 이어오다가, 이후 저희 김 씨 가문으로 전해져 지금 저까지 4대째 이어받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지방문화재가 따로 없고, 국가무형유산으로 윤도가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전승계보 조직도>

Q. 윤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작하나요?

‘윤도’는 쉽게 말하면 바퀴에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죠.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자리와 사주, 팔괘, 십이지 같은 여러 정보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 윤도는 24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24칸 안에 약 3,500자에서 4,000자 정도의 글을 새깁니다. 이 글자들은 200년 된 대추나무를 10년간 말려서 그 위에 조각을 하죠.

윤도는 원래 ‘쇠’라고도 불렸어요, 가운데 쇠가 있어서 그렇죠. ‘패찰’이라고도 하고, ‘나침판’이나 ‘나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결과, 공식 명칭은 ‘윤도’로 정해졌습니다. 바퀴 모양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죠. 그래서 이 윤도를 만드는 장인을 ‘윤도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윤도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고창에만 있는 유일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고창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윤도 평철(20층) 지름 26cm〉

2006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작품

Q. 엄청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윤도를 모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윤도를 만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롤렉스 시계처럼 수공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정밀하다는 거죠. 나침판의 바늘도 수작업으로 만들면 훨씬 더 잘 맞아요. 기계로 찍으면 구멍이 커서 흔들리게 되는데, 이 윤도는 바늘보다 더 가는 것에 실보다도 가느다란 것을 올려놓거든요.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석이 들어가서 방향을 가리키는 방식이 가능해요. 이런 정교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모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립박물관 같은 곳에서 나침판이 필요할 때, 저희에게 요청하죠. 저희 가족이 만든 모든 윤도는 대추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글씨, 증조할아버지의 글씨, 아버지의 글씨, 그리고 제 글씨까지, 제가 다 알기 때문이죠.

Q. 김씨 가문이 윤도를 이어받아 온 전승의 궤적이 궁금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네 분이 계셨어요. 근데 백부인 둘째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윤도를 전수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예요. 할아버님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총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둘째 할아버님한테 저희 아버지가 전수를 받은 거니까, 할아버님이 조카한테 넘겨준 셈이죠. 옛날에는 김성춘으로 동네에 다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백부님 댁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배우셨다더라구요.

Q. 어릴 적부터 윤도를 제작하는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모습을 종종 보셨겠네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 경험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왜냐하면 ‘글씨는 어떻게 파더라’ 라는 걸 다 지켜보며 자랐거든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이수자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됐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옛날에는 전통 드릴이 없어서 돌대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조각칼로 글씨를 파는 걸 보면서 ‘아, 저거 재밌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쪽으로 가서 놀아라” 라고 하셨던 기억도 나요. 할아버지가 글씨를 파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수자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Q.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윤도 작업을 하셨나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버지한테 계속 배웠어요.

Q.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윤도 제작에 참여를 하셨나요?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윤도 작업을 시작했어요. 고창에서 나무를 만들어주면 제가 가서 글씨를 파고 각도를 새기고 그랬죠. 글씨를 새겨서 고창으로 내려주면 아버지가 작업을 이어서 완성하셨어요.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모든 작업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Q. 고창군으로 아예 내려오시게 된 건 언제였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원래 40살 전까지 서울에서 주택공사에서 일했어요. 그때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윤도를 계속 작업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네가 가업을 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걸 몇 대째 해왔는데, 이 전통은 끊기면 안 된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 거의 아침마다 전화를 주셨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로 “눈이 안 보인다. 이제 윤도의 대가 끊길란가 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명예퇴직을 결심했어요. 직장에서 13년 동안 일하다가 LH공사와 통합하기 전에 위로금을 받고 퇴직했죠. 그때 고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창에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윤도를 보니, 해야겠다고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정치인들은 4년간의 임기가 있고 끝이 있지만, 문화제는 죽을 때까지 문화제로 남아요. 대를 이어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고창에 다시 내려왔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Q. 그때쯤 이수자가 되셨나요?

네. 군대 다녀온 이후에 27살 쯤 이수자가 되었어요. 당시 문화재(현 문화유산)가 되려면 ‘전수 장학생’에서 시작해 ‘전수생’, ‘이수자’, ‘전수 조교’, 마지막으로 ‘보유자’ 까지 다섯 단계를 거쳐야 했죠. 각 단계를 3년씩만 잡아도 최소 15년이 걸려요. 이 과정은 단순히 시험 보는 게 아니어서 나이 제한도 조금 있죠. 보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해요. 이수자 시험은 전문위원들이 와서 이론과 실기를 전부 다 봐요. 전문위원이 몇십 명씩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검토하죠. 전통 방법으로 작업하지 않으면 그냥 퇴짜예요. 반드시 옛날 방식으로 작업해야 하거든요. 현대식 방법은 내가 고안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전통 방법도 반드시 알아야 해요. 만약 현대식으로 기계를 사용하면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하셨던 방식 그대로 작업을 했어요.

Q. 고창 윤도만의 자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고창의 윤도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윤도를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윤도장 전수관 뒤에 있는 거북바위를 보러 가면 돼요. 거북바위는 고인돌로, 선사시대 때의 것이죠. 이

거북바위가 나침반의 기준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방향이 맞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만든 윤도를 거북바위에 올려놓으면 동서남북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 사실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홍덕현에는 거북바위가 있어서 여기 홍덕현에 있는 윤도가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고창에서 만든 윤도를 많이 사갔다고 해요. 저 멀리 강원도나 이북에서도 내려와서 윤도를 가져가려고 며칠씩 걸어서 오곤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방송국 PD들이나 촬영팀이 거북바위에 와서 “한번 가보자”고 하면서 가서 맞춰보면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거북바위가 있어서 고창 윤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우리 고창 윤도의 자랑입니다.

Q. 200년 된 대추나무를 10년간 말려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수급의 어려움은 없나요?

네. 대추나무는 200년 이상 된 것을 10년간 그늘에 말려서 사용해요. 이렇게 잘라서 쓰면 변질이 없고요. 하지만 재료를 구하는 게 힘들습니다. 구했다고 해도 바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대추나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엔틱해지고 고테미가 나서 멋스러워져요. 우리나라 대추나무는 최고로 강하고, 박달나무보다 더 단단하죠. 절기면서도 고테미가 나니까요. 대추나무는 예전부터 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오방에 대추나무를 넣고 다니기도 했고, 벽조목 상패나 도장도 만들곤 했습니다.

윤도 제작에 사용하는 대추나무는 주로 제천과 단양에서 구하는데, 전라도 지역에는 없습니다. 30년, 20년 된 나무는 대추가 잘 열리지 않아요. 거미줄이 치고 잘 자라지도 않죠. 강원도는 나무가 100년, 200년이 되어도 대추가 열리지만, 전라도 쪽에서는 큰 대추나무를 찾기 힘들습니다. 누군가 연락이 와서 대추나무가 크다고 해도, 저는 사진 먼저 보내달라고 확인합니다. 그만큼 크지 않아서요. .

윤도는 나무 수급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문화재의 50%는 재료에서 결정되니까요. 나무가 없으면 좋은 기술로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작품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대추나무를 많이 구해놓아서 다음 세대까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윤도장 전승의 맥이 다른 가문에서 ‘김씨 가문’으로 전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서 씨 가문에서 시작되다가 한 씨로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한운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 옆집에 사셨습니다. 한운장 선생님이 병이 들어 돌아가실 위기에 처하자, 연장을 다 건네주시면서 “당신이 한번 해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 김 씨 가문이 윤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운장 선생님이 저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에게 그 기술을 넘겨준 것이죠.

Q. 윤도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려주세요.

윤도는 네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철’로, 둥그랗고 편평한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거북이 모양의 ‘거북 윤도’입니다. 세 번째는 부체에 달고 다니는 작은 윤도로, ‘선추 윤도’라고 합니다. 부체는 선자로 부르죠. 마지막으로, 여자들이 거울처럼 사용하던 ‘명경 윤도’가 있습니다. 한쪽은 거울로 되어 있죠. 남자들은 부체로 들고 다녔고, 선비들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각각 조각 그림과 크기가 다릅니다.

옛날에 풍수지리나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이 윤도를 사용했어요. 사주팔자도 윤도로 다 해요. 윤도는 우주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윤도의 이름을 지을 때 ‘우주를 보다’ 또는 ‘하늘을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하는 온갖 동양 철학 사상이 다 들어 있어요.

Q. 조각하는 칼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조각 칼은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하이스라는 특수 금속으로 갈아서 만들죠. 조각칼이 몇백 개는 있어요. 제 작업장에 모두 다 있어요. 글씨를 파는 칼도 다 다르고요. (작업 공구를 보여주며) 이제는 손때가 많이 묻어있죠. 십몇 년 썩 이렇게 만졌으니까요.

Q. 윤도를 제작하고 만족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만족하지는 못해요. 작품 하나를 만들어서 “이 정도면 최고야” 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잘 만들었어도 저한테는 그 여운이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더 못하게 되겠죠? 모든 작가에게 절정기가 있어요.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씨도, 그림도,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게 마련이니까 글씨도 흔들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만족한 적은 없지만 윤도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만드는 걸 제가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고장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Q. 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요?

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재주가 좋다기보다는 ‘섬세함’ 과 작업하는 ‘사명감’ 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끈기 있게 작업을 못 하거든요. 이 작업은 대충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윤도 작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녁이나 새벽, 사람 없는 조용한 시간에 작업해요. 그래야 작업이 틀리지 않죠.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숙달이 되어야 해요. 내부 글씨를 탁 찍어서 작업하는 데는 최소한 10년, 15년은 걸려야 할 수 있습니다.

Q. 윤도 하나를 완성 하려면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윤도를 완성하는 데는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층짜리는 한 10일 정도 걸리고, 윤도가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장 큰 것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4,000자를 새기는 작업도 대략 1년 정도 소요되죠.

Q. 처음 윤도 하나를 완성했을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대학교 때 처음 윤도를 만들었어요. 큰 것은 만들지 못했죠. 큰 것을 만드는 데는 선 굵기가 힘들어서 기술이 필요하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조그마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면, 그다음에 좀 더 큰 것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제 작업이 글씨도 안 예쁘고, 아버지가 제가 만든 것을 보시면서 “잘 봤다” 라고 하셨지만,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엉터리예요. 아버지는 “너 못 봤어!” 라고 하면 제가 윤도를 안 할까봐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늘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칭찬해주시면 제가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내가 진짜 잘했나...?’ 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파면 스스로 느끼게 돼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아~ 그때는 그냥 대충 했구나~ 이제는 좀 예쁘게 파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전수 조교 때와 보유자 때가 다 다르듯이, 숙달이 되어가는 과정을 느끼는 겁니다.

처음 윤도를 완성했을 때는 조그마한 거였지만, 잘 봤든 못 봤든 내가 해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아싸~ 나도 윤도 하나 만들어 봤어!” 라는 기분이 있었죠.

Q. 다른 형제 분들도 윤도를 하시나요?

저희 형제는 4남 1녀로, 저는 그 중 장남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가 윤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저희 둘째가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만 하게 되었죠.

Q. 첫 전시회를 열었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전시를 많이 도와드렸다가, 제가 전수 조교를 할 때 40대 정도에 고인돌 박물관 1층에서 첫 전시회를 했어요. 제 첫 전시회였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도 해서 함께 준비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윤도 거북(3층, 4층) 지름 6.5cm〉

Q. ‘나의 전성기’ 라고 생각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는 지금이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60대 초반이니까, 60대에서 70대까지가 전성기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50대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잡념도 많았어요. 하지만 60대부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깐 여기서만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더 생기고요. 50대 말에서 60대 중반까지는 누구나 그 피크를 경험한다고 봐요. 주변을 봐도 후계자들 중에 “후계자가 더 잘한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훨씬 잘했죠.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숙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보유자가 되어도 ‘아들은 아버지보다 조금...’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몇십 년 더 하면 숙달이 되겠지만, 처음에 보던 시절의 아버지와 비교하면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문화재들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전시할 때 시연하고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 손놀림 같은 것에서 차이가 보이죠. 우리끼리는 아버지가 정말 잘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은 없어요.

아들이 잘하게 되는 시점은 아버지가 못할 때죠. 그 시기가 꼭 존재하더라고요. 나이와 경력 때문이죠. 그림을 그릴 때도 최고의 결정지가 있어요. 50대 때 힘이 있을 때 그린 그림과 노년에 그린 그림은 다릅니다. 노년에는 잘 그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초보 때는 어색한 부분이 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윤도를 작업할 때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작품은 하나도 없었어요. 늘 부족함이 느껴지죠. “5%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고, 그럴 때마다 글씨나 모든 것이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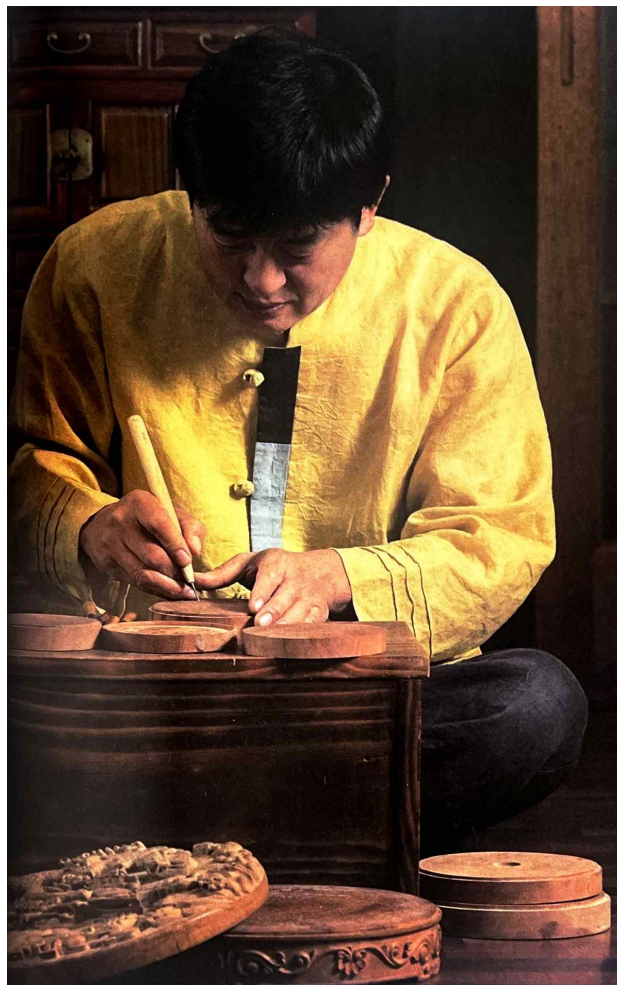
Q. 스승님이신 아버님보다 ‘이것만은 내가 더 잘한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바늘을 정말 잘 만드세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보유자 시험을 볼 때 심사위원들이 오셨는데, 전문위원 고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보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보다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글씨는 아버지보다 훨씬 잘 판다” 고 답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버지보다 글씨를 훨씬 많이 파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이 나빠지고, 아버지는 눈이 좋아지셨어요. 아버지는 글씨를 안파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유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신문에 났을 때 그 전문위원께서 “글씨에 대해서는 경지에 도달했다” 라고 표현해주셨더라구요. 보유자 발표할 때 신문에 제 글씨체도 나오고,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죠. 기사 내용에는 “각자의 우수한 성격으로 보유자가 됐다” 라는 언급도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제가 아버지보다 글씨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Q. 혹시 자녀분들에게 윤도를 물려주실 생각이 있나요?

저도 제 아들에게 윤도를 물려줘야 하는데, 그게 될지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도 걱정을 하시고요. 할아버지니까요. 저희 아이들도 윤도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는 것 같고, 제게 “나중에 할 게요” 라고 답하곤 해요. 아예 안 한다고는 말 안 하는데, 언제 할 건지 궁금한 마음이 있죠.



Q.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계자 양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윤도를 좀 더 알리기 위해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고창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더 모를 거예요.

윤도를 알리고, 우리 고창의 자랑인 400년 전통을 부각시키고 싶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윤도의 중요성과 자부심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고창문화관광재단이나 고창군청, 언론사와 함께 “윤도는 고창에 밖에 없어! 세계적으로도 유일해!” 라는 자부심을 전파하고 싶어요. 고창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뿐인 윤도” 라든지, “우주를 볼 수 있는 동양 철학이 다 들어있는 윤도” 같은 다양한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알리고 싶어요.

- ▶ 면담자 : 강현정, 김다희(공공문화연구소 연구원)
- ▶ 면담일시 : 2024. 7. 16.(화) 14:00
- ▶ 면담장소 : 윤도장 전수관 (고창군 성내면 은낙길 70-9)

박미애

- 분야 : 미술(공예, 전통자수)
- 활동지역 : 전국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59년



“고창 전통 자수의 가치를 지키고 전수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싶은 예술가“

전통 자수를 평생 지켜온 박미애 예술가.

100년을 이어온 고창 전통 자수의 뿌리를 지키고, 복원하며,
그 가치를 후세에 전수하고자 하는 깊은 사명감을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전통의 뼈대를 지키며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진정한 장인입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 전통 자수를 3대째 이어오고 있는 박미애입니다. 외할머니부터 시작해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세대에 걸쳐 자수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자수를 처음 접한 것은 언제였나요?

저는 자수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자수를 하셨기 때문인데,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어머니는 자수를 시작하셨어요. 1972년도에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으로 내려와서 자수를 하셨죠. 그때는 지금처럼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예술단체 같은 게 없었어요. 다만 전라북도도청 산하 문화관광팀 같은 조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머니는 그들과 연관되어 활동하셨고, 당시 어머니의 자수공방 직원만 해도 20명이 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굉장히 큰 규모였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자수를 통해 큰 활동을 하셨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자수를 보고 자라셨네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수를 놓던 모습이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요. 저희 가족이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972년 10월쯤에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저희 집이 엄청 컸어요. 6칸짜리 한옥이었죠. 그 집을 개조해서 살았죠. 어머니가 여기에 내려오셨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자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순창자수가 유명하니까 거기서 전문적인 자수 기술자 5명을 데려왔어요. 그분들이 저희 집에서 기숙하면서 일을 하셨고, 나중에는 하나둘 시집을 가시기도 했죠.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수틀을 가지고 놀았어요. 동생들이랑 그걸 장난감 삼아 놀았죠. 그 당시엔 장난감도 많지 않으니까 자수틀을 말타고 놀고, 칼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1974년 중2때 뒤에 어머니께서 도안을 그리고 있는 모습>

Q. 어머니는 어느 분께 자수를 배우셨나요? 어머니의 자수 인생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음 자수를 접하신 건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율케 언니 덕분이었어요. 그 언니가 나주에서 시집왔는데, 정말 자수를 잘 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수가 그저 예쁘다고만 생각하셨지, 직접 해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그 당시에는 명칭이 보통학교였는데, 그때 자수 시간이 있었대요. 그걸 배우면서 자수에 푹 빠지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수를 열심히 배우셨고, 이후 시집을 오셔서도 계속 자수를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신 게 1948년이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자수를 이어가셨죠. 제가 1959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어머니 나이가 30세였어요.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자수를 놓으셨고,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서울을 오가다가 결국 고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서울에 살 때는 마포구 연리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가까운 대흥동에 이화여대 앞에 '동양자수 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자수를 배우셨지만, 그곳에서 전통 자수를 본격적으로 배우셨죠. 그때 국가문화재이신 한상수 선생님과도 인연이 생기면서, 이화여대 앞에서 자수 활동을 하시고, 이후 고창으로 내려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자수를 이어가게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자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가족사진>

Q.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기억 중 가장 또렷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네 살쯤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12월 24일에 남동생이 태어난 날인데, 그때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방 안에 물 떠놓는 '자리끼'라는 놋그릇이 있었는데, 그 물이 얼 정도로 추웠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실 때 우리에게 솜이불 네 귀퉁이를 들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안에서 동생을 낳으셨어요. 그게 제 첫 기억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장면을 보았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두 번째로 기억나는 건 네 살인가 다섯 살 때 서울에서 길을 잃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서울은 골목이 많았거든요. 집 앞에서 놀다가 골목을 잘못 들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죠. 다음 날 아침에 파출소에서 옷을 사 입히고 저를 앞에 내놓았는데, 아버지가 연락을 받으셨는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왕편빵을 하나 사주셨는데, 제가 그걸 들고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안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안 먹냐고 하시면서 “동생들 주려고 안 먹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순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제가 편빵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신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엄마에 관한 일이에요. 엄마가 자수를 배우시기 위해 ‘동양자수연구소’에 가셨던 날인데, 그날 엄마가 입학식 같은 걸 참석하시려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고데도 하시고, 살이 비치는 한복을 입으셨어요. 엄마가 한복을 다 만드실 줄 아셨거든요. 화장도 하시고 아주 예쁘게 차려입으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엄마는 몇 시간 동안 참아주셨는데, 결국 제가 나오질 않으니 매를 드시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예뻐 보였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의 장면이에요.



〈민화 화접도 50×100〉

제7회 은고을 전통공예 전국공모전(2002.11) 입선

Q. 어릴 적 살던 집에 대한 기억도 있나요? 있다면 들려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고창군 아산면 중북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뒤에 부잣집 친구네 집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 친구 홍○○이라는 애네 집에 가니까 그 집 기둥이 동그랗고 멋있던데, 왜 우리 집은 사각형이에요?” 하고 여쭙봤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도 나중에 그 질문을 할아버지께 드렸대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시 동네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았는데, 시골 마을에서 부잣집은 집을 조금 높게 짓곤 했대요. 그렇게 하면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소설 토지에 나오는 최서희네 집처럼, 그 집이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본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하면 눈에 거슬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도 처음에는 초가집으로 짓고, 나중에 기와집으로 바꿨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셨구나, 동네 사람들을 배려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Q.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관련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더 있으신가요?

한 번은 우리가 딸을 키울 때였어요. 그때는 땅이 넓어서 할아버지가 가끔씩 농사 상황을 둘러보러 가셨거든요. 어느 마을에 언제 가겠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짐사나 인편으로 ‘고비’라는 편지함에 편지를 넣어 전달했어요. 그 당시엔 우체부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대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제사 지낼 때 쓰는 큰 교자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가로 2미터, 세로 1.5미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상이었죠. 거기에 할아버지 몫, 아버지 몫으로 따로따로 음식을 차려서 올렸는데, 상마다 닭이 한 마리씩 있었대요. 아버지가 그 닭이 너무 맛있어서 다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나올 때 할아버지가 “예끼! 이 자식아. 그 닭 한 마리가 동네 잔치 음식인데, 너는 집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걸 거기서 다 먹으면 어찌냐. 다시는 그런 자리에서 다 먹지 말고, 한 젓가락씩만 먹어라. 네가 한 젓가락 먹을 때 그 동네 사람들 마음이 다 타들어간다. 우리야 맛만 보면서 ‘맛있네’, ‘맛있네’ 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으셨구나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셨던 거죠.



〈이당화조 6폭 병풍중 일부 270×180〉

제51회 전북 미술대전(2019.5) 특선

Q. 학창 시절, 학교를 마치면 어떤 일과를 보내셨나요?

그 당시 엄마가 직원이 한 20명쯤 되었고, 엄청 바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동생이랑 같이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들 밥을 차리고, 시간이 나면 책을 봤어요. 저는 동네에 잘 안 나갔는데, 사실 저도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우리 동네가 밀양 박씨 집성촌이라서 다 같은 성씨였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조카, 아재, 할아버지 같은 사이였고, 동갑내기 친구들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제약이 없었는데, 중학생이 되자 아버지가 남녀유별을 철저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걸 거의 허락하지 않으셨죠. 당시 제 생각에는 나를 많이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는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나왔다” 고들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만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Q. 어릴 적 순한 아이였나요? 성향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전 순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좀 안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쯤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다녀오셨어요. 그때 엄마는 서울에서 자수 관련 거래를 하셨거든요. 다녀오시면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생활비도 쓰셨죠. 그런데 그때 저는 엄마가 참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짐을 한가득 들고 오시느라 엄청 힘들셨죠. 종아리에다가 보따리 5개, 6개씩 묶고, 기차 타고 고창까지 오셔야 했어요. 그 당시엔 고속버스도 없었고, 서울에서 최소한 자정쯤 출발해서 정읍에 도착하면 새벽 4시쯤 됐어요. 그 후 다시 고창까지 오면 6시나 7시가 되니까, 거의 하루가 걸리곤 했죠.

엄마가 항상 마지막 차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동생들을 붙잡아두고, 엄마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밥을 미리 준비했어요. 밥을 해놓고 이불 속에 덮어두고, 엄마가 오실 때쯤 동생들이랑 함께 800미터 정도 되는 밤길을 나갔죠. 엄마가 그 많은 짐을 들고 오실 테니까, 동생들한테 짐을 나눠주고 저는 남은 짐을 들었어요. 남동생은 자기가 남자라고 무거운 걸 자기가 들겠다고 했고, 여동생도 자기 몫을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게 하려고 핸드백까지 제가 들었어요. 엄마는 그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오셨을 테니까요. 집에 오시면 짐을 내려놓고, 제가 미리 준비한 밥과 국을 바로 차려드렸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는 제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부탁하면 엄마, 아버지가 거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Q. 부모님과 다툼 일이 전혀 없으셨겠어요. 혹시 혼난 적은 있으신가요?

부모님과 다툼 일은 전혀 없었어요. 혼난 적은 있죠.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딱 두 번 맞아봤어요. 한 번은 여동생과의 일 때문이었어요. 여동생이 시골 학교로 전학 온 뒤 동네 아이들이 밭에서 서리하는 걸 보고 배웠나 봐요. 어느 날 여동생이 “언니, 우리 고구마 캐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뒷동산으로 갔어요. 우리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고는 비밀로 해주셨는데, 작은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작은 엄마는 자존심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우리를 혼내달라고 하였고,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고창군 최고의 부자의 딸들이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를 서리하다니.’ 아버지는 그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불러서 방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동생은 도망갔고 저는 매를 맞았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심하게 맞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작은 엄마는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죠. 그날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세 번 정도 맞은 기억이 있어요. 두 번은 억울하게 맞은 거였고, 한 번은 제가 잘못해서 맞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대장장이가 만든 옛날 가위를 학교에 가져간 적이 있어요. 엄마가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몰래 가지고 갔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보시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날 엄마가 그 가위가 없어진 걸 알고 연탄집게로 나를 때리셨어요. 또 한

번은 심부름을 갔다가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엄마는 내가 감췄다고 생각하셨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맞았죠. 나중에 제가 스물몇 살이 되었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나 두 번 억울하게 맞았어”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그때 왜 말을 안 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계속 얘기했었는데 엄마가 안 들어줬잖아”라고 했더니,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라고 하셨어요.

Q.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자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저는 중학생 때 방학마다 엄마가 바쁠 때 도와달라고 하면 자수를 도와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도와드리면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자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977년, 제가 18살이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자수는 혼수품 같은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불경기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어요. 직원도 20명이나 있었는데, 월급 주기가 힘들어지니까 엄마가 저에게 자수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하셨죠.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야 하는 시기였는데, 엄마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수를 하길 바라셨어요. 저는 자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나만 놔주면 장학생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너무 필요하셨죠. 저는 결국 단식 투쟁까지 했어요. 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식을 하니깐 아버지도 단식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젊으니까 3일이 지나도 끄떡없었지만, 아버지는 하루 만에 기력이 쇠하셨어요.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말쑥해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었고, 우리 집안은 원래 재산이 많았는데, 농지 개혁으로 재산을 잃고 사업도 잘되지 않으면서 어려워지셨어요. 아버지는 그걸 많이 힘들어하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자주 우셨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1977년 3월 4일에 엄마 공방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3월 2일에 학교에 가야 했는데, 그 대신 공방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Q.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셨겠네요.

아쉬움이 정말 컸어요. 제가 마흔 살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꾸던 꿈이 있었거든요.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같은 꿈을 꿔요. 꿈속에서 저는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양말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학교 규칙이 엄격해서, 머리는 귀 밑 1cm, 양말은 두 번 접어서 딱 2cm가 되어야 했고, 카라나 명찰, 교과서가 없으면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 뭔가가 빠져서 계속 찾다 보면 시간이 흘러버리고, 결국 버스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꿈이 마흔 살이 되니까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그때 ‘아, 이제 벗어났구나’ 하고 느꼈어요. 나는 속으로 ‘괜찮다’고 늘 생각했지만, 사실 그 고등학교를 못 간 상처가 아주 깊게 남아 있었던 거죠. 친했던 친구들은 다 잘됐어요. 대학 교수, 우체국장, 약사, 선생님, 공무원 등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수를 놓고 있었고, 엄마 아버지가 놔주기 전에는 공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7살에, 우리 공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시집을 가버리면서, 저는 문화재 한상수 선생님께 가서 동생과 함께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만약 대학교를 갔더라면 그 악몽이 멈췄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꿈을 계속 꾸다가 마흔 살에야 사라졌어요. 왜 그때 멈췄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Q. 자수에 재능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제가 자수에 재능이 있다고 느낀 건, 평생 언니들이 자수 놓는 걸 보며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났죠. 제가 서울에서부터 자수 작업을 익혔는데, 기능을 익히는 데 딱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 공방에 신입이 들어오면 제가 다 가르쳤고, 행정 부분도 엄마와 함께 맡아서 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엄마가 저를 서울로 데리고 가서 전통 매듭까지 가르치셨어요. 우리 사촌 올케에게도 저를 맡기시면서 “애 좀 가르쳐줘” 라고 하셨죠. 제가 “엄마, 왜 저를 시켜요? 다른 언니들도 있는데요”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네가 제일 빨리 배우고, 제일 잘 가르칠 것 같아서”라고 하셨죠. 너무 제 자랑 같네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Q. 일찍부터 누군가에게 자수를 가르치셔서 소위 보는 눈도 트이셨겠네요. 좀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신입들을 받아서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딱 일주일만 봐도 그 사람이 자수를 잘할지 못할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첫날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재능이 있는 것과 성실성은 다르거든요. 재능은 첫날 자수를 놓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자수를 타고났구나’ 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게 꾸준히 잘할 사람인지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알 수 있죠. 성격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옛날 자수 유물을 복원할 때도, 자수를 놓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가 보이곤 해요. 한 번은 흥배를 놓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흥배는 궁중 자수인데, 수궁나인들이 몇십 년 동안 같은 자수 작업만 하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갔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들의 열정과 인내가 느껴졌죠. 흥배를 작업하면서 그런 깊은 감정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상궁이 가르친 대로만 자수를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씩 자기만의 표현을 담아낸 사람들도 보였어요.

Q. 어머니께 공방을 물려받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제가 1989년에 고창으로 다시 내려와서 결혼을 하고, 1990년에 공방을 전체 인수받았어요.

Q.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8년에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선생님네 가문은 3대째 자수를 이어오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없다는 게 아깝지 않냐”고 하면서 문화재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때 저는 60살까지 자수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8년이었고, 마침 공방 계약도 끝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명장과 문화재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방에 펼쳐놓고 한참 고민했죠. 한 달이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서류를 바라보면서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12월 1일에 결심했죠. “신청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꿈을 꿔는데, 책상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콘센트 코드를 꽂는 순간 파란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켜지고 스파크가 튀면서 꿈이 이어졌죠. 꿈에서 저는 자꾸 불을 끄는데, 불이 계속 켜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 후에 제가 미술협회 지부장이 되고, 전시회를 열고, 공예전에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 수제자에게 “내가 꿈에서 5개의 불을 켜는데, 그 5개가 뭘까?” 하고 물었더니 제자가 “선생님, 손주도 태어나셨잖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다른 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결국 2019년에 여기저기 공예전에 출품할 때마다 상을 받게 되었고, 6개의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화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올케가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양보했어요. 이후 2020년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코로나로 심사가 계속 지연됐어요. 현장 심사를 할 수 없어서 2022년까지 기다렸고, 결국 7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8월에 인증서를 받게 되었어요.

Q. 문화재가 되시고 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

가장 먼저 엄마 무덤에 갔어요. 사실 저는 엄마 무덤에 자주 가지 않아요. 엄마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동안 엄마 무덤을 가꿔주고 싶어서 아침에 가서 풀을 뽑고, 퇴근 후에도 다시 가서 풀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옆에서 하얀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해서 어스름하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온몸이 딱! 경직되면서 무서움에 그냥 도구들을 다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무덤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가 무덤을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그리워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엄마를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 무덤에 가자고 해도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두 번 갔죠. 첫 번째는 제가 책을 냈을 때, “엄마, 나 이 책 냈어요” 라고 하러 갔고, 두 번째는 문화재가 되었을 때, “엄마, 나 이제 문화재가 되었어요. 이제 숙제 끝났죠?” 라고 말씀드리러 갔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문화재를 해드리지 못한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무덤에서 약속했었죠, 내가 대신 문화재가 되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켰고, 엄마와의 숙제도 풀린 것 같아요.



〈육골침문양 노리개 50×120〉
대한민국 공예품대전(2020. 7) 입선

Q. 첫 전시회부터 지금까지 전시를 해오면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1980년도에 엄마가 시골에서 자수 사업이 잘 안되니까 고창으로 오셨어요. 고창 문화원장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문화원 한 칸을 빌려 공방을 시작하셨죠. 1982년도에 “전시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고창 문화원 전시장에서 제1회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때 성희 언니가 창덕궁 근정전 서쪽 벽화, 달 그림이 있는 병풍을 수놓았고,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1984년도에 제가 기능경기대회에서 상을 받은 기념으로 2회 전시회를 열었고, 서울 신사동에 공방 겸 판매장을 차렸어요. 그때 또 3회 전시를 했고요. 1988년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전시 판매장을 만들면서 공예전에서 상을 받

왔고, 그 수상작으로 전시회를 열었죠. 그 후로도 고창문화원과 전주한옥마을에서 4회, 5회 전시회를 열었고, 6회는 올케 언니와 함께 전시를 했어요. 처음 전시회를 열었을 때는 너무 어려서 그냥 엄마를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2회 전시 때는 제 작품으로 전시했지만, 여전히 엄마가 주관하는 전시회였죠. 하지만 5회부터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주관을 맡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건 오롯이 내 전시다'라는 기분이 들었던 건, 2021년에 첫 개인전을 열고 책을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전시회를 열면서 너무 기뻐고, 앞으로는 주제에 맞춰 작품을 더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고창 전통 자수’ 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문화재 서류를 신청할 때 담당자가 계속 “고창 전통 자수의 특징이 뭐냐”고 물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 집은 3대째 가업으로 자수를 이어왔어요. 이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전국에서 전통 자수를 가업으로 이어온 집안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 자매들이 전국의 여러 문화재 선생님들께 자수를 배워서 다양한 자수 기법이 고창 자수에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별해요. 다른 전통 자수하는 분들은 모든 작품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역사박물관에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원본을 정확히 보고 작업을 시작해요. 창작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원본을 재현할 때는 그 원본의 색깔과 수법을 정확히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 한 보따리 들고 가서 원본을 보고 확인하고 작업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그림이든 자수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모든 그림을 자수로 재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걸 해내고 있어요.

Q. ‘고창 전통 자수’ 라는 명칭은 언제 확립되었나요?

‘고창 전통 자수’ 라는 명칭은 어머니 때부터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확립한 용어예요. 어머니가 고창에서 자수를 하셨을 때 처음에는 ‘숨씨방’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동양 자수연구소’ 라는 명칭으로 바꿨어요. 전통 자수라는 개념은 1980년대에 확립되었고, 우리는 고창에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고창 자수’ 라고 부르게 된거죠. 그리고 2000년에 제가 ‘고창 전통 자수’ 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어요. 원래는 저희 언니가 사용을 하다가 폐업 신고를 해서 제가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올케 언니는 ‘고창 자수’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Q. 고창 전통 자수를 하시면서 늘 재현과 복원을 고민하며 활동 중이신데요. 왜 재현이 중요한가요?

재현이라는 건 우리 전통 자수의 뼈대예요.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건 창작이죠. 그래서 저는 뼈대를 완벽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품들을 제작하는 이유도 후학들이 우리나라 전통 자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일본 자수나 프랑스 자수 같은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는, 순수한 우리 전통 자수의 골격을 남겨야죠.

그렇게 전통 자수를 익힌 후학들은 그 뼈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같은 곳에 출품하고, 자신의 창작품을 상품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통 자수를 잘 익혔으니 이제 창작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살을 붙일 기회를 줘요. 하지만 그 전에 유물 복원 같은 작업을 통해 전통 자수의 뼈대를 완벽하게 익혀야 해요.

유물 복원 작업은 1900년대 이전의 작품으로 도전해야 하고, 화학재료나 현대적인 기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100% 전통 방식으로 해야 하죠. 저도 엄마와 함께 작업할 때 항상 자연 섬유와 천연 염료만 사용했어요. 재료부터 실까지 모두 자연 그대로여야 해요. 저는 전통 자수의 뼈대를 지키고, 제자들은 그 뼈대 위에 창작을 더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유물 복원에 그렇게 힘을 쏟느냐고 물을 때, 저는 우리 전통 자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작품 중에서 꼭 '고창 자수'로 남겨야 할 작품 두세 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중 유물 중에서 1년에 한 작품 정도 재현하고, 제가 전공한 민수, 특히 전통 베개 작업도 이어가고 싶어요. 고창에서 혼수용으로 사용했던 베개들을 모두 복원하려고 해요. 혼수용 베개는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 준비했었는데, 홀수로만 했죠. 그래서 구봉침, 원왕침, 수복침 같은 전통 베개를 재현하고, '접시꽃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시연회도 열 예정이에요.

또 하나의 목표는 전통 자수에 관한 책을 3권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통 자수에 대한 전문서적이고, 두 번째는 고창 전통 자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책이에요. 특히 민간 자수의 역사를 다룰 생각입니다. 세 번째 책은 제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정리하고, 후학들이 겪지 못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Q. 스스로를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전통 공예의 한 부분인 '전통 자수'를 지키고, 복원하고, 전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전통 자수를 지켜낸 사람이야"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Q.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주었으면 하나요?

그냥 평생 전통 자수를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 ▶ 면담자 : 강현정, 김다희(공공문화연구소 연구원)
- ▶ 면담일시 : 2024. 7. 4.(목) 11:00
- ▶ 면담장소 : 고창공예품전시관 (고창읍 동리로 120)

유춘봉

- 분야: 미술(공예, 도자기)
- 활동지역 : 전북(고창)
- 출생지역 : 고창 고수면
- 출생연도 : 1960년



“고창 청자의 전통을 잇는, 유춘봉 도예 명장 “

고창에서 청자의 전통을 이어온 도자기 장인으로,
도예 가업을 이어오며 고창의 도자기 역사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한 청자, 분청자기, 백자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지역 사회와 도자기 문화를 연결하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도자기와 함께한 세월, DNA에 새겨진 예술

우리는 2남 4녀로, 위에 누나가 있고 내가 그다음, 여동생 셋, 남동생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자기 가마에서 불을 때는 걸 보고 자랐어요. 어머니도 도자기 만드는 걸 도와주시곤 해서, 도자기는 우리 집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렸을 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님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조기정씨랑 같이 ‘소도요업사’라는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실 때 일이에요. 제가 다섯, 여섯 살쯤 됐을 때인데, 주전자 손잡이 끝에 ‘돼지꼬리’라는 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실로 주전자 뚜껑과 연결하는 걸 보았어요. 그 돼지꼬리를 아버님이 한 판에 200개 정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일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돼지꼬리들이 어린 나한테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놀아버렸죠. 물론 다 망가뜨렸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화도 안 내시고 그냥 다시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시간이 흘러, 내가 결혼해서 둘째 딸을 낳았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딸이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제가 작품 20여 점을 만들어놨는데, 그 녀석이 막대기로 그걸 다 피아노 삼아 부러뜨렸어요. 그때 내가 느꼈죠.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DNA에 새겨져 있다는 걸.

자연스레 스며든 예술적 감각과 도자기를 통한 삶의 행복

학교 미술대회에 나가면 입선, 특선 뭐 상을 항상 받았어요. 나가면 무조건 상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 아니었죠. 내가 도자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부터는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 연습을 많이 했어요. 발로 땅을 고르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나 사금파리 같은 걸 주워서 당초 무늬 같은 걸 그렸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는 것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그런 연습을 많이 한 건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공 차고 뛰어놀기도 했고요.

나는 아마 예술적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특별히 ‘아,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 적은 없어요. 왜냐면 뭔가를 배우고 훈련받아서 결과물을

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특별히 ‘내가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공예품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서 특선도 받고, 금상도 받고 했죠. 언제 처음 상을 받았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였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상을 받으면 그게 더 기쁘고요. 내가 만든 작품들은 도지 사나 청와대, 김대중 선생님 같은 유명한 분들에게도 들어갔어요. 그게 다 자랑이죠.

하지만 나는 욕심이 없어요. 여기 체험장을 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도예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고창 자기를 알리는 바탕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주로 경력 단절된 분들이 와서 힐링하고 가요. 월 회비가 10만 원인데, 아침에 남은 반찬 같은 거 가져와서 밥해서 같이 먹고, 하루 종일 웃고 지내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좋아지고, 먹는 약도 줄어들어요.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게 내 행복이에요. 코로나 때도 그런 식으로 쪽 이어졌고요.



서울 유학과 도자기 가업 잇기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님께서 보내주셨죠. 아버님은 경기도 광주에 ‘광주요’라는 도자기 공장에서 기술 감독으로 계셨어요. 그곳은 조소수씨라는 재일교포가 운영하던 공장이었는데, 그분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국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차린 공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광주요죠. 아버님은 그곳에서 청자 유약도 만들고, 기술을 가르치며 공장을 운영하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서울과 광주를 오가시니까 제가 “아버지, 서울에 보내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중학교 2학년에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서울 애들과 한 번 겨뤄보고 싶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버님이 광주요에서 기술 감독을 하시면서 대우를 잘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어머니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이 도자기를 하시면서도 방앗간을 운영하셨는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는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자라게 해주셨고, 나중엔 제자들까지 돌보며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7명의 식구를 돌보셨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중학교는 인천중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명지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파리를 싸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죠.

아버님의 지원으로 시작된 도예가의 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가야 했지만, 그때는 초등학교 때 꿈꿨던 판사라는 꿈을 접었어요.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셔서 제가 “판사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린 저에게 한문으로 된 육법전서를 사주셨죠. 하지만 졸업 후 결국 고창으로 내려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저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받아주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자기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나를 가르칠 때 딱히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물레판에 얹은 나를 지켜보시기만 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도자기를 보고 자랐으니, 손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런 건 자연스럽게 익혔죠. 어려서부터 봐온 것들이 눈과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따로 말로 설명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어요. 어릴 때부터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 연습을 많이 했죠. 지금도 연필로 스케치하지 않고, 바로 칼로 조각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훈련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렸고, 장작불 때는 것도 오래 했어요. 내 또래에서는 장작가마 경험이 많은 사람이 드물어요. 가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장작가마를 꾸준히 했으니까요.

아버님은 마음씨가 정말 좋으셨고, 그릇이 큰 분이셨어요. 우리가 어렵게 살았지만, 아버님을 주위에서 다들 인정해주셨죠. 사단장님이나 도지사님이 고창에 오시면 꼭 아버님께 인사하러 오실 정도였으니까요.

‘고창 자기’의 맥을 향한 사명감

그 당시에는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드물어서 도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흔해져서,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 세대에는 명인이나 명장 같은 직함은 없었고, 인간문화재 같은 건 있었지만, 아버님은 그런 대회에 나가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후학 양성에 더 신경을 썼죠.

당시에 도자기 저변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활동으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산중학교에서 시작했으니, 벌써 30년 넘게 가르치고 있네요. 도자기를 알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혼자 발버둥치며 고창의 도자기 역사성을 알리고, ‘고창 자기’의 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했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창이 ‘청자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다.

저는 고창 고수면 와촌리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는 2남 4녀고, 그중에 예술에 재능이 있는 동생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깊이 들어가지 않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버님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아버님이 혼자 발버둥치며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이 장남으로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도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굉장히 든든해하셨죠.

저도 이제는 1남 2녀의 아버지예요. 딸 둘과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막내는 내가 44세에 낳았고, 위로 누나 둘이 있죠. 아들이 지금 22살인데, 군대에 가 있어요. 어느 날 막내가 갑자기 “엄마, 아빠 연봉이 얼마나 돼?”라고 묻더니, “나 도자기나 해볼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 길이 좁고 힘든 길임을 아내는 알고 있기에 자식에게 물려 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청자의 맥을 이어온 도예 가업

제가 도자기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청자의 마지막 주자는 천안에 계셨던 최남성(崔南星선)생님이세요. 이 분이 청자의 대를 이어온 마지막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 밑에 저희 백부님(유길상 柳吉相)이 제자로 계셨고, 해강 유근형씨가 또 제자였죠. 백부님은 6.25 전쟁 중에 돌아가셨지만, 경기도 광주의 해강 유근형 씨는 우리나라 청자를 이끌어 오셨죠. 최남성 선생님은 백부님께 중요한 ‘유약 데이터’를 넘기고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백부님과 저희 아버님이 도자기를 이어서 하셨어요. 최남성 선생님께서부터 저희 백부님(유길상), 아버님(유하상)에게로 청자의 줄기가 이어졌죠.

백부님께서 박람회 출품하신 작품이 심사 없이 무시된 적이 있었어요. ‘옛날 물건 가져와서 출품했다’고 했었죠. 하지만 작품 바닥에 백부님의 사인이 있어서 결국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그때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다 무산되었죠.

백부님은 청자 작업을 엄격하게 했어요. 도자기 작업을 할 때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했죠. 여자들이 가마불 때는 앞을 지나가면 큰일 났던 시절이었어요. 그만큼 규율이 엄격했어요.

최남성 선생님도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기거하시곤 했어요. 고창에는 가마터도 많고, 자료도 풍부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이 아직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목걸이처럼 완성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전쟁 중에 백부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도자기 작업을 계속 이어오셨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도자기와 함께했으니, 지금까지 도자기를 64년 10개월째 하고 있는 셈이죠.

청자의 역사는 저희 집안에서 동국요 3대 요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버님은 원래 도자기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징병을 피하기 위해 16세에 형님을 따라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께서 함평 초등학교에서 도자기를 가르치고 작업하실 때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작품이어도 단체명으로 받아서 아쉬웠지요. 그때 한국일보에 ‘숨은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아버님이 크게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게 도자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고창 청자의 중후한 매력

다른 지역의 청자는 색이 너무 맑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중후한 맛이 없죠. 반면에 고창 청자는 중후하고 무게감이 있어요. 두껍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 청자는 석고나 주입식 방식으로 얇게 만들어지지만, 고창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물레 작업으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창 자기는 더 묵직하고, 중후한 맛이 나는 거죠.

고창 청자 가마터의 역사적 발굴

고창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재적 자원과 유물들이 발굴된 곳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화자원들이 매우 풍부하죠. 고창에서 발굴된 가마터 중에서도 특히 학술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가마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용계리 가마터인데, 선운CC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이 가마터는 강진에서 발굴된 가마터와 같은 시대의 것으로, 최초로 청자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선생님도 고창을 청자의 고향으로 명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강조해도 아직도 고창 주민들조차 고창이 청자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고창 도자기 유적지 보존의 아쉬움

강진은 청자의 맥이 한동안 끊어졌지만, 고창은 그 맥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일제강점기만 해도 고창군 고수면에 자기소가 7곳이나 있었을 정도로 대단했죠. 강진은 최근에서야 지자체에서 역사성을 바탕으로 도자기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켰어요. 그곳은 도자기 청자 축제도 열리고,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하지만 고창은 워낙 유물과 유적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좀 무뎠진 것 같아요. 용계리 가마터

처럼 청자의 시초가 된 가마터가 발굴되었어도, 다른 지자체 같았으면 관광 명소로 만들어졌을 텐데 고창은 그냥 덮어버렸어요. 발굴은 했지만, 보존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특히 안타까운 건, 선운사 근처 연기지구에서는 분청자기에서 백자로 이어지는 중요한 가마터가 발굴되었어요. 그 가마터 중 하나는 천정이 그대로 살아 있는 아주 귀한 유적지예요. 대부분 발굴되면 무너져 버리지만, 이곳은 붕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고창의 이런 역사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자 가마터의 역사적 가치

고창에서 발굴된 가마터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유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에 찾아가서 “비 맞으면 가마터가 무너지니까, 비를 막을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임시로 비닐 하우스를 씌워놓았더라고요. 하지만 하우스는 습기가 차서 가마터에 더 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군에 가서 “더 나은 보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죠. 그 후 군수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회원들이 고창 가마터를 둘러보러 갔는데, 그때 가마터가 다시 다 덮여버린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예산 문제와 관리 비용 때문에 그냥 덮어버린 거죠.

고창은 많은 가마터가 발굴된 지역이에요. 이 가마터들을 테마로 묶어서 관광 코스로 활용하면 교육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파편을 직접 보고 배우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가마터의 위치가 왜 이곳에 있는지, 옛날 바닷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할 수 있고요. 고창은 그런 자원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런 자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죠.

심지어 발굴된 가마터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통 방식으로 장작불을 때는 가마를 만들어서, 옛 가마터에 준하는 시설을 조성한다면 보존과 활용이 모두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고창 청자의 독창적 발전과 붉은 황토의 특별한 힘

우리가 전통 청자와 백자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이 정말 많아요. 부안이 오히려 고창보다 더 활성화됐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죠. 물론 부안은 도자기 전성기 때 많은 상품들이 나왔지만, 그 기반은 사실 고창에 있었어요. 초기 청자가 고창에서 시작되어 발전해 나갔고, 곰소만을 통해 부안으로 넘어가면서 청자가 꽃을 피웠죠. 옛 가마터를 발굴해보면 시대의 역사를 숨길 수가 없어요. 파편들이 다 말해주죠. 청자는 중국에서 전해진 게 아니라, 도기와 용기에서 발전한 우리만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창의 용계리 가마터를 비롯해 여러 가마터에서 발굴된 녹청자 파편들을 보면, 저급한 청자로 시작해

점차 수준 높은 청자로 발전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중국이 전수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고유의 기술로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죠. 특히 고창의 황토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황토에는 산화철이 풍부해서 청자색을 내는 데 중요한 재료가 되었어요. 높은 온도로 불을 때고 산화철이 환원되면 그 특유의 아름다운 비취색 청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고창은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에요.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덕분에 건강한 작물이 자라고, 사람들도 장수해요. 대한민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은 지자체 중 하나가 고창이에요. 옛날부터 고창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해산물 덕분에 고인들이 애기를 해주듯 부족 국가가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선 청자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

중국에는 순청자가 있는데, 이는 양각이나 음각으로 문양을 새긴 청자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옹기에서 청자로 발전했어요. 청자는 옹기에서 자기로 넘어가면서 발전한 거죠. 중국 청자는 단순한 양각과 음각으로 문양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상감청자를 만들어냈어요. 상감청자는 문양을 조각칼로 파고, 파진 자리를 백토나 산화철, 황토 등으로 채워서 만드는 거예요. 이 상감청자는 멀리서 봐도 문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서 중국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청자로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 청자의 역사는 고창과 강진에서 시작됐어요. 유홍준 선생님도 ‘청자의 고향’은 ‘고창과 강진’이라고 명확히 말했어요. 세계의 도자 역사를 논할 때, 중국과 우리나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우리나라의 고창과 강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유럽과는 천 년 차이가 나는데, 18세기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백자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100년 후에 만든 자기를 유럽으로 수출했죠. 우리 도공들이 이런 도자 기술은 그만큼 대단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 도공들을 끌고 가서 자기 전쟁이라 불릴 만큼 도자기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그때 조선의 막사발이 일본에 들어갔는데, 일본에서는 이 막사발이 ‘다완’이라 불리며 차를 마시는 그릇으로 쓰였어요. 일본 다이묘들은 이 막사발을 얻기 위해 전쟁까지 벌였고, 성 하나를 주고 막사발을 교환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성주는 순금 3,000근을 주고 바꿔 샀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조선의 막사발이 귀한 대접을 받았죠.

한편, 일본에서는 이 막사발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도 있어요. 한 다이묘가 막사발을 소유한 사람마다 악

성 종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막사발을 일본의 대덕사라는 절에 기증해버렸는데, 이 막사발은 현재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 조선 도자기의 가치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일본 군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건, 우리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를 구경도 못 했던 시절에, 우리 백성들은 밥그릇, 물그릇, 심지어 강아지 밥그릇까지 자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워요. 일본 이주민들이 많다 보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신경이 쓰이기도 해요.

황토 용기에 구운 명품소금

도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구운 소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소금으로 애들 교육비도 댔죠. 이 소금은 명품 소금이에요. 천일염을 800도로 13시간 동안 구워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포장해요. 원적외선이 나와서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염증도 줄여줘요. 소금을 믹서에 살짝 갈아서 양치할 때 사용하면 치주염, 시린 이, 입 냄새에도 좋고요. 요즘은 죽염 대신 제 소금을 많이들 쓰세요. 물에 소금을 녹여서 마시면 마치 링거를 맞는 것처럼 몸에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 소금은 납, 수은, 카드뮴, 비소가 불검출로 나왔어요. 연구관들도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예요. 소금을 13시간 동안 구워서 불순물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이 소금을 황토 용기에 구워서 원적외선으로 활성화시켰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소금을 사발에 넣어 구워주셨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그걸 상품화한 거죠.

이 소금은 써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 유명하지만, 우리 천일염은 유기물이 풍부해서 성분 차이가 커요. 삼양염전에서 생산되는 고창 천일염은 유기물이 풍부한 최고 품질의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고창 마켓’에서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마트나 온천 같은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도자기로는 한국 예총에서 인증한 ‘전통 자기 부분 명인’이고, 이 구운 소금으로는 ‘고창군 식품 명인 6호’로 지정됐어요.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도자기 교육과 후학 양성

대한민국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저처럼 전통적인 방식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저는 성형, 조각, 유약까지 전통 방식을 모두 가르치죠. 요즘은 각자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저는 전통적인 기술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칼을 사서 쓰기보다는 직접 만들어 쓰는 법, 칼을 어떻게 갈고 사용해야 하는지, 조각칼과 굽는칼, 깎는칼의 차이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도구와 방식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은 간편한 방법을 선호하지만, 저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옛날 방식대로 자기를 만들면 도구도 그렇고 작업도 훨씬 수월하죠. 반면에 지금 사람들이 쓰는 도구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전통 조각을 가르치고, 직접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재미없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면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현재 제 수업을 거쳐 간 사람이 100여 명 되고, 그중 20명이 강사로 활동 중이에요. 제자들은 방과 후 수업을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자격증을 따서 자신만의 공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길을 열어주면서 제자들이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리고 수강료도 부담 없게 만들어서, 2년 후엔 절반으로 줄이고, 5년 후엔 무료로 진행하면서 힐링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고 있죠.

완성된 제자들의 작품은 공방에 진열하고 판매도 하는데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제자들의 도자기를 사 가면 뿌듯하고 기쁘죠. 한 제자는 광주에 자기 공방을 차리고 수업도 하면서 체험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도자 카페도 운영하고, 전시회도 열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매년 회원 전시회를 열어 이익금을 고창군에 기부하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창을 지키는 전통 도예인의 길

어릴 때부터 방앗간 일을 하며 도자기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하지만 큰 방앗간들에 밀려서 방앗간도 접게 되었죠.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이주를 요청받기도 했었지만(곡성, 영덕) 있었지만, 저는 고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속에 흐르는 뭔가가 저를 이 땅에 붙잡아 둔 것 같아요. ‘그래도 고창자기는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의미를 부여하고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의미는 다음 세대가 부여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이 땅에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아왔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고창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다운 축제

고창이 활성화되려면,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슬을 잘 꿰어야 해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큰 틀을 짜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생물권 보존지역이기도 하고, 각 면마다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땅콩이 많이 나면, 그걸 부각시키는 축제나 지원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죠. 고수면은 예부터 도자기가 유명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하나로 연결해야 해요. 축제도 너무 많아요. 고창만큼 축제가 많은 지자체가 없을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작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관광문화재단, 문체부 같은 기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물이나 문화재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역사 순으로 나열하면 그 가치가 드러날 거예요. 고창에는 이런 자원이 넘치는데도 활용이 부족한 게 안타까워요. 작은 사업들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 큰 틀을 놓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사업들이 필요해요.

고창자기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명인

저는 항상 저를 비우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섬김이 몸에 배었죠. 교만하지 않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방 식구들도 다들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함께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 “고창자기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남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선 고창자기를 확실히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고창이 청자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해요.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부르는데, 도기는 용기에서 시작되어 청자로 발전했죠. 그런데 세계에서 청자를 만든 나라는 단 두 곳뿐이에요,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천년 뒤에서야 비로소 자기를 사용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었던 거지요. 청자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문명의 발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이죠.

장작가마 복원과 국가무형유산 도전

이제 인간문화재에 도전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뚜렷한 전통과 맥을 이어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들도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장작가마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문화재가 되려면 가스가마가 아니라 장작가마로 불을 때워야 하죠. 예전에 고수 가마가 1988년에 매미 태풍으로 무너졌어요. 지붕이 날아가면서 가마가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그 가마를 복원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다음으로는 고창자기를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레벨로 축제화하고, 고창을 청자의 고향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고창 청자를 계승하기 위한 앞으로의 의지

개인전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려고 해요. 주위에서 하라고 많이 권유했지만, 아직도 좀 부끄럽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매듭을 짓고,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 나도 좀 의지를 가지고 전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첫 전시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아요. 저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생활자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조각하고,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전시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료를 정리해서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대부터 모아온 자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도자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만들기, 조각하기, 칼 사용하는 법, 유약 만들기, 불 때는 방법 등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또 책으로도 기록을 남겨야 하고, 전시를 통해 제 마지막 결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고창의 전통자기의 맥을 이은 작품이 이렇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 ▶ 면담자 : 강현정, 김다희(공공문화연구소 연구원)
- ▶ 면담일시 : 2024. 7. 18.(목) 10:50
- ▶ 면담장소 : 도예체험관

03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정리

◆ 고창군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45명의 면담조사 완료

- 2023년 고창군 문화예술인 전업예술인 68명 중 면담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50명을 선정하였고, 인터뷰가 어려운 5명을 제외한 45명의 예술인과 면담조사 진행
- 2024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이야기수집가 4명과 연구진 2명이 참여하여 면담조사 완료

◆ 면담조사 질문지 구성

- 면담조사 질문지는 전업예술인과 무형유산 보유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질문구성은 인적사항, 예술가로서의 삶, 고창의 예술활동,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는 생애와 예술가로서의 삶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추가함

◆ 전업예술인 39명과 무형유산 보유자, 명인, 명장 6명에 대한 녹취 자료화

- 녹취자료는 모두 텍스트로 변환되어 문서로 정리
- 향후 연구 및 콘텐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화

◆ 문화예술인 45명의 녹취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빙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

- 녹취자료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소 3쪽에서 최대 5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임.
- 온라인에 게시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분석하여 재구성

◆ 면담에 참여한 예술가 45명의 의견을 분석

- 예술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창군의 문화예술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시

◆ 고창군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수료자를 이야기수집가로 연구에 참여

- 고창군 주민 중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수료자를 이야기수집가로 모집하여 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운영함
- 이야기수집가 4명이 문화예술가 39명과 면담조사를 진행

2. 고창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예술가의 의견¹⁾

◆ 정체성 유지와 문화적 자부심 강조

- 고창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고창의 예술가들은 이를 지켜내는 것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후대에 중요한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방법 이라고 강조함

◆ 현대적 해석과 전통의 융합 필요성

-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형태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함.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통의 가치를 변형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요구에 맞추어 재 해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1) 이외 예술가들의 다양한 의견

예술가들이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마련(자녀 돌봄 서비스 등), 고창을 대표하는 지속적인 브랜드공연 개발하여 예술가들에게 정기적인 공연기회 제공,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확충, 전문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지역의 문화적 포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시도 필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안에서 인지도를 높여주도록 해야 함, 대중 예술 외에도 다양한 예술 장르가 고창군 내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 지역 경제와 문화의 상호 보완적 발전

- 전통문화의 보존은 단순한 문화유산 보호 차원을 넘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음.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가능함

◆ 공동체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 전통문화의 보존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함. 전통문화는 공동체 모두의 것이므로, 모두가 참여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 예술인들이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 창의적 콘텐츠 생산에 대한 지원

-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민에게 전통문화를 새롭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인과 공동체의 협력 프로젝트 지원

- 예술인과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는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도 강화될 수 있음

3. 수집된 자료의 활용방안

◆ 고창의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문서 자료로 보존

- 이번 연구를 통해 수집된 고창의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생애나 예술 활동을 기록한 자료로서 그치지 않고, 고창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고창군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술인 DB로 구축

문화관광DB

문화공간DB

문화예술인DB

문화예술단체DB

박미애

- 분야 : 미술(공예, 전통 자수)
- 활동지역 : 전국
- 출생지역 : 전북(고창)
- 출생연도 : 1959년



“고창 전통 자수의 가치를 지키고 전수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싶은 예술가”

전통 자수를 평생 지켜온 박미애 예술가.

100년을 이어온 고창 전통 자수의 뿌리를 지키고, 복원하며,
그 가치를 후세에 전수하고자 하는 깊은 사명감을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전통의 뼈대를 지키며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진정한 장인입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 전통 자수를 3대째 이어오고 있는 박미애입니다. 외할머니부터 시작해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세대에 걸쳐 자수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는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예술인 DB로 구축될 예정임.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고창 예술인들의 활동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고창군 문화예술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 면담을 통해 도출된 예술가들의 의견은 고창군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임. 예술가들이 직접 제시한 지역의 예술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필요사항은 지역문화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고창군은 더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연구의 의의

- 2023년 고창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문자로 발송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전수조사로 진행되었으나, 2024년에는 예술인을 직접 방문하는 면담조사로 변경하여 문화예술인과의 접점을 확대하였음. 이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인터뷰가 가능해졌으며, 예술인들의 실제 삶과 활동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음.
- 이번 면담조사는 예술인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귀중한 아카이빙 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음. 이는 예술인의 삶과 활동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써 큰 의의를 가짐.
- 또한, 수집된 면담 자료는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고창문화관광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성을 높였음.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창 예술가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임.

- 특히, 고창군민이 이야기수집가로 직접 참여하여 예술가들과 면담을 진행한 점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임.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예술가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예술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

◆ 연구의 한계

- 이야기수집가들이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과는 별도로 이야기수집가 양성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조사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면담조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2023년 고창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270명의 예술인이 분석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이번 면담조사에서는 전업예술인 45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이는 면담조사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나머지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사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3년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면담의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원로예술인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단계별 보다 폭넓은 예술인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04 부록



1. 양식

: 질문지, 구술동의서, 구술활용 동의서, 체크리스트

질문지 1.

과제명	2024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용역	구술자명	
구 분	질문내용		
사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녕하세요. -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고창군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예술인 구술 및 예술활동 자료 등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번 기록을 통하여 앞으로 고창군 예술인 지원사업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 이번 인터뷰는 이런 배경(차원)으로 진행되는 점임을 먼저 밝힙니다. 		
간단한 인적사항과 자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 인터뷰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선생님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① 선생님의 <u>생년월일</u>을 말씀해주세요. - 선생님의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시대적 배경(연도)과 연결지어 상황을 상상하기 위함입니다. - ②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나요? (출생지) - ③ 본인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p>(예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등)</p>		

예술적 재능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 현재 하고있는 예술활동에 매료되었던 첫 순간이 기억나실까요? 그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술가의 길 (데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살에 데뷔 하셨나요? (나이로서 연도를 추정하고 다시 확인 점검) - 데뷔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작품제목과 내용) - 데뷔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본격적인 예술가의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부터 고창군에서 활동/거주하게 되었나요? - 지금은 주로 어떤 작품(활동)을 하시나요? - 그것은 어떤 장르라고 칭해야 할까요?
고창군 예술인 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신가요? -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참여해 본 소감은 어떠했나요? - 좋았던 점이 있다면요? (반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 앞으로 어떤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을까요?
기억되고 싶은 나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을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요? -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앞으로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되네요. -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질문지 2.

과제명	2024 고창 문화예술인 인물사전 용역	구술자명	
구 분	질문내용		
사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녕하세요. -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고창군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예술인 구술 및 예술활동 자료 등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번 기록을 통하여 앞으로 고창군 예술인 지원사업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 이번 인터뷰는 이런 배경(차원)으로 진행되는 점임을 먼저 밝힙니다. 		
간단한 인적사항과 자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 인터뷰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선생님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① 선생님의 <u>생년월일</u>을 말씀해주세요. - 선생님의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시대적 배경(연도)과 연결지어 상황을 상상하기 위함입니다. - ②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나요? (출생지) - ③ 본인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예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등) 		
예술적 재능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 현재 하고있는 예술활동에 매료되었던 첫 순간이 기억나실까요? 그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p>예술가의 길 (데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살에 데뷔 하셨나요? (나이로서 연도를 추정하고 다시 확인 점검) - 데뷔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작품제목과 내용) - 데뷔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p>본격적인 예술가의 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부터 고창군에서 활동/거주하게 되었나요? - 지금은 주로 어떤 작품(활동)을 하시나요? - 그것은 어떤 장르라고 칭해야 할까요?
<p>고창군 예술인 진흥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신가요? -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참여해 본 소감은 어떠했나요? - 좋았던 점이 있다면요? (반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 앞으로 어떤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을까요?
<p>기억되고 싶은 나의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을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요? -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p>앞으로의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되네요. -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구술 동의서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해당 구술채록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그 의의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구술채록은 녹음, 녹화 파일 및 녹취록으로 작성/보관되며 녹음, 녹화파일 및 녹취록은 구술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분 공개 혹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2. 구술 채록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녹음/녹화 데이터와 녹취록은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보존/관리한다.

구술자는 상기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의 구술 채록 작업에 동의합니다.

일 자: 년 월 일

구술자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 (공개)

본인은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의 구술 채록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은 구술의 녹음·녹화, 구술 녹취록 제작에 동의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녹음/녹화물/녹취록 파일과 구술자 사진 및 기타 기증 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를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 이양하며, 구술자료에 대한 복사·이용·출판에 대한 권리를 (재)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공유한다.
3. 구술자료는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보존·관리하며, 자료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 및 학술 목적에 한하여, 연구자와 국민이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다.
4.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구술자료를 출판할 수 있으며, 편집된 구술자료는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연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본인은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의 구술 채록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구술자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면답자 성명: _____ (인)

생년월일:

연락처:

인터뷰 진행 관련 체크 리스트 (6.23.수정)

구분	내용
사전 작업	예술인에게 연락하여 <u>인터뷰 취지와 목적</u> 을 잘 설명하였나요?
	인터뷰 <u>진행 시간</u> 과 <u>장소</u> 를 정했나요? (되도록 자택 또는 작업실)
	예술인에게 <u>인터뷰 질문지</u> 를 <u>미리 송부</u> 하였나요?
	<u>인터뷰 대상자</u> 에 대한 <u>사전정보</u> 를 검색하고, 숙지하였나요?
	(하루 전) 인터뷰 대상자에게 <u>내일 인터뷰</u> 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u>다시 확인</u> 하였나요?
	(준비물) 준비물은 잘 챙기셨나요? : 보조배터리, 답례품, 구술동의서,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동의서, 질문지 2부, 노트, 필기구
진행 시	(인터뷰 시작 시) 예술인에게 음성녹음 및 <u>사진촬영</u> 에 대한 <u>양해</u> 를 구하였나요?
	(인터뷰 시작 시) 예술인에게 <u>인터뷰 취지 설명</u> 및 <u>소장자료</u> 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나요?
	(인터뷰 시작 시) 예술인에게 <u>답례품</u> 을 드렸나요?
	(음성녹음 시) 휴대폰 <u>비행기모드</u> 를 눌렀나요?
	(음성녹음 시) 휴대전화의 <u>마이크</u> 부분을 <u>예술인 가까이</u> 에 두었나요?
	(음성녹음 시) 휴대전화를 <u>소음</u> 이 적은 곳에 두었나요?
	(인터뷰 마치고) 예술인에게 <u>구술동의서</u> , <u>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동의서</u> 에 <u>서명</u> 을 받았나요?
진행 이후	(직후) 음성녹음을 클로바노트에 변환하였나요? (0차자료 추출)
	(직후) 본인 pc 또는 노트북에 <u>0차자료</u> , <u>예술인 사진자료</u> 를 저장하였나요?
	음성을 다시 듣고, 0차자료 한글파일과 대조하여 <u>1차자료(녹취록)</u> 을 보완 및 <u>작성</u> 하였나요?
1차자료 (녹취록) 작성 이후	(인터뷰 종료 후 7일 이내) <u>패들렛</u> 에 ' <u>0차자료</u> (클로바노트 자동기록)', ' <u>1차자료</u> (녹취록)' 를 <u>업로드</u> 하였나요?
	해당 예술인에게 최종 작성된 녹취록의 <u>내용</u> 을 <u>검토</u> 받았나요?